

12월 문화+예술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09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C o n t e n t s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2011. 09. vol 55



감성, 지성, 인생의 발전을 이끄는
서울창의예술학교.



22



28



40

02 아트 갤러리 이달의 표지 작가, 이지영

9월의 문화+서울 | 서울창의예술학교

- 04 서울을 바꾸는 예술교육
- 06 서울창의예술학교를 소개합니다
- 10 예술교육의 공적 가치에 대하여
- 14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 2011 링컨센터 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 워크숍
- 18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청춘예술특강>
- 20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달과 그림자>

사람과 사람

- 22 문화인 영국 문화예술교육기관 CCE 대표 폴 콜라드
- 28 영 아티스트 검객과담 <도화만발>의 주연배우 박해수
- 34 나의 서울 생활기 러시아 발레리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 38 서울 단상 일러스트레이터 이강훈이 사랑하는 새벽녘의 가로수길

지금 서울은

- 40 이슈 1 이제는 몸의 시대
- 44 이슈 2 아트마케팅, 예술과 자본의 아름다운 동거
- 48 연재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새로운 길을 찾다 ③
- 52 이미지 서울 시원한 상상
- 54 이달의 평론 <SNAP: Social Network Art Project>
- 58 리뷰 1 대학교연극투어
- 60 리뷰 2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1
- 62 리뷰 3 카툰 판소리 <날아라 예코맨>

서울 너머로

- 64 해외 트렌드 '벽을 넘어선' 축제이야기
- 66 해외 뉴스 뉴욕, 베를린

문화@서울

- 68 좌충우돌 문화 체험 문래예술공장 고양이 놀이터 만들기 작가 · 주민 워크숍 <고양이를 부탁해>
- 72 MUST 7 9월의 문화 소식
- 74 문화 캘린더
- 77 SFAC 뉴스
- 82 현장 인터뷰
- 84 독자의 소리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일 2011년 8월 25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발행인 안호상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교류팀 | 홍보교류팀장 이현아 | 박영도, 정경미, 김수연, 신동석, 주환석 | 씨네21(주) 발행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el 02-3290-7000 Fax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편집·디자인·사진 씨네21(주) 교열 최귀열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1 〈Childhood〉, inkjet print, 120x96cm, 2009

표지 작품인 〈Childhood〉는 정체성에 관한 물음을 담았다. 바람개비, 유리구두, 동화책 등 유년기의 추억을 환기시키는 오브제를 선택해 작업했다. 아이가 아닌 소녀가 된 인물은 창밖으로 무엇이,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기에 안락하고 평화로운 시간과 공간 속에 머물고 싶다.

2 〈Panic Room〉, inkjet print, 180x144cm, 2010

이달의 표지 작가

이지영

정체성에 관한 탐구



학부에서는 시각디자인을 전공했지만 대학원에서는 사진을 전공했다. 사진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 학부 때도 사진을 배우기는 했다. 원래 디자이너보다는 전업작가를 꿈꿨기에 졸업전시도 사진으로 했는데, 현재 사진을 매체로 활용하고 있지만 딱히 사진만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설치나 영상, 야외 작업에도 도전하고 싶다.

작업마다 특정 공간을 배경으로 한 것이 인상적이다. 현재 나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된 작업이다. 사회와 나의 관계에서 느끼는 모종의 감정과 상황을 재연했다. 배경이 되는 세트를 짓고, 그 안에 상징적인 오브제를 설치하여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일상에서 경험한 심리적 체험을 소재로 공간을 연출함으로써 그 안에 놓인 사물과 그것에 내포된 의미로 가치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던 내면을 시각화시켰다.

작업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무엇인가? 나의 작업은 자화상, 혹은 일기의 성격을 띤다. 현재 느끼는 감정과 심리적 충격,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는데, 삶은 누구에게나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작가로서의 꿈은? 좋은 작가가 되고 싶다. 대중적인 인기나 상업적인 성공을 바라기보다는 자신이 진정 하고 싶은 이야기를 위해 꾸준히 작업하는 작가. 나만의 진실한 이야기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

2011 서울문화재단 시각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작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동 대학원 사진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개인전 〈DAZED: Stage of Mind〉를 시작으로 2010년 〈BELT 2010: DAZED: Stage of Mind〉, 2011년 〈Stage of Mind〉전을 가졌다. 현재 단체전 〈YAP 2011〉을 준비 중이다.



서울창의예술학교

서울을 바꾸는 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통합 브랜드 '서울창의예술학교'와 함께 이제 예술교육은 가르치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문화 소외계층까지 예술을 매개로 한 창의적인 교육을 지원받고 있는 것. 서울창의예술학교는 미적체험과 장르 간 통합교육을 통해 깊이 있는 예술을 이해시키고 다름을 통한 소통을 실천한다. 지성, 감성, 인성의 풍요로운 발전을 이끄는 서울창의예술학교의 다양한 현장을 소개한다.





1 서울창의예술학교는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서 예술교육이 펼쳐지길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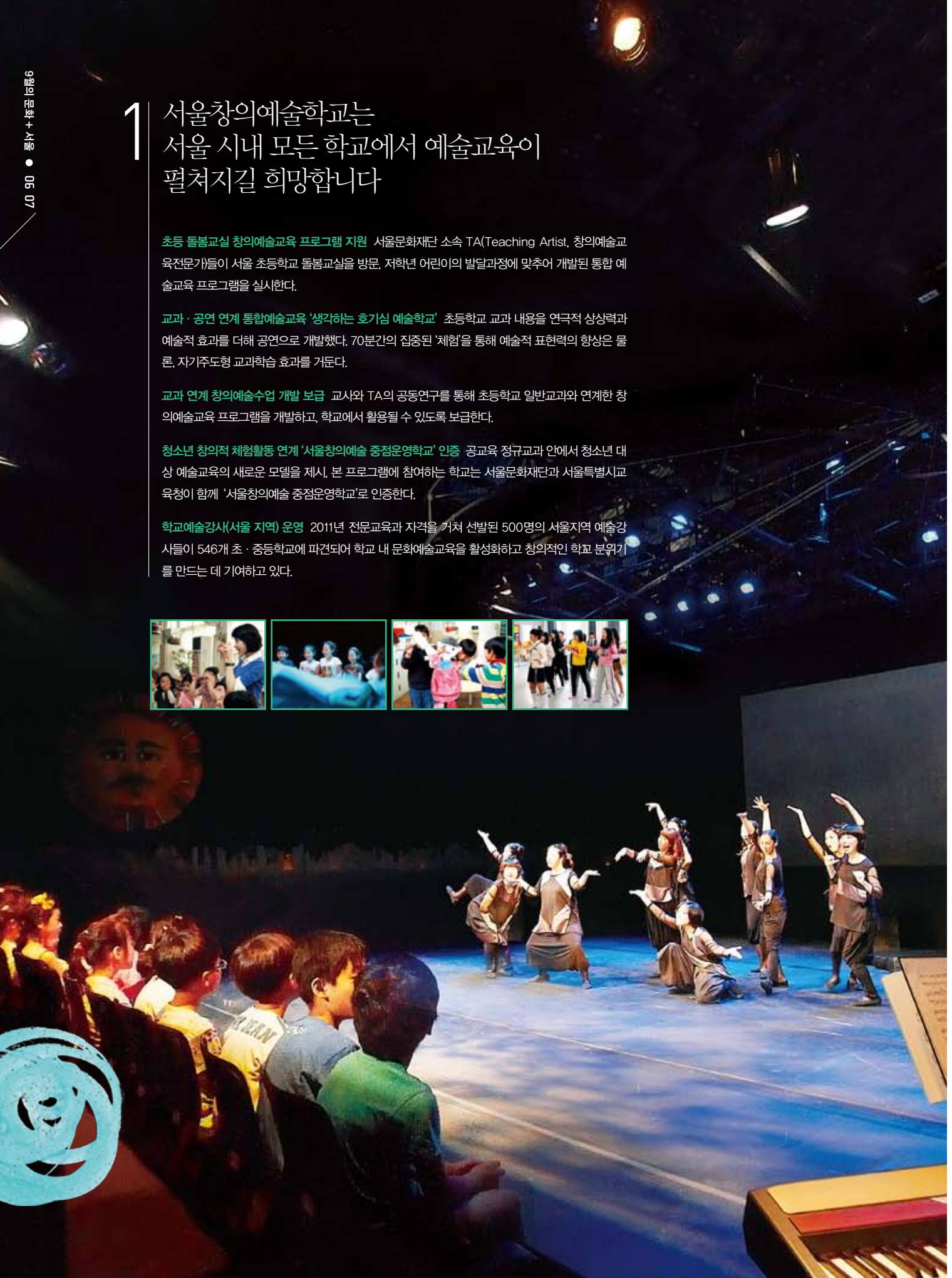
초등 돌봄교실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서울문화재단 소속 TA(Teaching Artist, 창의예술교육전문가)들이 서울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방문, 저학년 어린이의 발달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교과·공연 연계 통합예술교육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초등학교 교과 내용을 연극적 상상력과 예술적 효과를 더해 공연으로 개발했다. 70분간의 집중된 '체험'을 통해 예술적 표현력의 향상은 물론, 자기주도형 교과학습 효과를 거둔다.

교과 연계 창의예술수업 개발 보급 교사와 TA의 공동연구를 통해 초등학교 일반교과와 연계한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한다.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 인증 공교육 정규교과 안에서 청소년 대상 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서울문화재단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함께 '서울창의예술 중점운영학교'로 인증한다.

학교예술강사(서울 지역) 운영 2011년 전문교육과 자격을 거쳐 선발된 500명의 서울지역 예술강사들이 546개 초·중등학교에 파견되어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적인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2 서울창의예술학교는 TA(창의예술교육전문가) 양성을 통한 문화예술 사회공헌을 실현합니다

TA(창의예술교육전문가) 양성 2007년부터 교육하는 예술가, TA 양성과정을 운영해 2010년까지 700여 명의 TA를 배출했다.

서울국제예술교육워크숍(SEW) 뉴욕 링컨센터 예술교육원을 초청, 예술교육가와 학교 교사들을 위한 특별한 예술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뉴욕 링컨센터 예술교육 워크숍 연수 프로그램 뉴욕 링컨센터에서 매해 여름 개최되는 Educator Workshop에 다양한 아티스트와 교육자의 참가를 지원, 동시대 예술교육의 흐름을 공유한다.



3 서울시민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서울창의예술학교가 함께합니다

문화매개자(교사, 공무원) 창의예술교육 일선 교사 및 재외 한글학교 교사, 서울특별시청, 기초단체 및 산하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60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와 예술의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르신 전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자원사업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아동, 청소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체험, 학습,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4 서울창의예술학교는 서울을 대표하는 창의예술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국내외 문화예술교육기관 교류 및 협력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우수기관과의 다양한 교류 및 협력사업을 통해 서울이 문화예술교육의 국제적 허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 문화시민을 양성하고, 정보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한다.

예술교육정보자료관 8천여 점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예술교육 전문 자료관. 문화예술교육 관련 네트워크를 위한 사랑방 역할을 하는 열린 공간이다.



1

예술 교육의 공적 가치에 대하여

모두를 위한 창의예술교육

최근 창의성 교육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육적 화두가 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로 명명되는 오늘날과 같은 사회에서 창의성은 미래 한 국가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원동력으로 인식되어 OECD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선진국들은 다음 세대의 창의성 계발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국가가 지원하는 창의성 교육은 특정 영역의 뛰어난 소수 영재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공적인 의무 중의 하나인 교육기회의 균등한 분배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 저변부에서부터 뿌리내려야 할 선진문화의 배양이라는 차원에서도,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할 교육 기회라는 생각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비춰볼 때 서울문화재단이 지난 10여 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창의예술교육사업>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창의예술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왜 하필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배워야 하는가? 이 질문 뒤에 깔려 있는 필자의 일차적 관심은 '창의예술교육'이라는 슬로건의 의미를 비판적으로 성찰해봄으로써 이것이 의미하는 가장 좋고 현실적인 개념을 재구성해내는 데에 있다. 필자는

최근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한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에 참여하면서 여러 학자 및 전문가와 창의예술교육의 개념과 철학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할 기회를 가졌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얻은 생각과 통찰에 기초하여 위의 두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답을 제공하고자 한다.

::: 예술 교육을 개념화하기

우리 사회에서 예술교육은 이미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요즘 학교 바깥에서 혹은 학교 내에서도 공식적 교육과정과 별도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창의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적 예술교육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가? 그것은 아마도 학교 교과과정을 통한 예술교육이 다양한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예술이 지닌 교육적 힘을 충분히 드러내지도



1 교과·공연 연계 통합예술교육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2 초등 돌봄교실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발휘하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보다 강력하고 매력적인 예술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술'과 '교육'이라는 두 개념, 즉 '예술을 배우는 것'과 '교육받은 사람이 되는 것' 간의 유기적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교육의 개념화와 그 접근의 발전이 절실하다.

만약 '창의성'을 예술이 지닌 교육적 힘으로 본다면, '예술'과 '교육'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번 심포지엄의 기조 발표자인 콜럼비아 대학교 교육철학 프로그램의 데이비드 한센 교수는 '세계시민과 창의성'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심미적 예술교육 모형에서의 창의성 개념을 기술하고 있다. 그는 우리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지키면서도 다른 문화나 새로운 감수성을 받아들일 줄 아는 세계시민성을 예술교육을 통해 어떻게 기를 수 있을지, 스페인 플라멩코 음악 수업의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예술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도전적 질문과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주어진 예술작품에 대하여 각자 '성찰적으로 응답(reflectively responsive)'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한센 교수는 학생들이 단순히 플라멩코 음악에 대한 지식적 이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이 지닌 특정 요소에 대하여 모종의 개인적이고 정서적 응답을 할 수 있을 만큼 개방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정도에 따라, 자신이나 세상을 지각하고 느끼는 방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학생들의 지각과 감수성에 변화가 생기는 이 과정이 바로 창조적 과정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런데 예술교사는 어떻게 학생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끌 수 있는가? 한센 교수에 따르면, 예술교사는 학생들이 작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술작품과 관련된 생생하고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학생들 앞에 열어 보여줘야 한다. 이때 학생들은 그렇게 제시된 구체적 맥락 속에 자신을 투사하면서 가상적 세계를 눈앞에 떠올리며 그 세계로의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 세계는 가상의 세계이지만 실제 세계보다 더 생생하게 우리를 살아 있게 만드는 가상의 세계로서,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세계이기도 하

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이러한 가상의 세계에 접속된다. 한센 교수의 옛 동료인 맥신 그린 박사에 따르면, 상상력이라는 것은 대안적인 가능성, 혹은 일어날 수 있는 가설적인 가능성을 탐구할 때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이들은 예술가들의 상상력이나 자신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풍부한 가설적 세계 속에 스스로를 투사할 수 있는 기회를 필요로 한다." 가상 세계 속으로의 여행이라는 것은 자신이 응답하게 되는 예술작품의 특정 요소를 중심으로 작가와 상상적으로 대면하여 응하고 참여하고 성찰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한센 교수가 말하는 '성찰적 응답'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찰적 응답'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체험한 세계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이 주체적 해석, 혹은 의미 만들기야 곧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창조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술교사의 역할은 예술작품이나 활동을 매개로 학생들과 접속된 채, 이들에게 진정한 도전을 주는 것,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끌려 그것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창의예술교육에서 예술교사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예술교사가 가르칠 예술작품이나 활동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예술의 교육적 힘이 발휘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 기다림과 응답의 미학

한센 교수뿐 아니라 당대 적지 않은 교육철학자들이 예술을 통한 '시민교육'이나 '도덕교육'을 제안한다. 다문화적이고 다원적인 가치가 갈등하며 공존하는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



1

의 사회에서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인정이나 다양성의 존중은 합리적 사고나 판단, 그리고 의지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감수성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머리'로는 아무리 타 문화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몸'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취향이 다른 사람에 대해 체질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반응하는 방식, 우리의 감수성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다. '도덕적 행동'이라는 것이 합리적 사고에 기댄 판단에 의해서보다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적 상상력에 의해 바깥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교육적 제안은 모두 한 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그 사람이 세상을 지각하는 능력과 감수성의 변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한센 교수나 그린 박사가 염두에 두고 있는 예술을 통한 창의성교육은 필연적으로 인성교육, 더 나아가 시민교육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하여 도덕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다 성숙한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 창의예술교육은 미래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제공되어야 할 공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예술교육이 관심을 가지는 심미적 창의성은 심리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창의성, 즉 모차르트나 에디슨, 피카소와 같이 인류 문화를 중요한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변화시킨 천재들에게서 나타나는 독창적 창의성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능력 및

인성, 즉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나 바람직한 결과를 예상하는 합목적성 등에 기대는 발상력, 문제해결력, 혁신력이나, 이러한 생산적 능력들과 짝을 이루는 정서 능력들인 정서지능, 견고성(resilience) 등과도 다르다. 아래에 제시되는 사례는 아마도 예술교육의 목적으로서 '심미적 창의성'이 위에서 언급한 다른 두 가지 창의성과 어떻게 개념적으로 차별화되는지 작은 힌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 심미적 접근의 창의예술교육

필자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한 철학 교수는 토론수업에서 본인이 주로 주목하는 부류의 학생과 그렇지 않은 부류의 학생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특정 이슈에 대한 철학적 논변을 상호 협력적으로 발전시키는 토론수업 과정에서 그 교수가 주로 주목하는 학생은 그 이슈에 대한 기존의 잘 정립된 논변, 예를 들어 A에서 B, B에서 C(A→B→C)로의 논변 과정을 잘 꿰고 있으면서 이것 위에 새로운 논변 D나 새롭게 변형된 논변 C'를 덧붙이는 학생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해당 이슈에 대한 논변의 전체적 그림을 발전시키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체 논



- 1 TA(창의예술교육전문가) 양성 과정 프로그램
- 2 문화매개자(교사, 공무원) 대상 창의예술교육 프로그램
- 3 서울국제예술교육 워크숍 시각예술 프로그램



습자의 창의성이 발휘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위의 사례에서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은 'A'에서 'B'로의 논변 진전 과정을 배우면서 이 과정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나가는 성향을 가졌다는 의미에서 창의적인 학생들이다.

창의성을 이런 교육적 관점에서 이해할 때, 창의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교사들은 창의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교육심리학자나 지식기반사회 교육전문가들의 연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이 어떤 순간에 창의적이 되는지, 자신이 창의적으로 된 순간 자신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되돌아보거나 다른 예술교사들과 그 경험을 공유하며 창의성 개념을 새롭게 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사가 자신의 삶이나 교육 현장 속에서 스스로 창의적으로 되지 않고서는, 창의적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몸으로 느끼고 이해하지 않고서는, 창의적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기탄 매우 어렵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예술교사는 끊임없이 스스로 창의적인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의 창의예술교육은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생산적 창의성을 직접 길러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창의 예술교육을 통해 길러진 '심미적 창의성'은 결과적으로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능력의 계발에 호의적인 기본적 소양과 사회적 풍토를 개인과 사회에 각각 제공할 것이다. 진정한 창의성은 우리가 직접 가르칠 수도 끌어낼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 스스로 나오고 발산하는 것이다. 심미적 창의예술교육은 창의성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응답해야 하는지, 그 기다림과 응답의 미학을 핵심 원리로 하는 교육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변을 발전시키는 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토론에 열심히 참여하는 마땅찮은 부류의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이미 잘 정립된 논변 A에서 B로 나아가는 과정(A→B)을 자신이 어떻게 생생하게 이해하게 됐지에 초점을 두고 마치 새로운 것을 발견한 양 흥분하며 열심히 설명한다고 한다. 필자가 보기에 후자의 학생들은 전자의 학생들처럼 전체 논변의 발전에 객관적으로 기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발견이 있다고 보며, 객관적으로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주관적으로는 새로운, 즉 자신이 이해하게 된 개인적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들이다.

철학자이기 이전에 교육자인 필자에게는 두 번째 부류의 학생들이 더 흥미롭게 다가온다. 심미적 접근의 창의예술교육은 '인지적 창의성'보다는 '심미적 창의성'에 더 관심을 둔다. 뭔가를 배우며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경험의 변화를 의미화하는 능력을 우리는 '교육적 창의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자신 안에 모종의 내면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힐 때 그 학

〈The Landscapes of Learning, New York〉(Maxine Greene, Teacher College Press, 1978)과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자료집〉(서울문화재단)을 참고했습니다.



1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 〈2011 링컨센터 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 워크숍〉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흐름 속으로

서울문화재단이 8월 12일 개최한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과 〈2011 링컨센터 초청 서울국제예술교육 워크숍〉은 무덥고 비 많은 올여름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사고와 현장 실행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였다. 창의성이 문화 세기, 경쟁력,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어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번 심포지엄과 워크숍은 현장 실천가들에게 창의성을 둘러싼 철학과 정책의 국내외적 추세를 살펴보고,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며, 국내외의 우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의 생활화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교육과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서울문화재단의 예술교육 통합브랜드인 '서울창의예술학교' 사업은 재단의 국제 교류와 거버넌스 역량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적 리더와 교류하고 국내의 급증하는 관심과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알리는 기회가 됐고, 내부적으로는 국제적 감각 및 추세, 철학과 이념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흐름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본 행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문화예술교육을 여러 관점에서 논의하다
2011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SISAC)은 '예술교육으로 창의교육의 변화를 이끌다'라는 주제하에 열렸다. 창의적 예술교육의 철학적, 정책적 접근과 이해를 시도하고 현장을 근거로 한 미래지향적 예술교육을 논의하고자 교육과 예술교육, 창의성의 관계 및 방향성을 조망하고 국내외 다양한 창의적 예술교육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교육과 예술교육 그리고 창의성(오전), 창의적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과 사회 변화(오후)의 2부로 구성되었다. 오전은 뉴욕 컬럼비아대 사범대학 교육철학과 데이비드 한센(David Hansen) 교수의 '세계시민과 창의성'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영국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의 의장인 폴 콜라드(Paul Collard)의 '창의성 구현, 이론에서 실제



- 1 '예술교육으로 창의교육의 변화를 이끌다'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 2 서울국제창의예술교육 심포지엄 연사들.

로'와 서울대 사범대학 문용린 교수의 '창의성 교육의 도전과 과제'가 주제로 발표되었다.

이어 오후에는 캐나다 왕립음악학교 디렉터인 앤 패트슨의 'LTITA, 캐나다의 삶과 지역을 바꾸는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싱가포르 국립예술원 예술과 지역 부서 총괄 디렉터 아이리아 추아의 '싱가포르, 지역과 학교변화를 위한 예술교육의 지원'의 두 사례가 소개되었다. 이어 서울문화재단 안호상 대표의 '예술교육과 서울의 변화', 링컨센터 TA 테이시아 워싱턴의 '미국 뉴욕의 LCI & HSAM, 상상력 고등학교', 마지막으로 사다리 연극놀이 아카데미 김선 교장의 '예술교육을 통한 사회적 관계 맺기'가 발표되었다.

거시적 담론과 세계적 추세나 양상보다는 이론과 현장, 정책과 실행의 구체적인 방안에만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관계자들의 지적 요구와 관심을 반영한 심포지엄 기획은 초기 등록 마감으로 많은 이의 기대와 호응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폴 콜라드는 "학문적 진지함만큼이나 청중과의 정서적 연결을 느낄 수 있었다"며 심포지엄의 분위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많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구자, 예술강사, 학교 교사를 비롯해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담당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 광역센터의 담당자, 거점 운영자들 외에도 문화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다.

발제 내용을 비롯해 참석자와 발제자 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가 도출된 점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논의된 내용은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창의인성교육의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의 결합과 사회적 도덕성과의 연계, 창의성교육에서의 교사의 역할, 창의성과 독창성의 개념 정리, 목표와 방법으로서의 미학교육 등이었다. 예술과 철학의 관계, 프로젝트 프로그램 운영의 시간적 제약의 해결방법, 창의교육의 생태계 조성, 주제적 접근 학교교육 실행의 어려움, 21세기의 아시아적 콘텐츠 개발과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진지하고 진솔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문화예술교육이 급속히 확

발견한 것을 공유하라

데이비드 한센, 뉴욕 콜럼비아대 사범대학 교육철학과 교수

한국에 처음 방문했다고 들었는데 한국 청중에 대한 인상과 오늘 강연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한국 학생들과 학교에서 만나 그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나 이번 기회는 그들을 새롭게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이 듣게 된 다양한 한국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는 기회를 얻어 기쁩니다. 오늘 강의가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제시했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더 많이 공부하여 더 많은 질문과 고민의 단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수님의 철학적 논의의 주제인 '코스모폴로타니즘'(Cosmopolitanism)은 서구에서 1980년대 이후 (오늘날 국내에서) 고민하는 다문화주의의 발전된 논의인 것 같은데 그 연계성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다문화와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다문화는 정체성의 문제(존재감과 존재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이지만 제가 제안하는 '코스모폴로타니즘'은 미래 지향적 접근으로 교육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근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발제 내용이 압축적이고 함축적이었습니다. 발제 내용 중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제안한 코스모폴로타니즘의 핵심은 성찰적 개방(reflective openness)입니다. 사람, 사물, 사건, 환경 등 모든 것에 대한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과 성찰적 사고가 핵심입니다. 이는 말만큼 쉬운 것은 아니나 예술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례로 언급한 플라멩코 음악과 같은 일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나요? 의미 있는 수업의 사례 발견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귀하다 하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귀한 사례 뒤에는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과 두려움 없는 시행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귀하기에 이를 발굴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고 발견한 것을 연구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공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례와 접하게 되고 또 다른 연구와 연계되고... 이런 연속된 과정에서 교육과 사회의 결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게 됩니다. 많은 사례 속에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론적 연구와 교사의 실천의 결합입니다.





1

대되는 가운데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서로 다른 고민과 우려를 갖고 있는 250여 명의 청중이 한곳에 모여 창의성을 포함한 문화예술교육의 핵심 구성요소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서울국제 예술교육 워크숍〉 의미 있는 학습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2009년 뉴욕의 링컨센터 인스티튜트(LCI)와 MOU를 체결한 서울문화재단은 링컨센터와 5년간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공동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예술교육 현장 인력을 위한 국제워크숍을 마련했다. 2011년은 학교교사와 예술강사 TA를 대상으로 한 입문과정(8월 15일~19일)과 전문 TA를 위한 심화과정(8월 22일~24일)의 두 과정을 제공했다.

이중 학교교사와 TA를 위한 입문과정이 8월 15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링컨센터의 진 테일러(연극), 마크 엘마이(음악), 바바라 앨만(시각예술), 살라 사리캥가스(무용), 데이시아 워싱턴(연극), 테네시 웨버(사진) 등 6명의 TA가 서울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비가 오는 광복절 오전, 교육현장의 변화와 의미 있는 실천을 위해 참여자(입문 과정에 참여하는 학교교사와 TA) 80여 명이 남산 예술센터에 모였다. 안호상 대표의 환영 인사로 시작된 이날 행사에서 안 대표는 서울 시민 모두가 예술에 참여하는 날을 기대하며 문화예술교육의 제도화와 정책적 안착을 위한 서울문화재단의

목표와 추구 가치를 소개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과 LCI 교육의 근간인 미학가 맥신 그린의 미학교육 개념인 'Arts being unexhausted resource for education'(무한한 교육 자원을 제공하는 예술)의 힘을 기반으로 한 예술창작, 맥락적 정보, 질문, 성찰을 통한 상상력 교육에 대한 개념과 학습안 개발 및 실행에 대한 진 테일러(링컨센터 워크숍의 총괄자)의 설명으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교사와 TA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교사 그룹은 학교 교사(담임, 과목)와 교감, 서울문화재단의 인력이 함께 참여했다. 학교 현장의 예술강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교감과 연구 교사의 참여 의도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TA팀은 시각영역과 무용, 연극놀이 등 다양한 장르의 전공자들로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방법론 학습을 위해 참여한 이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이자 화두인 'Aware participation in works of art'(예술작품에 대한 의식적 참여)의 씨앗을 개인의 기록장(journal)에 붙이는 것으로 5일간의 수업이 시작되었다. '의식적 참여'를 주제로 서로 다른 매체와 장르, 방법을 적용한 워크숍이 시작되었다. 1차적 체험을 시작으로 한 워크숍



2



3

1·2·3 서울국제예술교육 워크숍 현장. 연극, 무용, 음악, 시각예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의 구성은 의식적 발견과 질문의 순차적 과정으로 참여자의 인식과 태도를 변화를 “What you do notice teaching and learning?”(teaching과 learning에 대해 새롭게 느끼고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의 답으로 확인하게 해주기도 했다. 또한 제시된 맥신 그린의 인용문을 명상하고 이를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접목되었다. 이는 학습된 교육의 접근 및 방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체화하는 과정으로 설명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국내 작가(전시)와 기획자(무용)의 작품을 활용하여 학습된 이론을 현장에 접목하는 방법과 제공된 예술작품을 교육적 주제로 해석하고 학습과 연계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현장의 실천가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의 도구와 방법을 설계하는 틀을 제공했다. 또한 워크숍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시도에 대한 설렘과 익숙하지 않은 활동에 도전하고 실험하며 협업하고 공유하는 학습의 기회가 되었다.

글_백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 연구소 연구위원, 예술학과 교육학을 전공했다.

관점을 바꿔야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진 테일러, 뉴욕 링컨 센터 T A

두 번째 서울 방문입니다. 첫 방문과의 차이점과 이번 워크숍 참여자의 인상은 어땠나요? 아무래도 두 번째 방문이라 첫 방문보다는 서로에게 많이 익숙해졌고 서로의 입장과 기대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습니다. 반갑고 기대했던 방문입니다. 교사 집단이라 하여 조금 긴장했으나 의외로 참여도와 감수성이 높은 그룹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참여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사는 어디서나 비슷할 것 같았는데, 서울의 변화와 새로운 움직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학교가 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학교는 하루아침에 바뀌거나 변화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하며 변화하고자 하는 한 명의 교사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어야 합니다. 셋은 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 작은 시작의 기운이 중요한데 오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변화가 어렵다 하여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방법에 대한 논의와 파트너십 구성이 중요합니다.

teaching과 learning에 대한 관심이 이 워크숍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오. 이는 teaching과 learning 혹은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위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새로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가 학생의 입장과 눈높이를 이해하면 이들을 위한 경험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첫걸음이지만 일주일 동안 많은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접근에 동기 부여된 이들이 지속적으로 역동성과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 우리 프로그램은 학생 입장에서 사흘, 교사 입장에서 이틀로 그 입장을 바꾸고 학습 자료서의 문제해결 방법을 교사할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습안 구성과 교수 방법에 대한 학습으로 이들이 현장에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하며 피드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청춘예술특강>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들에 의한

“복지관에 갔는데 ‘청춘예술특강’이라는 팸플릿이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여기저기 특강을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세대만을 위한 전문적인 예술특강은 거의 없거든요. 평소 예술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데 교육과 체험을 함께한다고 해서 그래 저기 한번 가보자 싶어 참여했습니다.”

8월 2일부터 9일까지 남산예술센터에서 열린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청춘예술특강>은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예술로 충전하기 위해 참가한 60세에서 80세 이상의 은발의 청춘들로 가득했다.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함께 운영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청춘예술특강>은 평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어르신들, 그리고 현재 교육받고 있는 예술 장르 외에 좀 더 다양한 예술 체험과 심화된 교육에 목말라 있는 어르신들의 열망을 담아 마련되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된 <청춘예술특강>은 신청 접수 초기에 대부분 마감될 정도로 호응이 대단했으며, 이를 통해 가슴 깊이 숨겨놓았던 끼와 열정을 펼칠 수 있었던 어르신들은 올여름 예술에 한층 더 가까워지고 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의 폭을 넓

힐 수 있었다.

<청춘예술특강>은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에서 활동 중인 예술전문단체가 진행하는 ‘예술체험 프로그램’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극배우 오현경의 연기에 대한 깊이와 열정을 만날 수 있는 ‘예술가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예술체험 프로그램’은 손자손녀에게 그림책 읽어주기의 중요성과 좋은 그림책 선별 방법,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는 방법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책을 읽어주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큰 책 보파리 이야기>(성공독서코칭센터), 전통 연희 공연과 함께 우리네 연희극의 재담과 움직임, 노래를 배워보는 <광대들의 배꼽 빠지는 우리 소리 한바탕>(연희집단 The 광대), 서로 다른 인생 속에서 이끌어낸 추억 이야기를 연극으로 창작해보는 <내 인생의 무대 속으로>(극단 북새통)가 진행되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큰 책 보파리 이야기>는 교육 후

5~10세 아이들을 직접 참여시켜 동화책 읽어주기 실습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동화 속 인물이 되어 다양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동화책을 읽어주자 아이들은 웃음꽃을 터뜨리기도 하고 무서워하는 표정을 짓기도 하는 등 동화 속 이야기 세계에 빠져들었다. <광대들의 배꼽 빠지는 우리 소리 한바탕>은 전통 연희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평소 사물놀이, 판소리 등만 접하다 탈춤극 등 다소 생소한 우리네 전통 연희극을 접한 어르신들은 그 안에 담긴 예술성과 노랫말, 재담에 흐르는 선조들의 희로애락에 울고 웃으며 나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내 인생의 무대 속으로>에서는 그리운 가족, 친구, 고향 등을 떠올리며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를 하며 간단하지만 스스로 창작극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나의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척 어색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도 풀어지고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 것에 큰 에너지를 받고 갑니다. 예술로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건가 봅니다.”

8월 9일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는 실버 배우 지망생들을 위해 노장배우 오현경의 ‘예술가 특강’ 및 ‘연기지도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연기에 대한 깊이와 열정을 만날 수 있는 ‘예술가 특강’ <명(名)배우, 명(名)무대 이야기>에서 어르신들은 노장배우의 삶과 무대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에 2시간이 넘게 진행된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뜨는 사람 하나 없이 뜨거운 학구열을 보였다.

오후에 진행된 <연기지도 워크숍>은 오랜 시간 연기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의 연기 시연과 연기 지도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어르신들이 짧게나마 준비한 공연이 시작되자 마치 전문 배우 못지않은 열연을 보인 몇몇 어르신에게 관객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으며, 아직은 다소 부족한 모습이지만 마지막 대사 한 줄까지 몰입하는 모습에 격려의 박수가 쏟아지기도 했다. 한 팀이 끝날 때마다 배우 오현경의 섬세한 연기 지도가 이어졌다.

“두말할 것 없이 연기의 기본은 화술과 몸짓입니다. 데생수업 없이 추상화를 그릴 수 없고, 화성법 모르고 작곡을 할 수 없듯이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는 연기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공연 한 장면 한 장면을 다시 되짚으며 무대에 오르면 흥이 나는 기(技)로, 슬픔이 터지는 기(技)로 내가 아닌 관객을 쥐락펴락 웃고 울리는 몸짓과 화술. 직접 연기를 선보이는 노장배우의 모습에 많은 어르신들이 연극과 무대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으며 배우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었다.

<청춘예술특강>은 단순히 어르신들의 여가 시간만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직접 예술가와 만나 교류하는 과정에서 예술에 대한 이해를 얻고 스스로의 생각을 표현하며 아름다운 성취감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은 어르신들을 위해 질적, 양적으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며 예술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한 많은 어르신들의 예술을 향한 거침없는 행보를 꿈꾸어본다.

글_ 이유나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서 ‘꿈꾸는 청춘예술대학’ 사업을 담당한다. 어르신들의 소박하지만 놀라운 예술활동을 보며 더 많은 지원방법을 찾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사진_ 최성열 한여름의 청량한 사이다 한 잔 같은 사진 한 장을 찍고 싶은 사진가자.



멀어져 가는 내 꿈을 잡으러

송영희, <청춘예술특강 연기지도 워크숍> 참가자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에서 연극을 배우고 있는 나에게 친구가 가져온 팸플릿에는 반가운 소식이 담겨 있었다. 연극계의 노장배우 오현경 선생님이 함께하는 <청춘예술특강 연기지도 워크숍>! 연극 한 장면을 준비해 오라는 담당자의 말에 맹연습에 들어갔고 드디어 8월 9일, 아침 일찍 무대 의상을 챙겨 남산예술센터로 달려갔다. 공연장에 모인 실버들은 마치 학창시절로 돌아가 학생이 된 것처럼 연필과 노트를 손에 꼭 쥐 채 두 눈을 반짝 반짝 빛내고 있었다.

워크숍은 실버들의 연기 시연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오디션을 받는 것처럼 떨렸는데, 한 장면 한 장면 선생님의 꼼꼼한 지도에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풀려졌다. 손수 연기 시범을 보이는 전문 배우의 움직임과 대사는 무대를 압도했다. 배우는 발음이 중요하며 자국어 말하기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연극은 앙상블로, 다른 배우와 함께 톤을 맞추고 감정을 교류해야 완성된다는 가르침은 연극무대를 넘어 어른세대로서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이었다. “아마추어 배우라도 단 한 명의 관객을 위해서 그 역할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방법은 오로지 연습과 노력 뿐”이라는 선생님의 한마디를 통해 연극에 대한 열정이 더욱 커졌고, 배우를 바라보는 시각과 연극을 접하는 자세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이번 ‘청춘예술특강 연기지도 워크숍’을 통해 우리 같은 평범한 실버들에게 따뜻한 인품과 열정으로 다가와준 연극배우 오현경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열정적으로 교육에 임한 모든 실버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런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서울문화재단 또한 고맙다. 앞으로도 실버들을 위해 좀 더 심화되고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마련해주었으면 하는 욕심을 내본다. 오늘 나는 <청춘예술특강>을 통해 숫자로서의 나이를 과감히 버리고 연극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기대하며 유쾌한 마음으로 극장을 나선다.



1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달과 그림자>

그림자 광대들과 떠나는 시간여행

서울역 뒤편, 새빨간 벽돌이 시선을 사로잡는 백성희장민호 극장 앞마당에 30명 남짓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모여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체험형 통합예술교육 프로그램,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 <달과 그림자>를 보러 온 것이다. 올해로 네 번째 진행되는 이번 공연이 보다 특별한 이유는 서울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문을 연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 연구소’와 손을 잡고, 보다 예술성 높은 체험 공연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오늘 어린이들이 참여할 공연 <달과 그림자>는 초등 교과와 ‘낮과 밤’, ‘빛과 그림자’ 단원의 내용을 소재로 열 명의 서울문화재단 어린이 창의예술교육사업 TA들과 20년 이상 어린이극을 연출한 국립어린이청소년극 연구소의 연출자(유홍영)가 전문 극작가(김미정), 교육감독(양혜정) 등과 함께 만든 작품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된다.

공연장 앞에 모인 어린이들이 입을 모아 “그림자 친구들, 나와라!!”라고 외치니,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 광대들이 모습을 보인다. 오늘 공연을 체험하러 온 어린이들은 서울문화재단의 방과후 돌봄교실 창의예술교육 지원을 받는 어린이들인데, 수업에서 만나는 연극 선생님이 의상을 갖춰 입고 조금은 낯선 모습으로 맞이하니 반

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모양이다. 그림자 광대들은 말없이 아이들의 그림자를 만지고, 유심히 바라본다. 그것을 본 아이들이 “여기도 그림자 있는데!”라고 말을 걸기도 하고, 그림자 광대들의 그림자에 장난을 걸어보기도 한다. 그림자 광대들은 아이들을 밤의 세계로 초대한다며 공연장으로 안내한다.

공연은 두 명의 달음악가들이 선사하는 라이브 연주와 함께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바로 앞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코앞에서 펼쳐지는 그림자 광대들의 아크로바틱한 몸짓에 탄성을 지르며 정신없이 바라본다. 그림자 광대들은 아이들에게 밤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수수께끼를 낸다. 아이들이 수수께끼를 하나하나 맞힐 때마다 그림자 광대들은 삼삼오오 모여 몸으로 그것들을 표현한다. 아이들은 그림자 광대들의 움직임이 마냥 신기한가보다. 끊임없이 반응



을 보인다. 밤의 세계의 관문을 통과한 아이들은 모두 무대로 나가 그림자 광대들과 함께 ‘그림자 뒤에 숨기 놀이’와 그림자 광대들의 움직임을 따라 하는 ‘그림자 되기 놀이’를 한다. 무대에 나간 아이들의 발이 바닥에 닿을 새가 없다. 그림자 광대들이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아이들의 몸은 즐거워서 툭툭 땀이 땀을 흘린다.

무대의 시간은 낮에서 밤으로 점차 변한다. 오후가 되자 무거운 가방을 멘 아이가 지친 모습으로 걸어간다. 세 명의 그림자 광대들이 몸으로 그려내는 아이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길어지기도 하고, 빙그르르 돌기도 하는데 이미지와 음악이 객석의 차분한 집중을 끌어낸다. 그림자 광대들이 내는 밤의 소리와 함께 무대는 더욱 어두워진다. 지팡이를 짚고 등장하는 할머니 주변으로 그림자 광대들이 다가와 놀이를 한다. 그림자들은 할머니에게 리본을 달아주고 예쁜 신발을 신겨주며 점차 소녀로 변화시킨다. 소녀는 무대 뒤편 대형 스크린 뒤로 걸어가고 신비한 이미지들이 커다란 영상막에 펼쳐진다.

::: 천장에서 별과 은하수가 반짝반짝

그림자 광대들이 소녀를 쫓아 그림자 세계로 가보자고 제안하고 어린이들은 다시 무대로 나간다. 양 팀으로 나누어 선 아이들 사이로 커다란 막이 가로지른다. 그 간막에 그림자 광대들이 손전등을 비추고 동그란 빛 안에 이 편의 아이들이 그림자를 만든다. 막 저편의 아이들은 친구들이 서로 만들어주는 그림자를 보고 즐거워한다. 다음에는 조명을 막에 비추고 아이들은 넓어진 공간에서 온몸으로 그림자를 만들어 보여준다. 아이들은 스스로 그림자 광대가 되어 마음껏 표현한다. 무대는 40명의 그림자 광대가 신나게 만들어내는 이미지들로 북적거린다.

간막이 걷히고 커다란 영상막에 다시 소녀가 나타나 다섯 개의 달 조각을 무대를 향해 던지니 다섯 명의 그림자 광대들이 그것을 받고 아이들을 예닐곱 명씩 모듬으로 나누어 데리고 간다. 무대 곳곳에 작은 극장이 생겨나고 각기 다른 다섯 가지 달이야기가 진행된다.

아이들은 이야기 초반에는 다른 모듬이 궁금하여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자신들의 모듬 이야기에 집중했다. 다섯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동그랗게 둘러선다. 무대 중앙의 커다란 천을 마임으로 들어 올리자 무대 천장에서 원형 틀이 내려온다. 그림자 광대들이 천을 그곳에 묶고 아이들의 입김과 함께 위로 보낸다. 무대 천장에 동그란 하늘이 생겼다. 무대에 큰 천이 하나 더 남아 있다. 아이들은 모두 그것을 들고 함께 바람을 일으키며 놀다가 그 안에 들어가 앉았다. 무대에는 하얀 돔 모양의 텐트가 생겼고 그 속에 들어간 아이들은 바깥에서 천에 비치는 색색의 그림자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이번엔 모두 함께 천을 덮고 동그랗게 누웠다. 천장에 걸린 하늘천에서 별과 은하수가 반짝반짝 빛난다. 달음약가의 연주가 흐르는 가운데 편안히 누워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시계 소리가 들리고 모두 일어나 앉는다. 아이들 사이사이에 앉은 그림자 광대들이 밤의 여행이 끝났음을 알린다. 그림자 광대들은 ‘새벽, 아침, 한낮, 오후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어떻게 시치미를 떼고 있는지 찾아보라’며 아이들에게 소녀가 쫓아갔던 나비를 나누어준다. 무대 우측의



1·2·3 서울문화재단과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 연구소는 〈달과 그림자〉로 보다 예술성 높은 체험 공연을 시도했다.

벽이 열리고 환한 빛과 함께 극장의 앞마당이 보인다. 아이들은 그림자 광대들과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간다. 마당의 잔디 위로 아이들의 손가락에 꽂힌 노란 나비들이 팔랑팔랑 날갯짓을 한다. 한낮이라 짙어진 아이들의 그림자가 잔디밭에서 춤을 춘다.

이제 아이들은 그림자를 보며 오늘 만난 그림자 광대, 함께한 놀이, 공연의 이미지들을 떠올릴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싼 일상과 교과서의 내용이 예술이 되고, 예술을 경험한 후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꿈을 키울 때 아이들의 아름다운 성장이 시작될 것이다. 소수의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 때문에 일반 극단에서 도전하기 어려운 이런 참여 형태의 공연이 재단의 지원이나 주축로 확대되길 바라며, 보다 많은 어린이에게 생각하는 호기심 예술학교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길 희망한다.

나는 믿는다,
예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영국 문화예술교육기관 CCE(Creative, Culture and Education) 대표

조금씩



“예술은 사회 전체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영국 문화예술교육기관 CCE(Creative, Culture and Education)의 폴 콜라드(Paul Collard) 대표는 부드러운 표정과 친절한 태도가 인상적인 전형적인 영국 신사다. 하지만 문화예술과 교육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열정적인 전문가이기도 하다.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사업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감자꽃스튜디오의 이선철 대표가 그와 함께 영국과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이 첫 방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한 정보가 있으셨나요. 가고 싶은 곳이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CCE가 지난 5~6년 동안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 이하 CP)을 통해 이루어온 여러 성과에 대해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창의성과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교육과정평가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저희를 방문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저 역시 한국에 방문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몇몇 분을 이미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어땠나요.

한국에서는 제가 영국에 있을 때와 상당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만난 한국인들에 대한 인상은 조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쪽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와서 사람들을 봤을 때는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개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좋아하게 됐습니다.

CCE와 CCE의 미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CCE는 영국 전역에 걸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및 창의성 프로그램을 생성하여 그들의 포부, 성취, 기량 및 삶의 기회를 고도화하기 위해 창설된 국제적 비정부 비영리 기관입니다. 우리는 현재 영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점차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확장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의 주요 목적은 예술과 문화를 이용하여 젊은 이들의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유사 기관들 중 특별히 CCE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 CCE 프로그램의 특성과 성과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매우 큰 규모의 CP를 통해 우리는 매년 2,500개의 학교와 천 명 이상의 학생을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와 평가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정들을 상당히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는 우리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지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실험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만의 방법론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

론을 통해 사람들은 예술과 교육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국가 구성원들의 공동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협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최근 리투아니아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최근까지 소련 연방 국가 중 하나였으며, 연방이 해체되고 독립한 현재도 여전히 상당 부분 중앙집권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먼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리투아니아가 우리 프로그램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학교에서 한 번도 일해본 적 없는 리투아니아의 예술가들이 어떻게 학교에서 행동하는지 실험해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술가들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을 활용해 문제에 제도를 걸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가르치는 방법론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 자체를 보며 그것을 해결하려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지식을 학습한 사람들이 학교에 갔을 때는 자신만의 방법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옳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육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나 나쁜 방향으로 학습을 하지 않은 예술가들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문제 자체에 집중하기

영국 내에서는 어떻게습니까.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서 예술과 교육은 이미 15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축적된 선지식이 많기 때문에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2~3년에 한 번씩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하려 합니다. 이 때문에 저희는 학교나 지역사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의 독특한 방법론 중 하나는 예술가들에게 요구 중심의 접근을 하라고 훈련하는 것인데요. 요구 중심의 접근이란 학교에 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진 문제에 중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예술가가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결책을 고집하는 경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형화된 프로그램이나 이미 만들어진 해결책을 공급하는 것이 항상 옳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문제점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예술가들이 공동작업을 하다 보면 지역차이나 시간차이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갈등은 좋은 것입니다. 갈등 없이는 어떤 발전도 이





를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의견은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가들은 학교에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갈등을 통해 발전합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예술가들을 학교로 보내는 것은 의도적으로 갈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갈등을 통해서만이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많아서 갈등이 발전을 만든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CCE는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발전으로 이끌어내나요.

저희는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ADO(Area Delivery Organization)라는 조직이 전국적으로 24개가 있습니다. 이 조직들을 통해 학교에서 자신들의 문제점, 요구사항을 적은 지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원서가 접수되면 우리는 ADO를 통해 CA(Creative Agent, 이하 CA)를 파견합니다. CA는 우리의 독특한 방법론을 통해 훈련된 사람들로써, 전문예술가들을 학교에 참여시키는 일을 합니다.

독특한 방법론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저희는 그들에게 변화관리(change management)에 대해 학습을 시킵니다. 이것은 예술가들을 교육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들이 예술을 통해 학교를 변화시키도록 돕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학교가 자신들의 고유한 문제에 대해 지원서를 내면 우리는 CA를 파견해 이것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변화시킬지에 대해 방법을 찾습니다. 이들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술가들을 찾고, 예술가와 선생님, 학생이 파트너십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갈등상황을 무조건 없애려고 하기보다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생물 분야에 약하다는 지원서가 들어오면 CA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끌어내는데, 그 학생이 유전자에 관한 연극공연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연극배우나 공연 관계자들을 찾아서 연결해줍니다. 철저히 학생 중심적인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들 역시 필수적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들과 예술가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나쁜 갈등이 일어나면 ADO가 직접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정부 측에서 빠른 시간 내에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합니까.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게이트헤드란 곳에 <북쪽의 천사>라는 조형물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조형물을 세우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걸 정도였습니다. 언론도 많이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이후 이 조형물은 '도시를 살린 조형물'이 됐습니다. 낙후되어 있던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 게이트헤드가 이 초대형 미술품으로 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도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형물은 변화와 희망의 상징입니다. 언론과 의원들이 비난했지만 일반사람들은 그 조각품이 가진 변화의 희망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갈등과 논쟁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논쟁적이지 않았다면 시민들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갈등과 논쟁을 통해 시민의 관심을 얻고 공공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CA는 예술가들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CA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술가들일 수도 있고, 예술가들이 자신을 소개하는 전람회에 가서 직접 선발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인터넷이나 지역사회에 공고를 내서 모집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선발기준은 CA가 스스로 예술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 문제 해결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 어린 학생들과 잘 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린 학생들에게 예술가를 직접 선택하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예술가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시스템적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예술가들이 예술가로 남아 있기보다는 학교 강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예술가가 학교 강사가 되는 것을 지양합니다. 예술가는 예술가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술가들이 교사들로 하여금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도록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 선생님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과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생님 역시 항상 이 부분에 참여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교사가 만약에 교실 밖으로 나가면 모든 프로그램은 중지됩니다. 동시에 예술가가 예술가로 남아 있는 것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급여를 많이 제공합니다. 하루 4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예술가로서 자유로우면서도 충분히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에 굳이 교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술 행정가에서 예술 교육가로

개인적으로 예술계에서 문화예술교육계로 옮겨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재생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도 있는데 이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1980년대는 영국 정부가 도시재생(regeneration)에 관심이 컸던 때입니다. 전반적인 경제상황도 좋지 않았고 특히 고용은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예술이 도시재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 보고서를 좋아하지 않았죠. 이후 1993년에 뉴캐슬로 옮겨가서야 제 아이디어를 시행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당시 뉴캐슬은 지역산업의 침체로 인해 실업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는 창의성과 예술을 도시 재활성화의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2001년, 뉴캐슬의 게이크헤드는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시 10곳 중 하나로 뽑혔습니다. 1993년의 상황에서 본다면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결과죠. 이후에는 또 뉴욕 외곽의 뉴헤이븐에서 도시의 경제 재활성화를 목표로 한 축제를 기획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축제를 통해 4년 만에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놓게 되었지요.

정부나 지역사회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조금씩 성과를 입증하도록 강요받는 경우도 있을 듯합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거나 설득합니까? 특히 즉각적인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기도 할 텐데요.

중요한 것은 당장의 효과보다 지속적인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게이크헤드에 <북쪽의 천사상>라는 조형물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이 조형물이 세워지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을 내걸 정도였습니다. 언론도 많은 비난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완공 이후 이 조형물은 '도시를 살린 조형물'이 됐습니다. 낙후되어 있던 인구 20만 명의 소도시 게이크헤드가 이 초대형 미술품으로 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몰리고 도시가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 조형물을 지역사회의 변화와 희망에 대한 상징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광 분야 활성화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영국에서도 역시 처음에는 그런 측면의 갈등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갈등과 논쟁은 좋은 것입니다. 논쟁적이지 않았다면 시민들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갈등과 논쟁을 통해 시민의 관심을 얻고 공공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
한국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창의성과 인성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책임감 없는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거치면서 알게 된 점은 실제로 그 이득이 그 지역의 저소득층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프로젝트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가 유입이 되지, 반드시 그 지역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고용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즉 예술을 통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좀 더 그 지역, 특히 저소득층에게까지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면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 프로젝트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도 창작공간 조성사업 같은 도시재생 프로젝트나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언해줄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가 교육의 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50~60년대에는 영국에서도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투자를 해도 사회가 변화되지 않자 저소득층에서는 교육



적 효과에 대해 비판적이 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그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한국사람이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좋겠지만, 경제적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도 20년 안에 교육적 효과를 믿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 상당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점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창의성과 인성적인 면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책임감 없는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창의성과 인성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닮는다고 한다. CCE의 폴 콜라드 대표와 감자꽃스튜디오의 이선철 대표가 그랬다. 영국 출신의 폴 콜라드와 영국에서 공부한 이선철은 둘 다 일반 예술경영 분야에서 경력을 쌓다 어떠한 계기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참여하게 됐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축제기획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폐교에서 살고 있다는 점까지 똑같다. 그들은 문화예술교육이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발전시키려는 꿈을 꾸고 있다. 인터뷰가 끝난 후에도 영국과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꿈이 바뀌나갈 미래가 얼마나 다양한 색채로 빛날지 기대된다.



이해할 수 없다면

검객괴담 <도화만발>의 주연배우 박해수

감각에 집중!



©김병구

‘우리 시대 최고의 도발적 이야기꾼’으로 불리는 연출가 조광화가 창작 연극 한 편을 들고 등장했다. 한동안 뮤지컬에 집중했던 그가 들고 온 작품은 검객괴담 〈도화만발〉이다. 오는 9월 6일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르는 〈도화만발〉은 미래지향적인 공연을 실험하는 남산예술센터가 하반기 시즌 프로그램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작품이다. 남산예술센터는 그동안 〈오늘 손님 오신다〉 〈운현궁 오라버니〉 〈당신의 잠, 우릴 봤을까〉 〈내 심장을 쏘라〉 〈살〉 등 참신한 작품들을 선보인 바 있다.

조광화 연출은 전후의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사카구치 안고(坂口安吾)의 1947년 단편소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에서 〈도화만발〉의 모티프를 가져왔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는 절대고독을 표현해 일본 문학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영화로도 제작됐다. 사카구치 안고는 2001년 상영된 이마무라 쇼헤이(今村昌平) 감독의 영화 〈간장선생(肝臟先生)〉의 원작자로 소개하면 그 이름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 듯하다.

〈도화만발〉이란 극 제목 앞에는 ‘검객괴담’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활짝 핀 복숭아나무 숲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검객과 관련된 어떤 기이한 이야기인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다. 이 때문에 〈도화만발〉은 조광화 연출에게 강렬한 이미지를 선사했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 도입부를 이해하면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사카구치 안고는 벚꽃이 주는 대중적인 관념을 부정하며 새로운 미학을 창조했다.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

에서〉는 이렇게 시작한다.

“벚꽃이 피면 사람들은 손에 술병을 들고 경단을 먹으면서 꽃그늘 아래를 거닐며 절경이라는 둥 봄이 무르익었다는 둥 감탄을 연발합니다. 모두들 들떠 있고 흥에 겨운 듯 보입니다만 실은 이진 거짓입니다. 벚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 술 마시고 취해서 토하고 싸우는 일은 에도시대부터 시작되어 이어 내려왔고, 아주 옛날에는 벚꽃 아래를 무섭다고 생각했지 절경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년에는 벚꽃 아래라고 하면, 모여 술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들고 싸워대는 웬지 떠들썩한 장면을 생각합니다만, 벚꽃 아래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지워버리면 무서운 풍경이 돼버립니다.”

사카구치 안고에 의해 무서운 곳으로 변한 벚꽃 숲, 그 기묘한 정서는 연출가 조광화에게도 그대로 투영됐다.

“한 10여 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온 일본 극단이 공연한 〈활짝 핀 벚꽃나무 아래에서〉를 봤습니다. 극 처음부터 벚꽃 잎이 흩날리며 무대에 수북이 쌓이는, 지극히 일본적인 미학의 작품이었죠. 대사는 절제돼 있고 이미지가 강렬했습니다.”

이후 조광화 연출은 그 강렬한 벚꽃의 이미지만 차용하고 새롭게 자신의 세계를 그리기 시작했다. “원작에 무협 요소를 가미하고, 벚꽃과 비슷한 느낌이 나는 복숭아꽃으로 바꿨죠. 복숭아꽃은 흔히 무릉도원을 연상시킵니다. 영원한 시간, 시간을 초월한 곳 등 복합적인 이미지를 떠올

©김병구



©김병구

렸습니다.”

조광화 연출은 사카구치 안고의 원작에 프랑켄슈타인과 드라큘라의 모티프를 더했다. 그렇게 원작보다 흥미롭고 사뭇 다른 검객괴담 〈도화만발〉을 탄생시켰다. 그때가 2003년이니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조광화 연출은 “원작에서도 그랬지만 스토리보다는 감각에 치중해야 하는 작품”이라며 극의 관전 포인트를 귀띔했다. “유머, 감각, 여백, 음악 등이 극 스토리와 함께 갑니다. 관객들은 스스로 비슷한 정서가 맞닿는 지점에서 허망한 외로움을 가져가면 되는 것이죠.” 그는 “난해한 극이지만, 감각과 이미지에 몰입하면 지극히 당연한 극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조광화 연출은 이해와 감각의 차이를 “한 곳 차”라고 표현했다.

바위처럼 묵직한 그 무엇?

사카구치 안고의 원작이 그랬듯이 〈도화만발〉의 스토리는 논리적인 연결성을 찾기 어렵다. 극은 복숭아나무 숲 속에서 중국 진시황 때의 의원이 영생불멸의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한 실험을 벌이는 데서 출발한다.

극 중 〈도화만발〉이라는 책을 읽어주는 내레이터로서 소녀가 등장해 이야기를 끌어간다.

이야기 속에서 의원의 실험은 실패하고, 그 결과는 동남동녀(童男童女) 3,000명의 죽음이다. 수행검객 케이도 죽게 되지만, 곧 영생불사의 존재로 새롭게 탄생한다. 마치 프랑켄슈타인 박사에 의해 뜻하지 않은 괴물이 창조된 것처럼.

이후 극은 검객 케이를 중심으로 여러 장면을 거친다. 그 분절적인 이야기 흐름 속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다. 숲에서 산적질을 하다 단이를 본 케이는 한눈에 단이에게 매료되고, 단이를 산으로 데려가 아내로 삼는다. 케이는 사람 머리를 베어 오라는 단이의 말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간다. 그런 생활에 지친 어느 날 복숭아나무 숲이 그리워진 케이는 단이를 설득해 숲으로 돌아간다. 복숭아꽃 만발한 숲에 들어서자 단이는 마귀처럼 변해 케이를 죽이려 하지만, 단이는 케이에 의해 목이 졸려 죽게 된다. 결국 복숭아꽃 만발한 숲 속에 케이 혼자 남는다는 이야기 흐름이다.

〈도화만발〉의 스토리는 케이의 기억 속에서 몽환적으로 흘러간다. 진시황이 살던 기원전 220년 무렵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공을 초월한다. 극 장면 장면이 분절적이어서 긴밀한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 다만 벚꽃이나 복숭아꽃이나에 상관없이 활짝 핀 꽃은 너무도 아름다워 두렵고 소름 끼친다. 사카구치 안고의 원작처럼 〈도화만발〉에도 절대고독의 기류가 흐른다.

그래서일까. 〈도화만발〉에서 ‘절대고독’의 화신인 주인공 케이는 영아티스트 박해수에게는 버거운 배역처럼 보인다.

“고독감이나 외로움 말이죠. 사실 제가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죠. 제 귀여운 면도 많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외모에 기른 수염이 제법 굵어졌다. 몽롱하면서도 때로는 깊고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인 박해수. 그는 케이 역할을 맡은 각오를 이같이 표현했다.

자신을 “까불까불하고 너무 가벼운 존재”라고 주저 없이 말하는 박해수에게 케이는 이질적인 캐릭터다. 그가 맡은 케이는 상대할 적이 없는 최고의 검객이자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다. 말을 극도로 아끼는 무덤덤한 성격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역설적이게도 박해수는 이 배역을 즐기는 방법을 아는 듯하다.

“저는 까불까불하고 농담도 많이 하는데, 케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멋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없는 면이 있어서죠. 남자라면 뭔가 묵직함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바위처럼 묵직한 그 무엇 말이죠.”

조광화 연출이 그를 주연배우로 낙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외로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면 지겨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은근한 유머인데, 그 은근한 유머를 조절하고 호응하는 연기를 잘할 줄 아는 배우가 박해수죠.” 조광화 연출은 “평범하지만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배우, 동지 같은 배우라서 케이 역할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고 했다.

“그동안 몸짓 연기, 시선 처리와 같은 신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만 힘들었는데, 이제는 감각에 집중하는 연기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이 멀지만요.”

배역을 즐기는 법

자신과는 사뭇 다른 캐릭터에 도전하는 박해수는 요즘 케이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첫 대본을 받은 게 1년 전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배역이 정해진 것은 아니었죠. 케이에 대한 첫인상은 그냥 ‘깨끗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잔인무도한 면이 없지 않지만, 바보가 아닌 깨끗함, 세상에 물들지 않은 깨끗함이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매력만큼 케이의 정서가와 닿지 않아 고민이다. 케이의 머릿속에 수없이 그려보지만 아직 괴리가 큰 모양이다. “영생불사의 존재인 케이가 2,200년 이상의 기나긴 세월을 살아가며 느끼는 고독감, 외로움은 사실 제가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죠. 오랜 세월 말없이 세상을 사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묵언 수행하는 스님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말 안 하고 듣고만 사는 매력도 있겠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케이의 그려봅니다.”

박해수는 외로움을 애써 체험해본 적이 있다. 도보여행을 통해서다. 2009년 어느 날 동해에서 영덕까지 10일 정도 도보여행을 떠났다. 여정에 관한 작품을 앞둔 때였다. 실제 도보여행을 하면서 어디론가 길을 떠나는 이미지를 머리와 가슴속에 각인시키려 했다.

“이번 작품 잘해볼 생각에 도보여행 꼭 가려고 했는데, 폭우 때문에 가지 못했네요. 케이처럼 뭔가 영원히 길을 계속 가는 것을 느껴보려고 했는데, 좀 아쉽죠.”

대사보다는 몸짓 연기가 많은 케이의 그에게 또 하나의 부담이다.

“말로 표현하면 되는 것을 몸을 많이 써야 해서 좀 어렵습니다. 연습 초반에는 그게 안 되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마음 같은 느낌의 연기죠.”

그래서 그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며 케이의 그려보기도 하고 몸짓 연기에도 골몰한다. “그동안 몸짓 연기, 시선 처리와 같은 신체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몸만 힘들었는데, 이제는 감각에 집중하는 연기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이 멀지만요.”

〈도화만발〉의 압권으로 꼽히는 검술 장면도 그가 넘어야 할 산이다. 박해수는 중학교 다닐 때 합기도(3단)를 통해 봉술과 검술을 익혔다. 하

지만 검술 연기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처음에는 멋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촬영한 모습을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검 쓰는 동작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 중이죠.”

어려움투성이다. 하지만 머리가 아닌 감각에 집중해 몸짓으로 많이 풀어내야 하는 케이 연기는 배우 박해수에게는 성장통일 뿐이다.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단국대 연극영화과 출신으로 2007년 프로 연극 무대에 나온 그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폭넓은 배역과 연기를 경험했다. 평범하고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외모는 그에게는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다. 2008년 창작 뮤지컬 〈사춘기〉에서 시니컬한 18살의 고교생 연기를 훌륭하게 소화했다. 이듬해 영국 코미디 〈39계단〉에서는 불혹을 앞둔 남성으로 유머러스한 모습을 맘껏 뽐내기도 했다.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을 음악극으로 풀어낸 〈더 코러스-오이디푸스〉에서는 오이디푸스 왕을 맡았다. 뮤지컬 〈영웅〉에서는 외무대신으로 50대의 연기도 소화했다. 이번 〈도화만발〉에서 진시황 때부터 현대를 아우르는 세월 속의 케이의 나이로 치면 대략 2,200살쯤...

어려움이 있으면 수월함도 응당 존재하는 법. 콤플렉스로 생각하는 그의 졸린 듯 선한 눈빛은 케이 배역에 안성맞춤이다. “눈이 사실 콤플렉스였어요. 약간 졸린 눈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 의외로 제 눈이 매력적이라고 하더군요. 케이는 살기가 돌고 약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눈빛은 아니죠.”

이번 작품은 키 181cm, 몸무게 80kg 안팎을 오가는 건장한 박해수의 신체적 매력을 한껏 발산할 기회다. “여성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리시한 장면이 많습니다. 군무나 검술 장면 등등이요. 근육질 남성들이 상체를 벗고 나오기도 하죠. 멋진 몸매를 자랑하는 배우가 많습니다. 저도 지지 않기 위해 상체운동 열심히 할 겁니다.”

그의 매력 발산은 여기서 그치지 않을 듯하다. 케이의 사랑하는 이의 말이라면 살생도 서슴지 않는 잔인무도한 캐릭터다. 하지만 극 중 표현의 초점은 케이의 어린애 같은 천진난만함, 유머러스함에 있다. “단이를 엮고 가는 장면에서는 말뿐 아니라 표정으로도 저의 귀여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님도 귀여운 면, 유머러스한 면을 많이 표현하라고 하시네요.”

7월 초부터 하루 12시간씩 〈도화만발〉 연습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는 박해수는 〈도화만발〉을 마치면 러시아의 대문호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에 도전할 계획이다. 〈도화만발〉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박해수. 활짝 핀 복숭아꽃으로 수놓을 무대에서 그의 매력을 한껏 확인할 그날이 기다려진다.



러시아 발레리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춤을 춘다는 것

1985년, 백야의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난 콘스탄틴 노보셀로프(Konstantin Novoselov)에게 발레는 그야말로 숙명처럼 시작되었다. 발레의 종주국 러시아에서, 그것도 양쪽 모두 프로 발레단의 무용수로 활동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노보셀로프는 마치 아기가 처음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시작하듯 자연스레 발레를 만나고 그 매력에 빠져들 수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유니버설발레단과 인연을 맺고, 낯선 한국 땅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한 지 벌써 7년. 이제는 보드카보다 삼겹살과 막걸리를 즐겨 먹고 여가 시간엔 찜질방을 즐겨 찾는 '서울 청년'이 다 되었지만, 북국의 잿빛 하늘을 닮은 그의 회색 눈동자는 여전히 그의 숙명이 시작된 곳, 러시아 특유의 우수와 우아함을 담아내고 있었다.

● 열 살 때 발레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발레리노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모님이 모두 프로 발레단의 무용수다 보니 어릴 적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발레 무대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연습실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극장에서 숙제를 하던 제게 발레는 어떤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일상의 한 부분이었고,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발레리노의 꿈을 가지게 되었죠. 열 살이 되었을 무렵, 어머니가 제게 앞으로 무얼 하고 싶은지 물어봤고 전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발레'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길로 제 손을 잡고 바가노바 발레 학교에 데려갔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가노바 발레 학교는 세계 발레 교육의 메카라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확실히 바가노바는 유명한 발레 학교이고, 수많은 실력 있는 무용수가 전 세계에서 찾아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곳에서 배우는 것은 고난도의 기교와 화려한 테크닉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발레의 기초 자세, 스트레칭, 팔과 다리의 근육 쓰는 법 등 기본을 배우고 익히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지요. 저도 발레를 하면 할수록 그때 바가노바 발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떤 화려한 기교나 테크닉도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고전 발레의 성지와 같은 곳인데요, 그곳의 발레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고전 발레의 명작들이 탄생한 마린스키 극장이 자리 잡고 있고, 대부분의 발레 문화는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키로프 발레단도 이곳을 주 무대로 활동하고 있고,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마린스키 극장을 찾아옵니다. 유명 무용수가 많다 보니 관객들이 작품뿐 아니라 무용수 개개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곤 하지요. 제가 극장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마린스키 극장을 드나든 발레 마니아였는데, 누레예프나 바리시니코프가 공연했던 시절부터 그곳의 공연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셨더라고요. 그야말로 발레의 산증인이라 할 수 있죠.

2004년 유니버설발레단에 입단했습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요?

바가노바 발레 학교를 졸업할 무렵, 알버트 미르조얀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유니버설발레단에서 발레 마스터로 활동하셨던 분이데, 제게 유니버설발레단을 소개하면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오셨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당시 저는 젊었고, 러시아라는 무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서 다른 것들을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또 러시아 발레계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다른 곳에 가면 좀 더 춤출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으니 처음엔 의사소통 문제로 고생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발레단 내부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었습니다. 발레 역시 몸으로 말하는 하나의 언어다 보니 무용수들과는 자연스레 말이 잘 통했고, 발레단 사람들도 대부분 영어 대화가 가능하기까 의사소통에 큰 문제는 없었죠. 또 동료 무용수나 스태프들이 여러 가지로 배려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발레단 밖에서는 종종 곤란한 상황이 생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 발레단을 찾아가기 위해 택시를 탔는데, 아차산역에 가자고 했더니 아저씨가 그냥 아차산으로 알아듣고 산 중턱에 내려주어 난감했던 적이 있어요.

그동안 <돈키호테>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라 바야데르> <지젤> <심청> 등에서 주요배역을 맡아왔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를 고른다면 역시 <돈키호테>일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발레의 매력을 처음 느끼게 해준 작품이기도 하고, 무용수로서도 이 작품을 출 때 가장 행복하니까요. <돈키호테>의 특징 중 하나가 춤출 때 동작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용수의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춤을 즐길 수 있죠. 그리고 작품 자체도 밝고 신나잖아요.

다른 작품들과 달리 <심청>이나 <춘향>은 한국적인 정서와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외국인 무용수로서 이질감을 느끼진 않았는지요?

부모에 대한 효성과 남녀의 지고지순한 사랑은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영상으로 작품을 봤을 때도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니다. <심청> 같은 경우, 마지막에 심 봉사가 누르는 장면에서는 저도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다만 제가 <심청>에서 장님 역할을 맡은 적이 있는데, 상투에 한복을 입고 까만 콧

바카노바 발레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어떤 화려한 기교나 테크닉도 기초를
단단히 다져놓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 없거든요.

수업을 달았더니 외모상으로 좀 어색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평소 가장 존경하는 발레리노가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리시니코프와 바실리에프, 누레예프 등 제 바로 전 세대의 발레리노들을 특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실력도 출중하지만 발레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분들이니까요. 딱 한 사람만 골라야 한다면 아무래도 누레예프를 택해야 할 것 같아요. 평생을 오로지 발레에만 몰입하고 집중했다는 점에서 그를 존경합니다.

최근 세계에서 한국 발레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가까워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한국 발레가 지닌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무용수들은 끈기와 인내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작품을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남아서 연습하고, 무한 반복 끝에 결국 해내는 걸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한국 발레가 가진 '젊음'입니다. 사실 한국에서의 발레 역사는 러시아나 프랑스만큼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발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어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리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더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노력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룩한 거겠죠.

요즘 유니버설발레단은 고전 작품뿐 아니라 컨템퍼러리 발레 작품을 소개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안무가의 작품을 선호하는지요?

나초 두아토, 오하드 나하린, 지리 킬리언, 윌리엄 포사이드 등을 좋아합니다. 가장 최근에 지리 킬리언의 〈프티 모르〉를 출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선율이 무용수의 몸을 통해 그대로 무대 위에 흐르는 것 같았죠. 하지만 보기와 달리 직접 추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6명의 무용수가 한 사람처럼 같은 호흡으로 움직여야 하다 보니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했고, 자기 춤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동작에도 계속 신경을 써야 했지요.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곳은 어디이고, 그곳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원래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옮겨 다니는 걸 좋아해서 한국에 와서도 이태원에서 1년, 천호동에서 1년 하는 식으로 이사를



자주 다녔습니다. 지금은 암사동 선사 주거지 바로 앞에 살고 있는데, 도시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만큼 조용하고 한적한 점이 이곳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공원이 가까워서 산책하기에도 좋더라고요.

무용수들의 생활은 대부분 연습실과 공연장, 이 두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여가가 생길 때 가장 즐겨 찾는 곳은 어디입니까?

찜질방을 무척 좋아합니다. 발레는 몸을 쓰는 활동이다 보니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한데, 뜨거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고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나면 근육도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또 동료들과 같이 가서 수건으로 양 머리도 만들고, 함께 계란을 까 먹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겁고요.

발레는 다른 장르보다 활동 시간이 짧은 예술인데, 무대에서 활동을 그만둔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아직은 추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 이후의 생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꿈으로는 〈라 바야데르〉의 솔라르를 한번 해보고 싶고, 그 외에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작품들을 기회가 닿는 데까지 취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무대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글썄요, 아마도 선생님이 되어 발레에 대한 꿈을 학생들과 나누고 있지 않을까요?

글 김주연 대학과 대학원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하고 5년간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일했다. 현재는 문화와 공연에 대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사진 백종현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세상만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진가다.



서울을 알뜰달록
즐거운 문화로 물들이는
서울문화재단 문화사업통합브랜드입니다.

서울문화
예술탐방



2011. 09. 03

~

2011. 11. 11

cafe.naver.com/walkingseoul

연극과 함께하는 역사 탐방 (토) 11:00~13:00

서울 시내 4대 궁에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사건의 현장에서 그 시대 인물들을 만나보세요!

일정	9월 3일(토)	9월 10일(토)	9월 17일(토)	9월 24일(토)	10월 1일(토)	10월 8일(토)	10월 15일(토)	10월 22일(토)	10월 29일(토)	11월 5일(토)
장소	경복궁	경복궁	경복궁	경복궁	창덕궁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창경궁	덕수궁
주제	경복궁, 이름을 부르다	세종의 선물	어진왕의 마지막 충신	경희루의 눈물	낙선재에 떠온 사랑	세종의 선물	소현세자의 꿈이 잠든 곳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슬픈 비밀	조선의 마지막 공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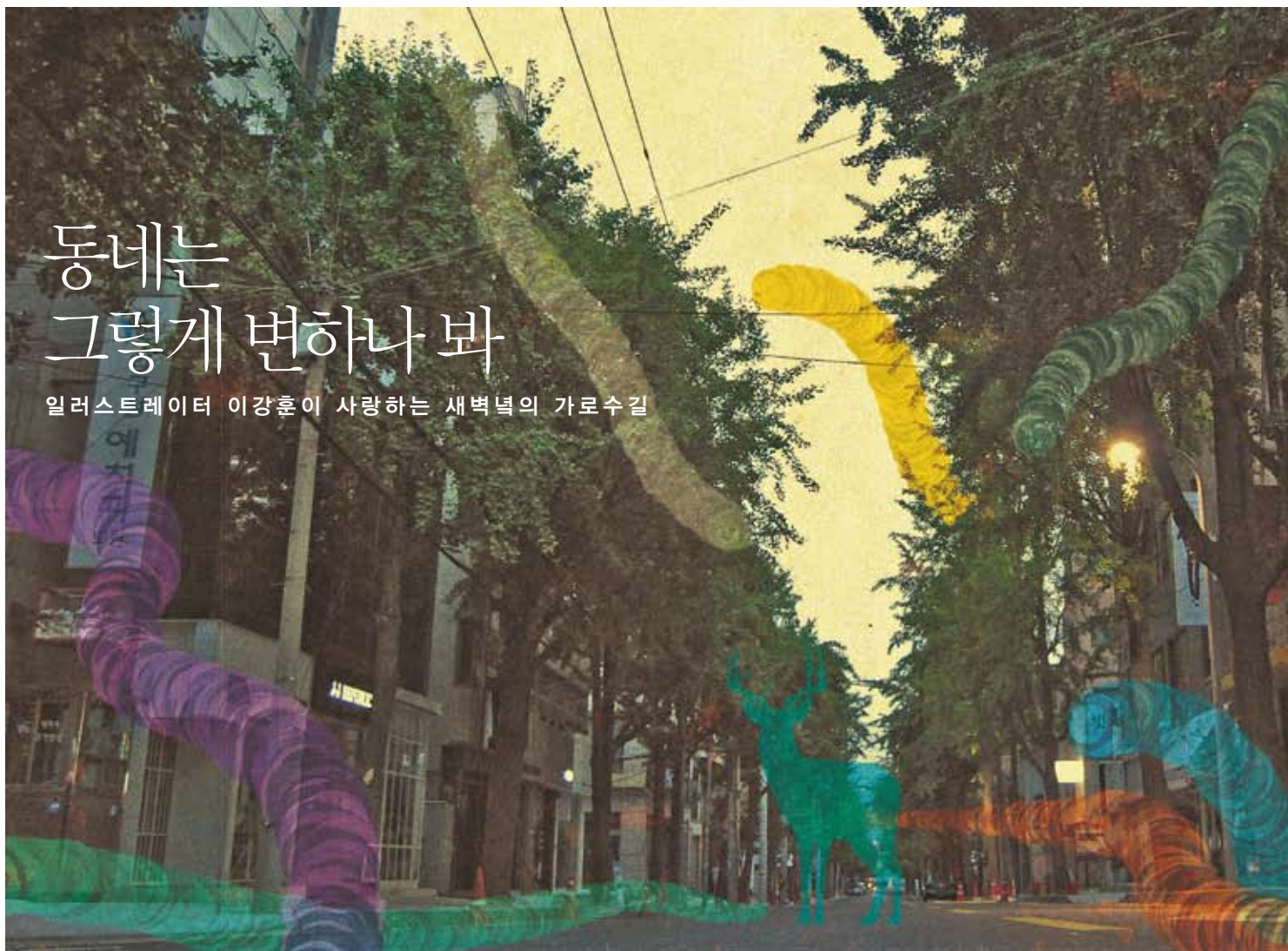
서울문화예술탐방 Best 10 (금) 10:30~13:30

2010년 서울문화예술탐방 Best 10선을 스토리텔러와 함께 만납니다.

일정	9월 9일(금)	9월 16일(금)	9월 23일(금)	9월 30일(금)	10월 7일(금)	10월 14일(금)	10월 21일(금)	10월 28일(금)	11월 4일(금)	11월 11일(금)
해설	이현욱 (명종집 건축가)	이현욱 (명종집 건축가)	김지은 (MBC 아나운서)	김지은 (MBC 아나운서)	김경식 (사인)	김경식 (사인)	김경식 (사인)	이동진 (영화평론가)	임혁필 (KBS 공채캐그맨, 작가)	임혁필 (KBS 공채캐그맨, 작가)
주제	건축 탐방	건축 탐방	미술관 탐방	미술관 탐방	문학 탐방	문학 탐방	문학 탐방	영화&음악 탐방	박물관 탐방	박물관 탐방

동네는 그렇게 변하나 봐

일러스트레이터 이강훈이 사랑하는 새벽녘의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길에 자리를 잡은 것은 4년 전 여름이었다. 프리랜서 생활 7년 만에 처음 가지게 된 작업실이었다. 창밖으로 아름답게 은행나무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웠던, 조용한 거리의 2층 작업실은 오래전부터 꿈꾸던 공간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6개월 뒤 나는 아예 집까지 가로수길로 옮겼다. 아직 가로수길이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동네가 변하는 과정은 때로 식물이 성장하는 것보다 빠르고 유기적이다. 하지만 성장축진제를 주입한 강제적 성장은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은행나무들조차도 이 동네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을 지난 4년간 나는 충분히 목격했다. 개발 혹은 발전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뉘앙스는 때로 희망적이고 진취적이지만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다. 서울의 정책을 가리키는 때때로 좋은 단어들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누구에게나 똑같은지는 않을 거다. 또한 그것은 이

거리를 바라보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겨우 4년 동안 가로수길은 예전의 흔적을 거의 찾아보지 못할 만큼 변했다. '개발'되었고 '발전'했다.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건물들이 솟고 있고 지난주까지 열려 있던 가게는 어느새 문을 닫고 그 자리를 새로이 채울 가게를 꾸미는 공사로 시끄럽다. 단골식당이 하나둘 문을 닫더니 세탁소와 찻집과 구멍가게가 차례로 사라져 갔다. 카페가 생기고 레스토랑이 생기고 유명 멀티숍과 대기업의 브랜드숍들이 생겼다. 가로수길은 어느 잡지에 소개된 대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한 플레이스'가 되었고 티브이에서 갓 튀어나온 듯한 선남선녀들이 활보하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난다. 대문 밖을 나서자마자 펼쳐지는 이 풍경은 내 눈이 이런 호사를 누리도록 되나 싶을 만큼 황금 무지하다. 주말이면 카페 하나 열지 않는 텅 빈 거리였던 때가 과연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일을 가릴 것 없이 넘쳐나는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걷던 나는 문득 이 거리를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이곳에서 만난 많은 친구가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은 내심 반갑고 서글픈 일이었다.

3년 전 가을, 아내와 한 친구가 뜻을 모아 동네신문을 창간했다. <헬로, 가로수길>이라는, 지금은 나름 유명해진 이 신문은 말이 신문이지 1년에 네댓 번 발행하는



길)을 통해 다시금 배웠다. 그런 그들이 하나둘 이 거리를 떠나고 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거리의 생명력은 문화에서 나온다

거리가 유명해지면 돈이 몰려든다는 것은 이제는 정석처럼 굳어진 사실이다. 과거 많은 유명했던 거리가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여럿 있다. 땅값이 오르고 임대료가 오른다. 적은 임대료로 지내던 상인들과 주거인들이 쫓겨나고 그 자리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이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이는 서울이 아닌 어느 자본주의국가의 어느 도시에서라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며 자본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수학공식처럼 변하지 않을 진리다. 이곳에 속해 있으면서 굳이 그 사실을 탓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것이 사실이다. 과연 다른 방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일전에 모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위해 가로수길을 촬영하러 온 적이 있다. 인터뷰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곳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은 허상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문화가 부재한 상태에서 자본의 힘만으로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똑같은 속도로 쇠퇴하고 만다. 지금 이 거리에 돈을 쏟아 붓고 있는 대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있다면 당장의 이윤에만 목매달지 말고 이 거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에도 투자해야 옳다. 거리의 생명력은 결국 돈이 아니라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새 명소로 떠오르는 거리의 모습을 담고 싶었던 그들은 결국 인터뷰를 편집했다. 뭐, 예상했던 일이긴 하다.

비정기 무가치다. ‘즐거운 일을 벌여보자’는 단순한 취지로 만들어진 <헬로, 가로수길>은 의외로 많은 결과를 만들었다. 그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일을 꼽자면 아마도 동네친구들의 교류의 장이 생겼다는 점일 것이다. 포토그래퍼, 그래픽디자이너, 패션디자이너, 잡지 에디터, 일러스트레이터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헬로, 가로수길>을 통해 저마다의 재능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교류하고 친분을 다졌다. 작품들이 쌓이면 매년 갤러리를 빌려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은 이들의 놀이와도 같았던 작업들이 가로수길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거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결국 그곳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헬로, 가로수

이미 떠난 친구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처럼 나와 아내도 곧 이 거리를 떠날 계획이다. 정해진 곳은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동네는 아직도 서울 어딘가에 있을 거다. 변하지 않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다. 거리든 사람든, 빠르게 혹은 느리게 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그 변화가 보다 많은 이에게 오래도록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다. 여러 상념에 사로잡힌 요즘 나는 자주 인적 없는 가로수길을 산책한다. 새벽녘의 가로수길,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가로수길의 모습은 새벽빛이 어슴푸레 밝아오는 그 시간의 가로수길이다. 작업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 시간 가로수길은 온전히 내 공간 나의 거리가 된다. 다행히도 자정이 지나면 거의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이 거리의 특성상 새벽 시간만큼은 몇 해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남아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 그림자를 찾을 수 없는 이 시간 가로수길은 가장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돌아온다. 미지의 생명체들이 배회하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 새벽의 가로수길을 걸으며 이따금 나는 몇 년 후의 이 거리를 상상해본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련다.

이제는 몸의 시대

보통사람들에게 일렁이는 춤바람



1

‘춤’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젊은 사람들이라면 홍대 클럽, 평범한 직장생활에 젖어 있는 샐러리맨이라면 가끔 들르는 노래방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드는 정도, TV 속 가수들의 현란한 몸짓이라고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마도 연령대, 하는 일, 지역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춤에 대한 생각은 다르겠지만 이들의 공통분모를 찾아본다면 밤문화와 아주 친숙하다는 점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봤을 직한 일이라는 것이다.

극장에서 관람하는 춤공연은 ‘춤’이 아니라 ‘무용예술’이라 웬지 어렵고 고급스러워서 나오는 다른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추어본 적이 있는 춤들은 예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분명 극장에서 보게 되는 무용공연과 대다수의 사람이 추어본 적이 있는 노래방춤과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요일 오후 5천만 동포의 공감프로그램 <전국노래자랑>에서 흥에 겨워 자리에서 일어나 마구 흔드는 아줌마춤이나 훌륭한 무용수의 춤이나 몸으로부터 우러나온 신명이라는 점에서 그 출발은 같다. 다만 그 신명을 어떻게 가꾸고 재단해 사려 깊게 만들어가는가, 이것이 결국 예술이냐 아니냐

의 차이가 아닌가 싶다.

비좁은 버스 통로 안에서 허벅지 명 자국의 고통을 이겨내며 춤을 추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그 춤을 향한 열정이 차창 밖을 나와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 몸으로 만나는 춤

최근 음지에 묻혀 있던 보통사람들의 춤에 대한 조심스러운 호기심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창의성 계발 교육 프로그램부터, 어르신 건강을 위한 춤교실, 노숙자들, 비행청소년, 일반인들의 모임 등 이런 형태의 춤모임은 그 성격과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이는 곧 춤에 대한 보통사람들의 욕구를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방학을 맞아해 곳곳에서 초등학교를 위한 무용교실이 마련되었다. 성북예술창작센터에서는 ‘무더위 테라피’가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열렸으며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반으로 나뉘어 무용, 동작치료 개념의 움직임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춤이 생소했던 아이들에게 자기표현방

- 1·2 흥은예술창작센터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몸, 좋다'.
- 3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콩나무놀이터'.
- ©트러스트 현대무용단
- 4 노숙자에게 춤을 가르치는 서울발레시어터.
- ©서울발레시어터



2



3



4

법의 새로운 영역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교육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이 외에도 한국라반움직임연구소의 창의성 계발을 위한 접근 등 꼼꼼히 챙겨 본다면 놓치기 아까운 프로그램이 많다.

이어 8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 두 달 동안 이어지는 흥은예술창작센터의 '몸, 좋다'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부터 성인여성, 일반인, 장애인, 55세 이상 장년층 등 연령대별 여덟 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한국무용가, 현대무용가 등 흥은예술창작센터 1기 입주 예술가 네 명이 직접 강사진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몸, 좋다'는 흥은예술창작센터와 지역주민과의 교감의 장이 되고 있어 말 그대로 지역 '커뮤니티 댄스'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

교육적 여가 활동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기간, 한정적인 프로그램은 흔히 볼 수 있지만 공연을 목적으로 한 순수 아마추어 모임은 흔치 않은 형태이다. 이는 교육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도전일 것이고 참가자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지난 6월 18일부터 진행되어온 서교예술실험센터의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은 백 퍼센트 순수 일반인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9월

3일 공연을 한다. 프로그램 이름처럼 해보고는 싶지만 선뜻 자신이 없어 우물쭈물하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모인 모임이다. 공연의 성패를 논하기 전에 매주 3회, 매회 3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을 들인 과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처음 공고문을 냈을 때 '누가 올까?'라는 생각에 내심 기획자들도 걱정이 앞섰지만, 지원자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60대 어르신부터 주부, 교사, 직장인,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지원자들의 하는 일, 사는 곳, 나이 또한 다양하다.

무엇보다 춤공연은 움직이는 무용수와 안무가뿐만 아니라 무대공연 완성을 위한 다양한 스태프 구성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춤을 위해 모인 수십 명 중에서 자연스럽게 일의 분담이 이루어져 공연 스태프가 정해지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다.

열정 반, 용기 반 준비 완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민간무용단인 서울발레시어터는 무용예술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이다. 이런 전문무용수들이 노숙자들과 춤을 추기 시작했다. 트러스트 현대무용단에서는 몇 해 전부터 '콩나무놀이터'라는 학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춤교실을 운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호기심의 수준이 아닌 적극적인
몸으로의 실천 말이다.

1

영해오다 지금은 잠시 휴식 중이다. 뿐만 아니라 8월 춘천아트페스티벌에서는 일반인들의 무용공연을 축제 공연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리는가 하면 지난 6월 고양시에서 열린 창무국제무용제에서는 학부모와 어린이를 위한 무료 움직임교실이 열렸다.

이들의 모임에서는 춤의 정교한 기교나 테크닉을 위해 몸의 고통을 강요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수십 번의 턴, 점프, 거울을 보며 미소를 머금어야 하는 표정 등. 정해진 복장과 준비물도 필요 없다. 열정 반, 용기 반만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이들의 춤에는 잘하고 못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움과 자기발현의 기회만 있을 뿐이다. 요즘에는 전문무용인의 공연에서도 일반인의 등장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장애인들과의 군무라든지 일반인의 카메오 출연 등 이벤트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다.

근래에 나타난 사람들의 춤에 대한 행보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십수 년 전부터 문화센터를 비롯해 지역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운영되면서 폭넓은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한국무용, 발레, 재즈, 힙합, 방송댄스,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무용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변화는 무용 예술인들이 더 이상 무대 위의 춤이 아닌 일반인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 눈으로만 보기보다는 직접 즐기고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춤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고가의 사교육에만 의존했던 무용 입문의 문턱을 낮추고 춤과 예술로써 무용의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지역문화센터를 통해 재능을 발견한 어린 꿈나무들 중 지금은 해외 유수의 무용단의 무용수로 성장한 이도 있다.

떠오르는 몸의 가치

한때 사람들은 춤추는 것을 멀리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처럼 들리지만 주변의 30대 무용인들을 만나봐도 '무용하고 싶다'는 진로 결정에 흔쾌히 허락한 부모님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춤' 하면 '딴따라', '춤쟁이'라는 오래도록 내려온 사회적 편견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춤을 낮추어 보지 않는다. 최근 사람들의



2

- 1 성북예술창작센터 초등학생 대상 무용교실 '무더위 테라피'.
- 2 2011 춘천 아트페스티벌 '프로젝트그룹 춤추는 여자'
<당신은 지금 봄내에 살고 있군요>. © 이도희
- 3 서교예술실험센터 '우물쭈물 꿈꾸는 움직임'. © 백종현
- 4 2011 창무국제무용제 체험프로그램 온가족이 함께하는 댄스 테라피. © 창무국제무용제



3



4

관심이 건강을 위한 '몸', 아름다움을 위한 '몸', 자기표현을 위한 '몸'으로, '몸' 그 자체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단순히 운동만이 아닌 표현과 더 나아가 예술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들이 발현되고 있다. 예쁘고 가녀린 무용수가 곱게 차려입고 우아한 몸짓으로 무대를 나비처럼 가로지르는 것만이 춤이 아니라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직접 느끼고 즐기는 적극적인 춤으로써의 체험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유형의 춤을 '커뮤니티 댄스'라 칭하고 말 그대로 지역적, 사회적 정체성을 지향하는 춤으로 보고 있다. 커뮤니티 댄스가 무용예술의 학문적 접근으로 볼 때 예술적 가치 지향과 사회공동체적 의미 부여에 따른 분류영역에 대한 모호함이 남아 있으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호기심의 수준이 아닌 적극적인 몸으로의 실천 말이다. 이는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기호와 취미가

다양해지면서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등학생 위주의 교육 중심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라는 점과 한시적이고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보완하여 보통사람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아진다면 참으로 건강한 춤바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일반인을 위한 춤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어느 무용가의 말이 떠오른다. “처음 제가 무대에 설 때가 생각나요. 긴 공연 중에서 5분 정도 출연하는데, 그 5분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떨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신없고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느낌을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슴 벅찼던 느낌을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처럼 그 떨림의 소중한 경험 이 춤으로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

예술과 자본의 아름다운 동거

아트+마케팅=?



모든 분야에서 장르가 해체되고 구분이 무의미해진 요즘이다. 미술에서도 작품(作品)과 상품(商品)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팝아트의 전설 앤디 워홀은 생전에 예언했다고 한다. “미래의 미술관은 백화점이 될 것”이라고, 그런데 이 말을 “미래의 백화점은 미술관이 될 것이다”라고 바꾸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이다. 예술과 자본의 속성을 정확히 간파했던 천재작가의 예리한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술은 자본, 즉 돈과 깊이 관계 맺어왔다. 예컨대 ‘메세나(mecenas)’ 활동의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가)은 오래전부터 예술(가)을 지원/후원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어왔다. 이런 애정관계를 ‘상부상조’ 또는 ‘give and take’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밀히 보자면 예술을 향한 자본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역학관계는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극도로 발달한 동시대에도 예술을 향한 자본의 구애(求愛)는 끊이지 않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용어와 개념이 바로 ‘아트마케팅(Art Marketing)’이다. 아트와 마케팅의 합성어인 아트마케팅은 글자 그대로 예술을 활용함으로써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경영전략 가운데 하나다. 아트마케팅은 다시 예술을 위한 ‘마케팅(Marketing for Art)’과 마케팅을 위한 예술(Art for Marketing)’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예술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후자는 기업이 주체가 되는 셈이다. 방점을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있겠으나, 이 둘은 예술을 토대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가 하면 ‘문화마케팅’이나 ‘스포츠마케팅’이란 용어도 심심치 않게 사용되고 있다. 아트마케팅이 전시나 공연과 같은 구체적인 예술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문화마케팅은 보다 광범위하게 정신적이거나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특히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주요 경기(장)에 광고판을 독점한다든지 때론 직접 프로팀을 운영하기도 하는 스포츠마케팅의 핵심은 막대한 자본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트마케팅의 다양한 방식

최근 들어 아트마케팅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환경과 기업문화, 즉 기업의 경영마인드가 변했기 때문이다. 제조업 중심

의 초기 산업화 사회는 서비스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수준까지 급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수준 높고 차별화된 경영의 트렌드로 아트마케팅이 등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 사례와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상품제작에 미술작가가 참여하는 방식을 꼽을 수 있다. '콜라보레이션(Collaboration)'이라고 불리는 기업과 작가와의 협업은 대량생산되는 상품일수록 그 파급효과가 크다. LG전자와 삼성의 냉장고 디자인이 좋은 예다. 2007년 LG전자는 냉장고 겉면에 화가 하상림의 꽃그림을 모티프로 한 디자인을 도입했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패션디자이너 앙드레 김에게 디자인을 맡겨 이에 맞대응했고, LG전자는 다시 세계적인 크리스털 브랜드인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겉면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시작했다. LG전자는 한발 더 나아가 '갤러리 키친(gallery kitchen)'이라는 콘셉트로 예술과 가전제품의 만남을 강조했다. 영화 속에 자사 가전제품을 삽입한 광고 시리즈도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디자인 경쟁은 아트마케팅의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싸움이라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콜라보레이션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패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초로 여성복 바지를 디자인한 이브생로랑은 이미 1960년대에 몬드리안의 회화를 활용한 의상을 발표했고, 얼마 전 타계한 작가 사이 톰블리의

추상 페인팅도 드레스에 접목된 바 있다. 최근엔 키스 해링, 바스 키아, 나라 요시토모 같은 작가의 이미지와 캐릭터가 의류에 프린팅되어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예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동기의 '아토마우스'와 권기수의 '둥구리'가 좋은 예다. 이들의 캐릭터는 옷뿐 아니라 시계, 가방 등 다양한 제품에 반영되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와 같은 콜라보레이션의 성과는 미술관까지 진입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2007년 로스앤젤레스 현대미술관(MOCA)에서는 팝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의 전시에 맞춰 루이비통 매장이 미술관에 문을 열어 화제가 되었다. 당시 미술계 일부에서는 미술관의 상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도 했으나 순수미술과 대중문화, 그리고 산업을 혼합하고자 하는 작가의 철학을 수용한 미술관 측과 홍보 효과를 노린 기업의 의도가 적절히 부합한 경우라 하겠다.

둘째, 광고를 통해 아트마케팅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다. 그런데 이 방식은 그 목적이 단순히 제품의 홍보에만 있는 게 아니다.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한다는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평판을 이끌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밀러맥주와 필립모리스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알트리아 그룹은 아트마케팅을 통해 제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한국에서도 담배를 독점 제조·판매하는 KT&G가 홍대 앞에서 복합문화공간 상상마당을 운영하는 것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1 신세계백화점 본점 옥상에 설치된 제프 쿤스의 작품 〈성스러운(Sacred) 허트〉.
 - 2 루이비통 2008년 봄/여름 컬렉션 패션쇼에서 간호사로 분장한 모델들이 들고 있는 가방은 미국작가 리처드 프린스와 협업으로 만든 것이다. © LOUIS VUITTON / Christopher Moore
 - 3 무라카미 다카시의 전시가 열린 MOCA에서 한정 판매된 루이비통의 〈네버풀 백〉.
- © LOUIS VUITTON / CREATION VISUELLE / LV Hands / 2007 Takashi Murakami / Kaikai Kiki co. Ltd All Rights Reserved

구체적으로 국내에서 미술작품을 활용한 광고 중 대표적 사례는 앞서 언급한 LG전자의 가전제품 광고다. '당신의 생활 속에 LG가 많아진다는 것은 생활이 예술이 된다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명화 이미지와 자사 가전제품을 합성한 이 광고시리즈는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작가 육심원이 그린 젊은 여성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했다. 작가의 그림을 통장과 카드 디자인에 도입하고 옥외 광고판 등 각종 홍보매체에 적극 활용했다. 하나은행의 이런 시도는 외국 미술작품을 이용한 광고 제작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조각가 장 피레르 레이노의 작품 〈Big Flower Pot〉를 내세운 광고를 선보인 것이다. 커다란 화분 이미지를 통해 고객의 자산을 크게 키우겠다는 의미와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는 식사함을 탈피해 미술작품을 활용한 광고는 차별화, 고급화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셋째, 아트마케팅을 통해 기업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경우다. 대표적 사례로 '쌈지'를 들 수 있다. 아쉽게도 지금은 사라졌지만, 쌈지는 1990년대 초부터 순수미술과 디자인을 결합한 아트마케팅 전략을 펼쳤다. 아트마케팅으로 재미를 톡톡히 본 쌈지는 신개념 문화기업으로 입지를 굳히는 듯했다. 홍대 앞에 있던 복합문화공간 '쌈지스페이스', 인사동 한복판에 있는 대규모 소펍타운 '쌈지길', 경기도 파주 헤이리 예술인마을에 조성한 '딸기가 좋아' 같은

물리적인 성과물이 이를 대변해준다. 이 가운데 쌈지스페이스가 미술계에 끼친 파급효과와 영향력은 막대했다. 2008년 폐관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쌈지스페이스는 '대안공간'과 '레지던시'라는 역할을 선두적으로 펼치며 미술계의 지형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그러면서 이른바 '홍대 앞'이라고 불리는 '인디문화'의 등장과 번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정이야 어쨌든 부도와 상장폐지로 이어지면서 결국 파산하게 된 기업의 실패는 여러 측면에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미래의 미술관은 백화점, 미래의 백화점은 미술관

또 다른 사례로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를 주목할 수 있다. 에르메스는 서울 본사매장 건물에 아틀리에 에르메스라는 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에르메스재단 미술상을 제정해 국내 작가에게 수여하고 있다. 제품 판매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에르메스의 이런 행보는 일부 상류층만이 향유하는 최고급, 최고가 브랜드라는 부정적인 인상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공헌과 예술지원에도 적극적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도 미술관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고 수준의 고미술과 현대미술품을 소장한 삼성미술관 Leeum, 디지털 미디어아트 분야에 특화된 SK 아트센



- 1 고희의 그림을 차용한 LG전자의 광고.
- 2 장 피레르 레이노의 〈Big Flower Pot〉를 이용한 하나은행 광고.
- 3 낸시 랭과 협업한 쌈지의 가방.

- 4 앤디 워홀의 작품을 모티프로 한 티셔츠
- 5 바스키아의 작품 이미지를 도입해 1500컬레 한정 생산된 리복의 운동화.
- 6 아트산재센터에서 열린 BMW 아트카 전시 광경.



터나비, 첨단 공연시설을 갖춘 LG아트센터, 금호미술관과 금호아트홀, 성곡미술관(쌍용), 대림미술관(대림), 한미사진미술관(한미약품), 아트스페이스 씨(코리아나화장품), 송추아트밸리(크라운해태제과) 등등. 기업 차원에서 아트마케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예는 수없이 많다. 이처럼 기업이 펼치는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공통점은 특성상 단기간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된다는 점이다.

넷째, 유명작가의 명성과 인지도를 이용한 아트마케팅이 있다. 앞선 세 가지 유형과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특정작가의 유명세를 전면에 내세우는 아트마케팅 전략이 최근 들어 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옥상에 제프 쿤스(Jeff Koons)의 조각작품 〈성스러운(Sacred) 하트〉가 설치된 사건(?)이 좋은 예다.

전 세계 현존작가 중 작품 가격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제프 쿤스의 조각을 백화점에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뉴스 거리가 되기에 충분했다. 100명이 넘는 조수와 직원이 일하는 제프 쿤스의 작업실은 '제프쿤스 유한책임회사'라는 이름을 지닌 어엿한 기업체다. 그리고 그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인이다. 평소 '아트마케팅'이라는 말 대신에 '아트비즈니스'라는 말을 즐겨 사용한다는 제프 쿤스, 그는 예술가와 기업인의 두 얼굴을 한 몸에 지닌 아누스 같은 존재인 셈이다. 한편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리노베이션 공사 중에 초현실주의 화가 마그리트의 작품을 모티프로 한

가림막을 설치해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매장 곳곳에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설치함으로써 다른 백화점과는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앤디 워홀의 예견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아트마케팅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범위와 한계는 무궁무진하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나 한강르네상스 같은 사업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아트마케팅의 일환이다.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측면에서 보자면 말이다.

결론적으로 '아트+마케팅=?'라는 문제를 풀 때 어떤 공식을 대입하고,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아트와 마케팅은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개념이고, 따라서 이상적인 둘의 조합은 말처럼 간단치 않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아트마케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돈과 관련된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천박하지 않고,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하게, '예술적으로' 돈을 벌거나 쓸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보다 많은 사람이 누리고 즐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로 말이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는 '예술의 공공성'이라는 화두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던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만나서 '통섭'의 시대를 제시하듯 예술과 자본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아트마케팅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기대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문화예술 사회적기업, 새로운 길을 찾다

0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맺기

문화예술의 가치에 사회적 가치까지 만들어내는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의 사회공헌이나 문화마케팅 활동에서 늘 매력적인 섹의 대상이다. 상생경영, 동반성장, 자본주의 4.0 등 시장경쟁으로 지친 문화예술단체와 사회적기업가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수사들이 난무하지만, 여전히 기업은 자비로운 지원자로서 우러러봐야 할 관계인 것은 분명하다. 영리기업의 경영상 필요에서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나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과 사업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사회적기업에게는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숙제로 주어진 두 부류의 기업 간 관계 방정식에서 상생이라는 해법을 도출할 방법을 알아본다.

●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서의 사회공헌

요즘 문화예술계나 사회적기업을 보면 (영리)기업의 자선활동, 사회환원, 사회공헌,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의 의미나 경계를 모호하게 두고 자의적으로 혼용할 때가 많다. 여기에 문화마케팅, 예술경영론까지 뒤섞어 쓰면 한층 혼란에 빠진다. 요컨대 기업도, 사회적기업도, 문화예술계도 상호 간 점점과 연결을 제대로 도모하려면 관련 개념 및 용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인식과 실천이 일관성을 갖고 장기적 성과로 향할 수 있다.

먼저 기업의 자선활동. 이 말은 이데레면 '직원들이 개인 돈을 자발적으로 모아 자선하는 것'을 애써 가리키는 것이면 무척 어색하다. 오너가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인의 자선활동 역시 기업의 자선활동과 다르다. 기업 조직의 주주, 임원, 직원, 거래처, 소비자, 지역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해 기업 돈으로 자선활동을 하는 일은 드물다. 기업의 이해당사자들이 기업의 돈으로 자선활동을 하자고 모두 동의할 명분이나 합의는 전쟁, 재난, 국가부도 등 극히 예외적 상황이 아니면 거의 없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말은 잘못 쓰이는 대표적인 경우다. 특히 대기업 총수가 탈세나 불법으로 지탄을 받고 사재를 출연해 거액을 기부하거나 공익재단 설립을 발표하면서



공공미술프리즈의 시민 참여 벽화. ©공공미술프리즈



다국적·다문화 노래단의 안무 수업. ©노리단

기업의 사회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회 공동체의 자산을 이자도 안 내고 쓴 덕에 축적한 기업 이윤을 되돌려준다는 의미에서 기업의 사회환원이라 하는 것과 기업인 개인의 대오각성을 알리는 자선활동은 같지 않다. 이보다는 갑박할 머니가 평생 법을 지키며 모든 재산을 대물림하지 않고 공익에 기부하는 유언을 (자영업 이윤의) 사회환원이라고 해야 맞겠다.

기업의 비즈니스와 연관성이 없는데 임직원과 직원들이 해마다 김치 담그고 연탄 배달하는 풍경은 훈훈할 수 있지만 이것을 기업의 자선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룹 총수의 결정에 따라 기업 돈으로 공익재단을 만들고 장학금 주는 것이 미답일지 모르나 이걸 기업의 사회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기준이 서 있지 않고 대표할 만한 사례가 약하다 보니 '자선하고 '공헌'하겠다는 기업 당사자의 자화자찬식 보도자료가 일방 통행을 한 측면이 컸다.

장기적 경영전략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활동

다행히도 우리 사회의 기업들은 이제 그런 애매한 말보다는 사회공헌 또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비교적 정확한 개념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두 표현도 좀 다르다. 기업의 사회공헌이란 소비자, 지역사회, 대중이 기업의 법적이고 경제적인 활동을 넘어 사회적 이익을 위해 기업 자원을 특정한 용처에 쓰길 바라는 욕구와 여론이 먼저고, 이를 기업이 무시하지 않고 수용하고 협력할 때 성립된다. 이것이 기업의 경영전략과 연결되면 장기적인 사회공헌 전략을 설정하고 여기에 들어갈 비교적 큰돈을 사회적 투자로 보면서 지역의 파트너 조직들과 협력해 기업의 미래 마케팅과 연계하

는 전략적 사회공헌(Community Involvement)이 된다.

이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이윤을 추구하는 비즈니스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결과와 영향을 스스로 책임지는 활동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의 새로운 발상이자 실천이다. 국제표준기구가 2010년에 발표한 ISO 26000의 사회적 책임(SR) 7대 핵심어를 참고하자. 조직지배구조, 인권, 노동과정, 환경문제,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 지역 참여와 개발 등. 이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복합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업 스스로 CSR을 경영전략으로 도입한다는 뜻이다. 대체로 그 추세는 대기업일수록 글로벌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비전을 선포하되 실행은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를 통해 지역 참여와 개발의 전략적 사회공헌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요약하면 CSR은 국가 실패나 시장실패가 중복되는 사회문제나 새로운 지역문제를 기업적 방식으로 혁신하려는 전략적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 신뢰도와 브랜드를 높이고, 동시에 기업의 미래 생존력과 경쟁력 등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경영전략이다.

지역 거버넌스를 통한 CSR

CSR 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는 장기적인 투자를 요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탐색해야 하며, 지역으로서는 지역거버넌스에 기업을 장기적인 파트너로 참여시키는 것이 주요 이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예술 조직이나 사회적기업이 지역 거버넌스의 중심 파트너로서 기업 CSR의 파트너를 겸하는 모델이 가장 바람직하다.

유의할 점은 문화예술계나 사회적기업 개별 조직이 개별 프로젝트로 개별 기업의 일부 자원과 일시 연계해서 프로젝트의 성과를 내는 것과, CSR 차원에서 지역 거버넌스로 접근할 종합적 과제를 개별 조직이 일점 돌파하듯 하는 모험적인 사례를 구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칫 모두에게 모험을 걸라는 식의 권장이 정부 정책 시행의 옵션이 되고 재단 지원제도의 전제가 되는 경향은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스타' 사회적기업들의 지속적인 견인(pull)과 창업 단계의 사회적기업군 조성을 주도(push)하는 것은 모두 필요하나 사례별로는 다르다.

물론 아무리 난제이고 위험이 커도 과감하게 도전해 예외적 성공 사례를 만드는 소수가 있기 마련이고, 그런 본보기가 후발 주자들이 더 많은 용기와 새로운 시도를 낳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 그러자면 다수의 초창기 실패 경험은 개별적 부담으로 방치되지 않게 보호하면서 1%의 성공이 계속 장려받는 미망한 생태계 조성이 먼저다. 그런 생태계에 남을 수 있다면 창업 단계의 개별 조직들이 겪는 초기 실패 경험은 잡종교배



프랑스 사회적기업 라 프리세.

를 통해 더 강력하고 혁신적인 성공 사례로 이어진다. 지역 거버넌스가 그런 생태계의 필요조건을 갖추고, 여기에 CSR로 기업이 참여하면 강력한 충분조건이 마련될 수 있다.

전주의 사회적기업인 이음이 '마을만들기'라는 큰 방향 아래 한옥 체험만이 아니고 다른 신사업들을 개발 병행하는 것도 지역 거버넌스의 틀이 있어서다. 평창의 (주)감자꽃스튜디오가 개별 회사지만 지역의 특성, 주민의 요구, 타지의 수요를 두루 연결하며 선전하는 것도 지역 거버넌스의 전망을 보면서 하기 때문이다. 고양의 사회적기업 공공미술프리즘이 공공미술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지역의 작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꾸준히 공을 들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회적기업 (주)노리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장기적 CSR 및 (사)씨즈의 컨설팅과 결합해 (가칭)다국적·다문화 노래단을 부천문화재단과 같이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것도 그렇다.

지역 거버넌스형 문화예술 CSR의 성공요건: 영역의 확대와 맞춤형 솔루션 제시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4가지 유형 분류상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55%나 속했던 '기타형'이 2010년 법 개정으로 '지역사회 공헌형'으로 바뀐 점도 시의적절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적 제도 개선이나 고용노동부의 2010년 전략육성 분야에 (예술과 관광을 포함하는) 문화를 명기했지만 국악, 고택, 한옥, 문화재 등 전통 문화유산 연계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앙 부처나 지방정부가 지역개발의 전략적 육성 대상으로 사고하는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의 발상도 이 범

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볼 때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도전 과제와 영역이 그렇게 고착되면 지역 재생의 큰 그림과 CSR의 기업과 장기적 파트너십 관점에서 만들어갈 공통분모는 줄어든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이 신개념과 기획으로 문화예술 조직의 정체성을 혁신할 수 있는 깊이와 폭도 대폭 축소된다. 문화예술의 특수성을 논할 때 문화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의 종합이자 우선순위'라는 최상위 개념으로 보면 예술의 특수성이 남는데, 이 특수성 관점에서도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존재감은 희미해진다.

결국 지역 사회공헌으로 귀결될 CSR의 (영리)기업과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영리와 비영리의 표준적 결합이 아닌 저마다의 극단적인 조합)이 만날 최적의 접점과 시너지는 지역 거버넌스의 생태계에서 결실을 맺는다. 이때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이 창출할 가치는 개개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나 신선했던 매출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 승패는 집단적 협력행동, 신뢰의 관계망, 시민적 책임과 참여도,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 등 다양하게 표상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획기적인 증대에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이 어떤 선도적 기능과 롤 모델을 제시하는가에 달려 있다.



프랑스 사회적기업 라 프리셰.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비즈니스는 보통 2~3개 이상의 복합 모델인데, 이는 개별적 생존 차원의 영리적 수단이든 융·복합 사업과 조직모델의 의식적 모색이든 대체다. 그것의 장기적 전망과 지속가능성의 길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CSR의 지역 사회공헌이자 지역 거버넌스다. ISO 26000이 제시한 SR도 (영리)기업뿐 아니라 영리와 비영리를 망라한 모든 조직을 향해 있다. 사회적 책임은 글로벌 대기업만이 아니고, 이윤을 확보한 다음의 시혜적 자선활동이 아니며, 처음부터 기업활동의 핵심 요소이자 전략적 기준이 되고 있다.

이 점에서 사회적기업은, 예술의 특수성을 강조해온 문화예술계는, 이 둘을 합쳐놓은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기업은 '그래서 뭘 또 하라고? 어찌라고?' 망연자실할 수도 있겠다. 반대로 기왕의 모든 활동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본과 근본을 재정의하는 강력한 동인으로 삼을 수도 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의 그런 의식적 전환이 성공하려면 거듭 강조하건대 '스타' 사회적기업 등 개별 조직의 모험적인 실험도 장려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와 연계된 중앙부처)의 과감한 정책 및 제도와 더불어 특히 CSR을 경영전략으로 자각한 기업의 능동적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도 맥락은 같다.

폐업한 지역 담배공장과 주변 동네를 문화예술의 창조지대로 재생하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생테레 라 프리셰(www.lafriche.org), 지역사회의 조경 및 인테리어 개선·청년층 취업알선·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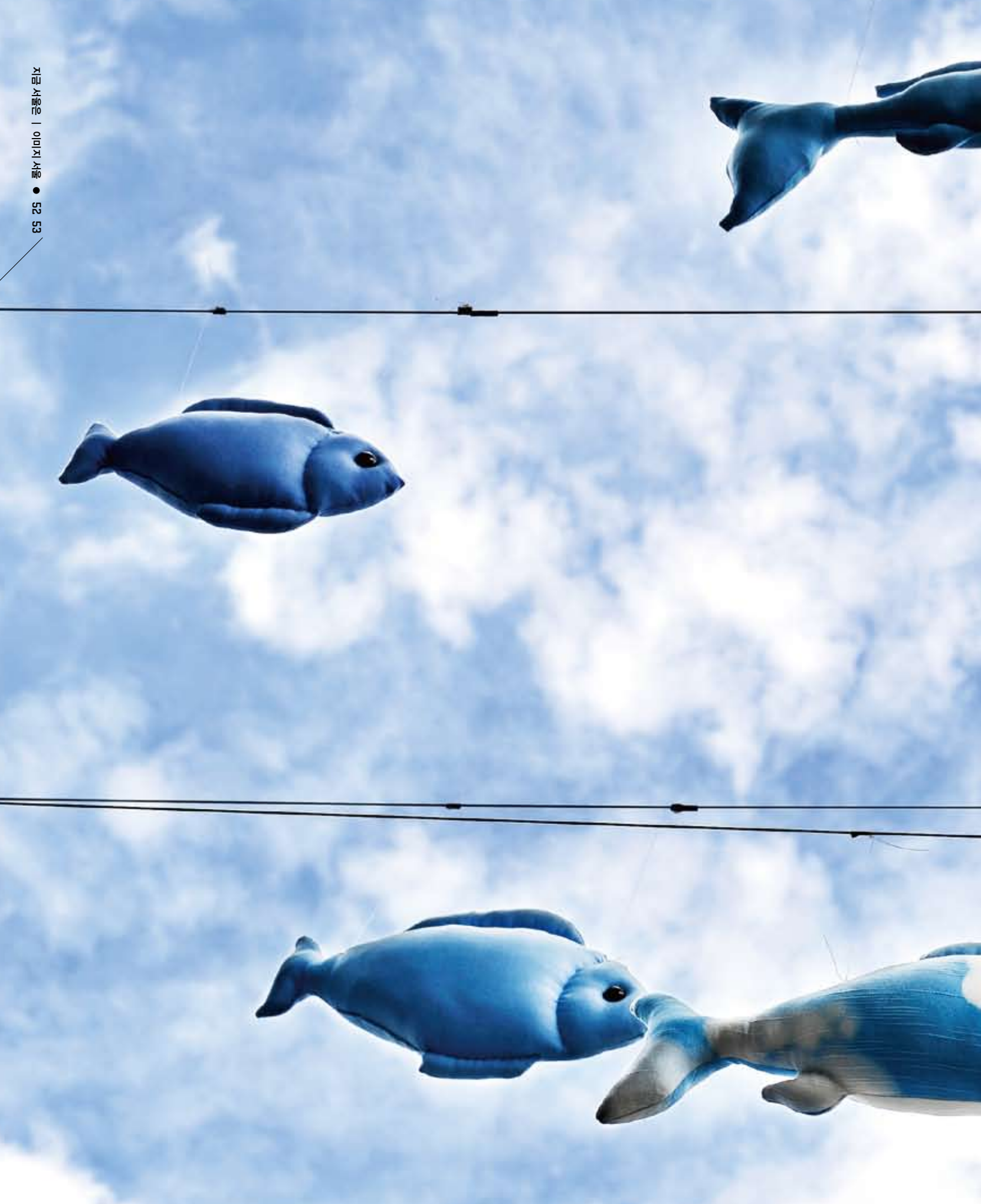
적 도구로 예술을 이용하는 영국의 사회적기업 임팩트아츠(www.impacrarts.co.uk), 호주의 여러 지역에서 다문화 예술가들에 기초한 수공예·공연·교육사업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사회적기업 발전소 비맥(www.bemacpresents.org.au) 등, 좀 더 기발하고 색다른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이들의 공통된 방향성은 맞춤형 지역 거버넌스의 청사진 속에 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기업이 전략적으로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해 이종의 영역 및 주체와 융합하면서 지역의 가치 사슬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지역재생의 혁신적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경지면 문화, 예술, 사회적기업 등이 따로 논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중앙부처의 정책 의지는 물론 특히 광역권 지방정부나 문화재단의 공적 자산과 자원을 제3섹터나 중간지대로 이관하는 전향적 제도 운영 등으로 CSR의 전략적 지역 사회공헌을 고민하던 기업들에게 확실하고 꾸준한 신호를 보낸 것이 주효했다.

한꺼번에 통으로 푸는 상생 방정식

이 점에서 우리 사회의 각계 주체가 처한 현주소를 보면 아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이 늘 호경기에 꽃을 피우고 불경기에 낙엽이 지는 게 아닌 한, 문화예술계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 올리는 주연만 고집하지 않는 한, 하루살이나 다달이 살림의 빠듯한 현실에 충실했던 그 강인한 자세로 연단위마다 뚜렷한 변태와 혁신을 일궈낼 긴 호흡을 먼저 갖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어쩌면 문화예술과 사회적기업의 방정식에 공식과 정답이 없어서 고민스러운 지금이 호기일지도 모른다. 최소한 이 모순적이고 도전적인 화두는 기존의 문화마케팅이나 예술경영 담론보다 최소한 문화예술 종사자와 지망자들에게 조직의 실존을, 기업의 방식을, 지역의 전망을 한꺼번에 느끼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 말대로 혁신은 천천히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사회가 한꺼번에 단숨에 혁신되어서가 아니다. 혁신가는 늘 한꺼번에 통으로 문제를 다루면서 통으로 해법을 재발견하는 체질과 관성을 만들기 때문에 혁신도 결국 그의 사고와 행동방식처럼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까닭이다. 문화예술계와 사회적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 같다. 아니 문화예술의 예외적이고 창의적인 특수성은 이런 데에 쓰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시원한 시상

낮잠 자기 좋은 오후, 파란 하늘을 유영하는 물고기 떼.
바람 따라 꼬리를 흔드는 모습은 꿈속에서나 볼 수 있지 않을까.
뜨거운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헤엄쳐 가라!

세종문화회관 아트기든 〈물고기의 꿈〉

사진 · 글_최성열

소셜 네트워크 권하는 사회에서 왜 더 외로울까

〈SNAP: Social Network Art Project〉

아직 공부 중인 친구들이 있어서인지 대학 때 친구들 중 해외에 나가 있는 친구가 많다. 몇 안 되는 친구들이지만 졸업 후에는 다 함께 모이지도 못한 채 강산이 변한다는 세월이 훌쩍 흘렀다. 각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울고 웃는 생활을 하는 한편,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온라인상에 커뮤니티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최초에는 F사의 커뮤니티를 쓰다가, 유료화된 후에는 D사의 카페로 갔다가, 지난해에는 드디어 2010년의 대세를 따라 해외 F사의 그룹페이지로 이사했다. 기존 사이트에 오랫동안 이야기한 자료와 사진이 쌓여 있지만, 그냥 포기한 채 또 새로운 터전을 찾아 옮겼다. 다른 그룹들에서도 유사한 대이동이 몇 차례 있었다(그리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 있을 것이다.). 아마 2011년 서울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사한 대이동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도토리가 필요했던 곳에서, 행복한 쿵이 있는 곳에서, 또 앞서 말한 해외 F사의 답변락으로 등등.

대화를 나누는 메신저도 역시 몇 차례의 유행이 지나갔다. 온라인상에서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와 소통을 도와주는 서비스는 온라인의 등장과 함께 계속 변화·발전해왔는데, 단절

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주는 긍정적인 효과의 이면에는 소위 '신상털기'라 말하는 개인정보와 사생활 유출이라는 위험이 내포하고 있다. 한두 가지의 정보만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을 금방 찾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환경이 확산되면서 최근의 SNS 서비스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이 사회 속에서 생활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된다. 정보교류와 사교의 장에서 소외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귀찮더라도 자신의 정보를 내어주고 상대방의 정보를 계속 접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얼굴 마주 보고 눈 마주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신나게 웃어가며 대화하기를 꿈꾸지만 쉽지 않은 일상, 끊임없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사진도 올리고 소식도 올리고, 또 지인들의 일상을 슬쩍 훑쳐보면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한다.

AG 갤러리의 〈SNAP: Social Network Art Project〉는 우리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연결되었다는 허상을 갖게 하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작품들을 소개했다. 처음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처럼 최근 트렌드가 된 사회 현상을 다룬 작품들을 소개하려는 시의성에 집중한 전시일 것으로 생각했으나, 핫이템인 Social Network Service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social)'의 의미, 다음으로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 또 '사회적 네트워크 아트(Social Network Art)'라는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1-2 전시장 모습.

서로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

Social network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강지연과 장근희의 〈당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 가이드〉와 〈Chasing K〉이다. 〈당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 가이드〉는 페이스북 사용법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동영상이다. 고백컨대 필자는 처음 페이스북 페이지를 접했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었는데, 웹에 의외로 ‘페이스북 시작하기’ 같은 안내 페이지가 꽤 많이 등장한다. 이 안내 페이지들은 그간 한국에서 대세를 이루었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대부분 국내 회사들의 개발품목인 반면, 미국에서 개발된 이 페이지에 쉽게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뜻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렵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압박을 주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자못 진지하게 인터넷 페이지 사용법을 안내하는 영상을 보고 있노라면, 사회적인 연결망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그려져서 씁쓸한 기분마저 든다. 〈Chasing K〉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케이블 TV의 추적 프로그램처럼 〈Chasing K〉는 K라는 인물이 실시간으로 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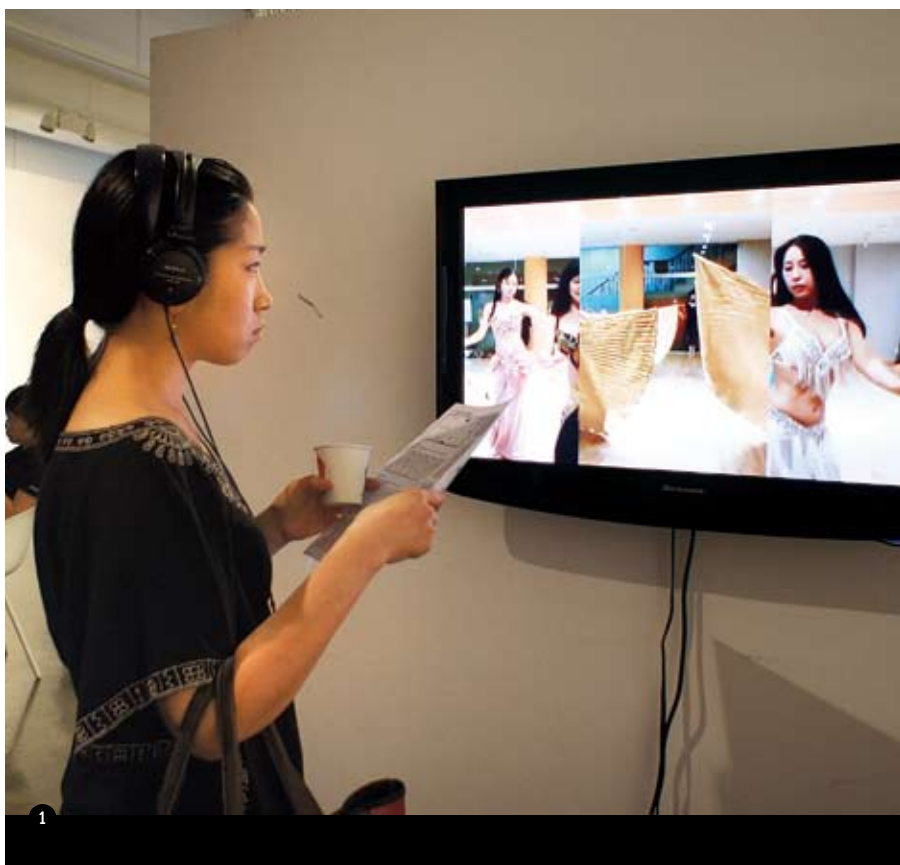
스북에 올리는 정보를 단서로 하여 그의 뒤를 쫓는다. 마치 탐정놀이를 하듯 학원과 헬스장, 커피숍 등으로 쫓아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멋진 카페에 갔을 때나 맛있는 음식을 접했을 때,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을 때 올리는 ‘인증샷’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가 얼마나 잘나가는지,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지를 노출하려는 욕망과 어우러져 SNS는 많은 사람을 노출증 환자로 만드는 동시에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을 거대한 관음증 환자 집단으로 만든다. 예전에는 전혀 접하지 못했던 연예인들의 사생활(더 정확하게는 그들이 사생활이라고 보여주는 일상의 단편)을 훑쳐볼 수도 있으며, 팬레터를 쓰지 않는 한 접하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간단하게도 ‘댓글’로 내 마음과 반응을 전달할 수도 있지 않은가. 마음만 먹으면 몇 가지 정보만으로도 생면부지의 타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만큼, 과장된 동작으로 K를 미행하는 화면 속 인물들의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온다.

모니터 옆에 비치된 책자에서는 몸짱이 되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는 〈Chasing K〉의 주인공 K가 인터넷 몸짱(되기) 카페에 올렸을 법한 글이 모여 있다.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때조차도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를 격려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이용한다. K는 매일 멋진 몸매를 위해 다짐을 하고, 식사일기를 쓰고, 혼자서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운 과제를 카페 회원들의 격려와 감시 속에서 수행해나가는 것이다.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에게만 밝히고 해도 될 일을 우리는 굳이 실제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타인과 함

게 시도한다. 전화와 이메일, SMS 메시지 등 다양한 통신수단이 공존하는 지금, 사람들은 의외로 가장 직접적인 통신수단인 전화보다 오히려 거리감과 시간차가 존재하는 통신수단을 선호하기도 한다.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고 싶을 때 덜 직접적인, 그래서 부담이 덜한 수단을 택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끄럽거나 자신 없어서 공유하지 못하는 마음, 다짐, 좌절 등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아도 될 상처가 되는, 느슨한 공동체 속에서 풀어놓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에게 무관심한) 생면부지의 카페 회원이 운동을 빼먹거나 폭식을 했다고 해서, 넌 왜 그리 의지가 박약하냐며 야단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다. 인터넷 카페 특유의 과장된 찬사와 난무하는 느낌표와 감탄사들은 서로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가 필요한 이들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다. 인터넷 카페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격려와 공감, 반성의 리스트들은 현대 사회에서 때로 직접적인 관계보다 간접적인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우리의 새로운 관계맺기 방식을 떠올리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흥미롭고 강렬했던 작품은 약속을 하고 만났거나 두 번 이상 만난 사람들의 리스트를 지도처럼 보여준 작품이다. 소셜 네트워크의 아날로그 버전이라 할 이 작품은 작가가 지난 몇 달 동안 두 번 이상 만났거나 약속을 하고 만난 사람들의 목록을 종이에 손글씨로 쓴 것이다. 가족과 직장 동료를 제외하면 아무리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약속을 하고 만나거나, 두 번 이상 만나는 일은 정말 쉽지 않다. 단기간에 두 번 이상 만나려면 정말 관심이 깊어야 할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 실제로는 친하지 않은 사람도 다 친구로 만들어주는 온라인상의 '친구'나 '이웃'과 달리, 사람들 이름이 크고 작은 글씨로 쓰인 이 목록은 거품 없이, 누구와 함께 이 계절을 지내왔는지를 보여주는 꽤 정확한 지표가 된다.

문득 다이어리를 펴보았다. 나는 누구를 만나러 갔던가. 누가 나를 만나러 왔던가. 안부 메시지나 댓글로 대신하지 않고, 일부러 시간을 들여 찾아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은 누구인가. 실제로는 약속을 하지 않아도 자주 보는 사람이 많다. 직장의 동료들도,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주 볼 수밖에 없다. 그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지금은 자주 보지 못하지만 한 때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느슨한 연대를 이어가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에도 소홀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인의 '사회생활'이다.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도 '적절한 애정과 관심, 관계유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유지 가능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면 말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양한 심



리적 거리와 구속을 형성하는 복수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한다.

소리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 이야기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를 표현한 또 다른 흥미로운 작품은 이진아의 〈Ensnarl_html〉이다. 평소 투명 파이프에 텍스트를 인쇄하는 작업을 해왔던 이진아는 자신이 소셜 네트워킹을 하면서 생긴 기록들을 html로 변환하여 손으로 한 자 한 자 썼다. 손쉬운 과정을 번거롭고 수고스러운 과정으로 옮기고, 무형의 네트워크를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은, 쉽고 빠르게 연결되는 네트워크에 정반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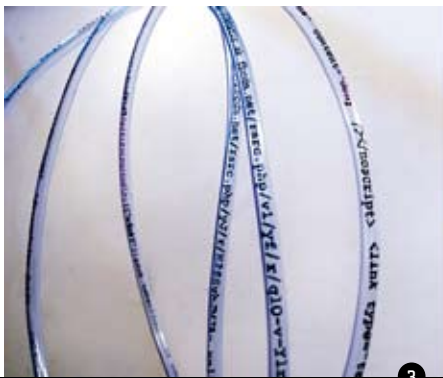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소셜 네트워킹이라는 사회현상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작품들이 소개되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할 뿐 아니라, 단순히 SNS 서비스를 소재로 삼은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SNS를 통해서 드러나는 현대인의 관계 맺기 전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다. 다만 일부 작품들은 풍부하고 다양한 접근이라고 이해하기에도 다수 무리가 있는 점이 아쉬웠다. 이는 이 전시가 주제와 콘셉트에 맞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보여준 것이 아니라, 전시에 참여하기로 한 작가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서 기획에 대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발씩 앞으로 나와 공감대를 찾으면서 만든 전시과정에 따른 것이 아닐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소셜 네트워



1·2 전시 관람 모습.

3·4 이진아 / Ensna1_html / Hand print on transparent pipe / net_Dimensions available / 2011.

5·6 이민 / 마이너리티 리포트 / 초대되지 않은 시민 편 / 단채널 비디오 / 2011.



크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각기 다른 입장들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작품들은 아무리 주제와 연결 지어 생각하려고 해도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주제의 명확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이 의견을 교류하면서 꾸준히 전시 주제에 대해 고민한 과정은 의미 있는 시도일 수 있으나, 전시의 결과물이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성공에 불과할 것이다.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다양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시도되고 있고, 전시의 기획 및 홍보 과정에서 SNS를 적극 활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다. 앞다투어 홈페이지와 블로그, 미니홈피를 만들던 미술관들도 홈페이지에 트위터와 페이스북 아이콘을 줄줄이 붙여놓는다.

서로의 살림살이까지 속속들이 알게 마련인 작은 마을에서는 신문도, 전화도 필요 없었다. 소식이라는 것은 서로의 얼

굴을 보면서, 또 말을 통해서 직접 전달되니까. 지금,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가 난무한다는 것은 시끄럽게 소리치고 외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고,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타인들'이라는 것이다. 어쩌면 서로 잘 아는 친구들끼리 전시를 만들 때는 따로 폐북을 이용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만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은 더 짧은 시간에 만나고, 우리 할머니가 평생 방문했던 곳보다 더 많은 곳을 더 짧은 인생 동안 다니고 있다. 속속들이 아는 소수의 사람들과, 구석구석 살살이 아는 작은 동네에서 살던 과거처럼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더 넓게, 더 바쁘게, 더 멀리 사는 더 많은 사람과의 느슨한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부담스러워하면서, 때로는 경탄하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소셜 네트워크에서 질문을 던지면 '친구'들이 답변을 달아주겠지만, 웬지, 보고 싶었던 친구 만나러 가서 한바탕 시원한 수다를 떨고 싶어졌다. <SNAP>는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상하게도 전시에서 본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분주하고, 사실은 섬처럼 고립된 우리 자신들 같다고.

이 글은 서울문화재단의 '예술평론활성화지원사업'을 통해 선정, 지원하는 평론가가 '2011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 작품을 대상으로 한 현장평론입니다.

글_이수정 대학에서 미학을, 대학원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면서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2009) <Long Live Drawing!-디지털 시대의 드로잉>(2008)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했다. 월간미술 대전통신원, 부산 오픈스페이스 객원큐레이터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아트센터 나비 전시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Review

대학로의 낭만 속으로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극투어

“여기에 예전에는 개천이 있었던 것 아세요? 서울대 학생들은 센강이라 부르면서 대학로의 낭만을 즐겼다고 해요. 지금은 막아버려서 없어졌지만요. 여러분이 연극을 사랑하지 않아 이곳을 찾지 않으면 점점 대학로 특유의 낭만도 사라질 거예요.”

7월 24일 낮 12시, 대학로 서울연극센터 1층 강의실 안에 40여 명의 청중을 앞에 두고 대학로의 베테랑 배우 길해연 씨가 마이크를 잡고 연극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있었다. 올해 대학로의 대표 극단인 작은 신화의 25주년을 맞아 8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랐던 연극 <똥날>에서 경주 역으로 열정적인 연기를 펼쳤던 그

길해연 배우였다. 무대 밖에서 자연인으로 돌아온 길해연 씨의 모습은 생소하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졌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대학로에서 연극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청중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손을 드는 것을 보고 그는 “대학로에서 좋은 연극을 많이 공연하는데, 코믹물이나 성인 연극에만 관심이 몰리는 것이 대학로의 슬픈 현실이다. 오늘 나와 함께 대학로의 진짜 모습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서울연극센터가 운영하는 ‘대학로연극투어’가 막 시작됐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연극센터가 2008년 3월부터 시작해 운영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공연 마니아들 사이에서 한번쯤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연극센터 홈페이지(www.e-stc.or.kr)를 통해 신청을 받아 매 회 참가자 25쌍(50명)을 선정하는데 참가비가 1만 원으로 저렴한 데다 내용도 알차다고 소문이 나 경쟁률이 높을 때는 20대1에 이른다.

무대의 이면을 보다

연극투어 사회자이자 길잡이인 길해연 씨가 앞장서 참가자들을 이끌고 프로그램의 첫 일정인 ‘백스테이지 투어’ 장소로 향했다. 안산에서 여동생과 함께 이날 프로그램에 참가한 정해선 씨는 신

1·2·3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학로연극투어는 이제 공연 마니아들 사이에서 한번쯤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이 난 모습이었다. 정씨는 한 달에 연극과 뮤지컬을 합쳐 세 편 이상을 보는 공연 마니아다. “오늘 정말 기대가 돼요. ‘배우와의 만남’도 기대되지만 매번 앞에서 보기만 했던 무대의 이면이 항상 궁금했거든요.” 백스테이지 투어 장소는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참가자들에게 길해연 씨는 “예전에는 이곳의 이름이 문화예술회관이었다. 연극하는 사람들은 이곳 대극장 무대에 오르는 게 꿈이었다”고 소개했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는 가수 양희은 씨의 데뷔 40주년 기념 뮤지컬 〈어디만큼 왔니〉가 공연 중이었다. 오후 3시 공연을 준비하느라 무대 뒤편을 공개하기는 어려워 대신 기술 스태프들이 무대를 만드는 기술적인 부분을 소개했다. 극장 조명을 담당하고 있는 스태프가 먼저 나와 조명기구에 대해 설명했다. 설치 방법, 조명의 포커싱, 메모리 시스템, 줌 라이트 등 조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직접 시연도 보여줬다. 조명기가 공연 때마다 300~500개 사용된다는 설명에 참가자들이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음향 시스템, 무대 장치에 대한 소개와 설명이 이어졌다.

프로그램의 백미는 ‘대학로연습실’에서 이루어진 배우와의 만남. 이날의 주인공은 지적인 배우로 손꼽히는 중견 연극배우 남

명렬 씨였다. 공연 담당기자에게도 남씨의 살아온 이야기는 흥미로웠다. 대학 졸업 후 제약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일, 그러다 33세에 직장을 박차고 나와 무작정 연극을 시작한 일, 퇴직금으로 받은 전 재산을 사업을 하다 모두 날린 일, 과학 연구 〈코펜하겐〉의 어려운 과학자 같은 지적인 역할을 맡을 때마다 참고자료를 찾아 읽는 등 갖은 노력을 한다는 등의 얘기였다. 청중의 표정이 자못 심각해지자 사회자가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어느 조사에 따르면 연극배우의 행복지수가 90%였고 다음 생에도 연극배우를 하겠다는 사람이 99%였대요.” “와!” 하는 감탄사와 함께 청중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일반인은 잘 모르는 무대 얘기도 흥미로웠다. “공연을 시작하면 이상하게 이틀째 작품이 불만족스러워요. 첫날은 긴장해서 좀 뻑뻑하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긴장이 조금 풀려 더 잘되어야 하는 이틀째 공연은 항상 망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외국에서 온 배우들한테도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남명렬 씨는 얘기를 마치고 청중에게 질문을 받았다. 부인 양영미 씨와 함께 참가한 이기연 씨는 “배우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냐”고 물었다. 남명렬 씨는 “역시 자기가 좋아하고 다른 사람도 잘한다고 하는 일은 꿈꿔볼 만하지 않겠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능이 따르지 않으면 길을 많이 돌아가게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참가 인원과 횟수 늘렸으면

이제 남은 일정은 연극 관람. 하지만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관람하기로 한 연극 〈더 라인〉 공연까지 시간이 좀 남아 중간에 대학로에 있는 ‘싯대박물관’ 견학을 공연 관람까지 5시간이 넘는 일정을 소화한 참가자들의 표정은 다소 지쳐 보이면서도 밝았다. 남명렬 배우에게 질문을 던졌던 이기연 씨는 “배우들의 연기에 대한 열정에 감명받았다. 이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격려해줄 생각”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대전에서 왔다는 이윤자 씨는 “좋은 공연도 보고 배우도 만나는 기회가 드물기 때문에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참가를 권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라며 “지금보다 참가 인원과 횟수를 늘려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길해연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 프로그램 사회를 맡아 1년 반 정도 해왔다. 연극을 알리는 일이라 애착이 많이 간다. 지방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온 어머니와 딸이 생각난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야 알았다’며 눈물까지 흘렸는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다”고 하며 웃었다.



글_김성규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스포츠 전문 기자를 꿈꿨지만 올해 초, 문화부로 발령이 나 덜컥 공연 분야를 맡게 됐다. 극본 없는 드라마를 취재했지만 지금은 극본 있는 드라마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BMW 오토바이 라이더. 바퀴 달린 건 모두 좋아한다.

사진_손홍주 '세상은 이쁜 사진 같아'라는 책의 제목만 정해놓고 단 한 글자도 쓰지 않은 사진가. 할 줄 아는 것은 사진뿐.

Review



젊은 예술을 응원합니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1

8월 11일부터 27일까지 펼쳐진 제14회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은 올해에도 어김없이 홍대 앞을 뜨겁게 달궜다. 1974년 영국의 에든버러와 프랑스 아비뇽에서 시작된 프린지 축제의 '프린지(Fringe)'는 '주변부', '변방'을 의미한다. 주류 엘리트 예술축제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예술방식을 탐험해나가는 젊고 도전적인 축제다.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가 넘는 프린지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 서울에도 이 같은 축제가 1998년부터 시작됐는데, 대학로를 무대로 펼쳐졌던 '독립예술제'가 그것이다. 대학로에서 3년, 현재의 홍대 앞에서 10년을 거쳐 열네 살 지금의 프린지페스티벌이 되기까지 그 뒤에는 늘 열정적으로 활동한 젊은 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있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홍대 인근의 극장, 카페, 클럽, 골목, 놀이터, 공원은 예술가들의 목소리와 몸짓으로 가득 찼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지하철역이다.

2호선 홍대입구역에 유치원생의 노란 모자를 쓴 배우들이 나타나 귀여운 춤을 춘다. 공연을 알고 온 사람도, 모르고 멈춰선 사람도 손뼉을 치거나 추임새를 넣으며 즐긴다. 다음으로는 양복을 입은 남자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춤을 통해 사랑에 빠진다. 마치 지하철역에서 방금 만나 사랑하게 된 것 같다. 사람들에게서 호응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공연은 바깥으로 이어졌다. 거리에서는 지하철 청소부와 관리원이 손을 맞잡고 입맞춤을 한다. 이어서 출연진 모두가 한바탕 춤을 춘다. 일상의 공간을 귀엽게 뒤집는 이 퍼포먼스는 프로젝트 홀릭의 〈입맞춤(Metro Kiss)〉. 찌든 일상이 판타지로 인해 잠시 활기가 돈다.

성미산마을극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남 담양을 배경으로 한 사월 상순의 연극 〈낭만특구〉에는 네 명의 대나무가 등장한다. 이들은 각자 딱딱비집에 팔려가고 싶고, 국악특구로 옮겨가 악기가 되고 싶고, 사랑을 하고 싶고, 인생지침서의 조언대로 잘 살아가고 싶다. 하지만 대나무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 지역은 습지 특구로 지정되었다가 또 금세 갈아엎을 장소가 되고 만다.



이들은 아름답게 음악을 연주하기로 한다. 몰래 담배를 피우던 학생, 결혼 앞에서 갈등을 겪는 남녀, 인생의 아름다움을 깨달은 노년 부부가 이들의 무대를 차례로 거쳐가며 공연의 관객이 되어 준다. 현재를 무한히 긍정하면서도 내일에 닦친 소멸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들의 모습이 관객의 마음을 찡하게 한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공사를 하며 없애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일 부임을 말해주는 연극이기도 하다. 담양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것이 신선하다.

비가 마구 쏟아지는 저녁, 홍대 놀이터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다. 우리 소리 공동체 소리슬래가 돗자리를 깔고 전통 판소리의 눈 대목을 공연했다. 춘향가의 이별가, 흥보가의 박타는 대목, 심청가의 심봉사 눈 뜨는 대목, 수궁가의 토끼 배 가르는 대목, 적벽가의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프린지 축제에서 그것



- 1 더 팩토리 <허무한 축제>
- 2 프로젝트 홀릭 <입맞춤>
- 3 花:Lean-TheFlowerChildren Project <앨리스, 깨어나지 않는 영혼>

장감을 살리고 포스트극장의 벽에 영상을 비춰 앨리스의 우울과 강박증을 시각화한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의 앨리스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유는 앨리스의 연기 속에 늙고 어리고 젊고 생기 있고 지치고 예민한 여러 자아가 한데 녹아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앨리스의 세계에 바닷바람이 불고 침대는 배가 된다. 지성은 뱃머리에, 유혹과 복수는 배의 양쪽에 서고, 사랑은 앨리스와 함께 배 위에 타고서 항해를 시작한다. 수전 손택의 원작에서는 앨리스가 다시 잠든 건지 깨어나는 건지 모호하게 처리돼 있지만 이번 공연은 '깨어남'에 초점을 맞춰 마무리한 것이 인상적이다.

프린지 여행의 둘째 날, 관광안내소 앞에서 아바위판이 벌어졌다. 시끌벅적한 가요메들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동전을 종이 판 위에 던지며 놀이를 하는 사람들. 한 소년은 이 놀이가 재밌었는지 엄마에게서 계속 동전을 받아가 주변 사람들을 웃게 했다. 이 퍼포먼스는 다른 곳에서 공연을 시작한 다른 배우들과 합쳐지면서 경쾌한 춤으로 바뀐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관객이라면 더 팩토리 <허무한 축제>의 마지막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제 아니더라도 지나가다가 만나고, 걷다가 멈추어서 본 그 시간만큼 프린지 축제의 거리공연은 관객들과 함께한다.

이 밖에도 미래의 우주탐사선 세종호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사건을 통해 인간의 외로움을 우주 공간으로 형상화한 극단 미로의 <특명 157>, 견해와 정열의 대립, 책과 꽃의 갈등을 품고 있는 부부의 문제를 희한한 탐정이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그린 배우연구소 true의 <퍼블릭 아이>(피터 셰퍼 원작) 등 여러 편의 개성 있는 공연이 프린지페스티벌을 장식했다. 아나야, 살롱 드 마랑 등의 카페를 활용하는 예술가도 작년부터 많아져서 다양한 공간에서의 작업을 주선하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의 장점이 더욱 부각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누구나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오픈 스테이지 잔잔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예술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는 누구나를 응원하는 이 축제를 생각하며 시원한 저녁 바람과 함께 여행객은 미소를 지었다.

도 홍대 놀이터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서로 장단을 맞추는 소리꾼과 고수의 모습을 비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소음 때문이었을까, 오히려 판소리가 온몸으로 내는 소리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지나가다 만나고 걷다가 멈추어서 보는

포스트극장에서는 <앨리스, 깨어나지 않는 영혼>이 공연됐다. 2009년 창단한 花:Lean-TheFlowerChildren Project가 수전 손택의 원작 <앨리스 인 베드>를 각색해 구성한 이 공연은 침대와 소파, 커다란 거울과 빈 액자, 벽돌, 창이 넓은 검은 모자 등으로 인물의 내면을 그리고 악몽처럼 펼쳐 보인다. 라이브 연주로 현

Review



이 요상한 포스를 보라

카툰 판소리 〈날아라 에코맨〉

포스터만 봐서는 감히 국악공연이라고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요상한 포스의 〈날아라 에코맨〉 공연이 8월 4일부터 7일까지 5회에 걸쳐 홍대 가톨릭 청년회관 씨와이(CY)씨어터에서 열렸다. 서울 문화재단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선정작인 이 작품은,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창작 판소리 공연으로 어린이들에게는 환경 오염에 관한 메시지를 재미있게 전달했고, 어른 관객들에게는 시대적 문제를 부각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익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날아라 에코맨〉은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진 뮤지컬 연출가 오미영과 입담 좋은 판소리꾼 김봉영, 뮤지컬 작가 오준석과 오미영, 그리고 작곡가 김승진의 공동 작업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국악공연이다. 이들은 지구가 걱정될 만큼 더웠던 지난해 여름, 전주 세계소리축제 ‘창작인큐베이팅’을 통해 새로운 판소리를 만들어보고자 만났다. 그들은 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찾다가 너무나 더웠던 그해 여름 이야기를 담은 〈날아라 에코맨〉을 만들었다. 판소리는 소리꾼 혼자서 극을 이끌어가는 1인 음악극으로 그 안에는 다양한 장단과 소리가 존재한다. 무대와 객석의 벽이 없으며, 심지어는 관객의 추임새가 공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얼마나 매력적인 장르인가? 이번 공연 〈우루사를 찾아서〉와 〈북극곰의 눈물〉, 그리고 〈날아라 에코맨〉에서는 세 개 부분으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형태의 판소리 콘서트를 시도했다.

어쩌다 지구를 지킨 에코 판소리 〈날아라 에코맨〉 속에는 상상을 초월한 사건전개가 있으며, 현실과 전통판소리의 사이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깨알 같은 재미가 젊은이들의 팔딱팔딱한 언어로 펼쳐진다. 관객들의 정신을 홀랑 빼앗는 일등공신은 바로 소리꾼이다. 잠시도 딴 생각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소리꾼 김봉영의 폭풍 에너지도 크게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김봉영은 재주와 실력만큼 욕심도 많은 소리꾼이다. 지난해 삶과 죽음의 희로애락을 보여준 유쾌한 음악사극 그림(The 林) 〈몽유록〉에서 너스레를 떨던 이야기꾼 김봉영의 존재감을 기억한다. 동아일보 국악콩쿠르 입상자인 김봉영은 현대음악에서도 정교한 소리꾼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1



2

1·2 〈날아라 에코맨〉은 카툰 영상과 신나는 밴드 연주를 더했다.

3 소리꾼 김봉영이 간경화 진단을 받은 제약회사 과장으로 등장하는 〈우루사를 찾아서〉.

소리꾼 김봉영은 〈우루사를 찾아서〉와 〈날아라 에코맨〉에서 크게 활약했다. 간경화 진단을 받은 제약회사 현무용 과장으로 등장하는 〈우루사를 찾아서〉에서는 심란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해물탕에 소주를 들이켜다 잠이 들어 꿈속에서 시공을 초월해 여행을 한다. 남해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북극에 사는 곰 우루사의 간을 찾아 나선다. 수궁가를 패러디한 대목을 능청맞게 소화하는 김봉영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다. 〈날아라 에코맨〉에서는 무더운 여름 옥탑방 김백수로 등장한다. 더위에 지쳐 꾸벅꾸벅 졸다 꿈을 꾸는데, 알고 보니 백수가 지구를 지키는 에코맨이라는 것이다. 김봉영이 작창(作唱)한 노래도 박진감 넘치고, 감동과 재미로 관객을 요리하며 판을 휘잡는 김봉영의 탁월한 능력이 유감 없이 발휘된다.

어쩌다 지구를 지킨 에코 판소리 〈날아라 에코맨〉은 판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미있는 카툰 영상과 신나는 밴드 연주를 더했다. 작곡과 음악감독을 담당하고 키보드와 멜로디온, 코러스까지 자청한 김승진의 재발견이다. 그룹 이스터녹스의 멤버이자 전주소리축제 로고송 작곡가인 김승진은 편안하게 아무렇게나 부르는 듯 보이는 소리꾼의 소리를 정확하게 잡아내어 키보드에 신명을 더하며 천재음악가의 음악성을 발휘했다. 그녀 때문에 즐겁



고 유쾌한 창작판소리의 완성도가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백수로 분한 김봉영의 구박을 받으며 연기자로 한뫼한 드림의 장태순은 이스터노크스의 드러머이고, 구본웅은 영화배우이자 기타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이들의 감초 연기도 맛깔스러웠다.

판소리의 파격 변신

판소리는 전문적인 수련이 필요한 예술음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판소리의 뿌리는 민간예인집단의 음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줄타기를 비롯해 꼭두각시놀음, 판놀이 등과 함께 흐드러지게 놓고 난 후 소리판을 벌이고, 백성들의 민감한 사안을 노래로 부르며 가려운 곳을 긁어주면서 시작된 것이 판소리의 기원이다.

대본과 연출을 맡은 오미영은 탄탄한 대본과 맛깔스러운 대사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자연이 아닌, 인간과 자연이 함께 오래 오래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에코 패러다임을 이야기한 판소리가 갖고 있는 사회 고발의 영역을 적절히 그리고 재미있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작가로, 연출가로 큰 역할을 한 오미영의 능력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다. 〈날아라 에코맨〉은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

제 중 하나로 부각되는 환경오염에 대해 노래했다. 평범한 백수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가족 그리고 전 세계의 이야기까지, 옥탑방에서 바다 속 용궁을 지나 저 먼 북극까지.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이 어렵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때로는 신나고 유쾌하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이 공연의 경쟁력은 재미있다는 것이다. 결코 쉽지 않은 '지구 온난화'라는 사회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깊이와 감동, 웃음, 음악적 기승전결 등을 갖추고 판소리로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 평소 접하기 어려워 판소리를 멀게만 느꼈던 관객들에게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다. 두 번째 에피소드 〈북극곰의 눈물〉은 감각적인 영상이 돋보인 점이 장점이라면, 소리꾼 류가양의 노래와 연기는 호호도 여유도 부족했다.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단점이다. 분홍빛의 한복도 북극곰을 표현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은 듯했으며, 반주 음악과의 음정관계, 무대에서의 소리꾼의 에너지 등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Paris
& Chalon

‘벽을 넘어선’ 축제 이야기

오를레뮈르 & 샬롱거리예술축제



파리 11구 리퍼블릭 광장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오를레뮈르(Horslesmurs, ‘벽을 넘어서’라는 의미)는 1993년에 창립되어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정보교류, 연구, 홍보, 출판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문화부로부터 약 70%의 예산을 지원받고, 14명의 상근직원이 있는 적지 않은 규모의 기관이다. 오를레뮈르가 탄생한 1990년대 초반은 중앙정부가 거리예술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시기이다. 거리예술 창작단체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제작공간 운영에도 관심을 갖고 필요성에 공감해 표했으며, 일부 공간들은 90년대 중반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오를레뮈르라는 기관의 존재와 유지에 대해 초기에는 단체들의 자발성에 기인한 측면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현대예술에서 주류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리예술이란 장르, 혹은 표현 형식에 중앙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지원한다는 사실은 부럽기만 하다.

오를레뮈르는 무엇보다 자료센터로서의 기능이 강하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일단 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자료가 눈에 들어온다. 오를레뮈르가 자료를 다루는 데 있어 흥미로운 사실은 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를 저술만큼이나 중시한다는 점이다. 오를레뮈르는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출판활동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 연감 형식의 서적인 <골리앗(Goliath)>은 천여 개의 창작단체와 300여 곳의 축제, 창작공간, 관련 단체와 기관의 색인이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2006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계간지 <스트라다(Stradda)>는 거리예술과 서커스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심층연구 잡지로 현재 유럽에서 이슈화되는 이야기를 엿볼 수 있다. 출판사와 연계하여 해마다 전문서적을 발간하는데, 거리예술 창작단체와 축제를 중심으로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유럽과 프랑스 거리예술의 역사, 거리예술의 미학적인 접근과 정책적인 지원과 관련해 대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유럽과 프랑스의 거리예술 단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이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아직 국내의 거리예술이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거리예술의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한 모델을 확인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



- 1 살롱거리예술축제의 모습.
- 2 오를레앙에서 열린 거리예술축제 세미나.
- 3 살롱시의 국립거리예술센터, '도축장(L'Abattoir)'.

거리 예술의 전시장, 살롱거리 예술축제

살롱시는 프랑스 중부에 위치한 인구 5만6,000의 중규모 도시이다. 중세의 유적을 간직한 구시가지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운치와 향기가 저절로 풍겨난다. '예술공간(Espace des Arts)'이라는 국립무대를 중심으로 60여 개에 이르는 문화예술관련 단체가 활동하고 있고, 도시의 역사와 전통의 계승에서부터 현대예술에 대한 다양한 관심 등 살롱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는 왕성하다. 살롱시의 거리예술 축제인 '살롱의 거리에서(Chalon dans la rue)'는 198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다. 살롱축제는 5일의 축제 기간 동안 180개의 공연단체가 약 1,260회의 공연을 선보이고 평균 22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거리예술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다. 공식초청작(IN, 약 20작품)과 자유참가작(OFF)을 적절히 배분하여 축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도보로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도심 전체에 약 80개 공간을 공연장으로 활용한다.

살롱거리예술축제의 공식초청작은 거리예술의 새로운 경향을 읽고 한 해의 거

리예술 창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장이다. 현재 거리예술의 독창성과 다양성을 드러내고 미래의 도시예술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최근 살롱축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약 10곳의 특정 테마를 가진 공간을 운영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인형극, 저글링, 광대극 등 유사한 장르, 테마, 콘셉트 등을 가진 소규모 자유참가 단체들이 공동으로 하나의 분리된 공간을 운영하며, 이 공간에서 번갈아 공연을 선보이고 공연홍보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주로 건물들로 둘러싸인 안뜰이나 학교의 야외 놀이공간 등을 사용하는데 테마에 어울리는 설치물을 전시하기도 하고, 소규모 음식부스와 휴식공간을 운영하여 단체들의 수입에 보태 기도 한다. 애초에 자유참가 단체들의 자발적인 시도에서 시작된 공간운영이 축제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발전한 것이다.

축제와 함께 살롱의 거리예술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국립거리예술센터인 '도축장(L'Abattoir)'이다. 살롱시의 도축장은 1970년대 협소한 공간과 불결한 위생 때문에 이전한 시설을 1991년 거리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개조해 개관하면서 출발했다. 도축장은 세트 제작을 위한 아틀리에, 공연연습을 위한 스튜디오 등의 실내공간과 천막설치가 가능한 대지와 이동 공연에 적합한 골목길 구조의 야외공간으로 구성되어,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거리예술 작업에 알맞은 구조를 가졌다. 실제로 도축장은 지난 20년간 살롱축제뿐 아니라 거리예술의 창작에 커다란 기여를 했고, 거리예술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매개가 되었다. 살롱시의 거리예술 제작공간은 2005년 국립거리예술센터로 승격되어 문화부로부터 매년 약 6억 원(40만 유로)을 지원받고 있다.

올해로 25주년을 맞은 살롱거리예술축제는 2004년 신임 예술감독 페드로 가르시아(Pedro Garcia)가 부임한 이래 새로운 거리예술의 지형을 조심스레 탐험하고 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거리예술과 기존 예술의 경계를 허물려는 시도이다. 거리예술가로는 생경한 예술단체들이 공식초청작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더러는 예술과 삶의 경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새로운 표현 형식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경향은 살롱축제와 함께 주요한 거리예술축제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25주년을 맞이한 오리악국제거리극축제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작년 오리악축제는 거리극의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기존 예술의 반동에서 출발한 거리예술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궁금증이 증폭된다.



1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감독 겸 지휘자 앨런 길버트.
© Chris Lee
2 오프닝 나이트를 위해 뉴욕 필하모닉과 협연하는
미국 출신 소프라노 데보라 보이트.

New York

데보라 보이트와 함께

뉴욕 필하모닉 2011~2012년 새 시즌

● 뉴욕 필하모닉의 2011~2012년 새 시즌 스케줄이 9월부터 시작된다. 9월 21일에 뉴욕 필하모닉 음악 디렉터인 앨런 길버트(Alan Gilbert)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 출신 소프라노 데보라 보이트(Deborah Voigt)가 함께하는 오프닝 나이트콘서트 시즌의 시작을 알린다. 미국 현대 작곡가 바버의 음악과 바그너, 스트라우스의 음악이 연주될 예정이다. 공식 오프닝 나이트 전, 9월 7일과 8일에는 HD 영상과 뉴욕 필하모닉의 라이브 연주로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는 뉴욕 필하모닉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레너드 번스타인의 작곡으로 유명

하다. 9월 10일에는 9.11테러 10주년을 추모하는 뜻에서 무료 공연이 펼쳐진다. 앨런 길버트의 지휘로 뉴욕 필하모닉이 말리의 교향곡 제2번 <부활>을 연주한다.

9월 15일에는 안드레아 보첼리가 무료로 센트럴 파크에서 공연을 하면서 새로운 시즌의 앞길을 화려했게 비출 예정이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무료 공연 실황은 11월에 DVD와 CD로 출시될 예정이라 표를 구하지 못한 뉴욕객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 17일에는 앨런 길버트의 지휘, 배우 크리스토퍼 플러머의 내레이션으로 로렌스 올리비에의 영화 <헨리 5세>를 감상할 수 있다. 9월 21일의 오프닝 나이트를 시작으로 뉴욕 필하모닉 레지던시 바이올리니스트인 프랭크 피터 짐머만과 뉴욕 필하모닉의 현연, 데이비드 진맨이 지휘하는 모던 베토벤: 필하모닉 페스티벌, 현대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콘택트 페스티벌 등이 포진해 있다. 피아니스트 랑랑이나 엠마누엘 액스, 예뮬 브로프만,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 등 클래식 스타들의 연주도 콘택트 프로그램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뉴욕객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시피 뉴욕 필하모닉 콘서트의 리허설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정식 입장권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이들은 공개 리허설을 통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실제 공연과 다름없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이번 시즌에는 앨런 길버트가 지휘하는 말리의 <부활>,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모차르트 교향곡 38번, 드뷔시의 <이베리아>, 커트 마서가 지휘하는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3번,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등을 공개 리허설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뉴욕 필하모닉 홈페이지 www.nyphil.org

Berlin

섬세한 영혼의 아로새김

브뢰한 박물관 〈여성들의 은〉

일시 _ 10월 9일까지. 화요일~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_ Schloßstraße 1a 14059 Berlin
문의 _ www.broehan-museum.de

순은으로 세공한 설탕통, 커피잔 세트, 식기, 브로치 같은 가정 소품, 액세서리를 백화점이 아닌 박물관에서 구경한다면? 요즘 베를린에서는 이런 은세공 작품을 특별한 방식으로 만날 수 있다. 베를린 브뢰한 박물관(Broehan-Museum)은 섬세한 손길로 빚은 20세기 초 여성 수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여성들의 은(Frauen Silber)〉이라는 제목으로 10월 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1920~30년대 활동했던 독일 어권 여성 작가의 150점가량의 진기한 작품이 자태를 뽐낸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브뢰한 박물관의 소장품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타 박물관에서 빌려 모은 컬렉션이다. 이 여성작가들의 일대기도 강연, 전시 텍스트 등을 통해 소개한다. 이들은 제 1·2차 세계대전 사이에 개인 공방을 세워 금은 세공 작가로 활동했던 여성들이다. 전시회와는 별도로 열리는 관련 강연, 콘서트, 가이드 등 특별 프로그램을 끈다.

여성들이 전문직업 분야에 진출한 것은 1세기도 채 안 된 일이다. 공예수공업 분야도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긴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여성이 예술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일까? 독일어권 예술대학은 1919년에 와서야 공식적으로 여학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여성도 정식으로 화가, 조각가, 건축가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그중 여성작가들이 가장 두각을 보였던 분야는 수공예이다. 전시회는 최초로 금은 세공 장인시험을 통과한 1세대 여성들인 마그라 예스, 마르타 플뤼러해펠리, 엘프리데 베르발크를 비롯해 유태인으로서 파란만장한 삶을 겪었던 에미 로트, 파울라 슈트라우스의 작품과 생애를 소개한다. 이들은 뛰어난 디자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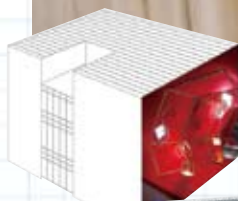


2

1 엘프리데 베르발크의 찻잔 세트.
2 슈트라우스의 브로치.

과 감각으로 두각을 나타내며, 남성 일색이던 당시 금은 세공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에미 로트는 이스라엘로 망명했으나 1942년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파울라 슈트라우스는 1943년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다.

브뢰한 박물관은 유럽을 풍미한 유겐트슈틸, 프랑스 아르데코 양식의 공예품과 1920~30년대 바우하우스 양식의 가구, 도자기 등 인테리어 소품, 회화 작품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상설 전시작품과 더불어 이번 〈여성들의 은〉 특별 전시회 작품들에서는 1920년대의 바우하우스 등 기능주의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유겐트슈틸의 잔재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문래예술공장 고양이 놀이터 만들기
작가 · 주민 워크숍 <고양이를 부탁해>

고양이야, 내가 만든 놀이터를 부탁해



누구나 함께 생활하게 된 고양이와의 인연은 특별하다. 나와 나의 고양이 '루' 또한 그런 특별한 인연이다. 집고양이였음에 분명한 흰색 털의 돌페이스 페르시안 고양이 '루'는 내가 꿈에 그리던 고양이는 아니었다. 윤기가 반지르르 흐르는 재규어 처럼 날렵한 단모종 검은 고양이나, 줄무늬가 아름다운 고등어 무늬 고양이가 평소의 로망이었다. 안양천 길거리에서 꼬질꼬질 방황하고 있던 주인 잃은 유기묘, 이 아이를 안고 온 형부를 보고 언니는 대뜸 "당신이 초동학생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그러나 한눈에도 보통 아이가 아닌 것 같으며, 그리고 집을 잃은 게 분명하다며 데리고 온 고양이를 본 순간 언니도 "주인 찾을 때까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받아들였다. 찾으려 노력했지만 나타나지 않는 주인 덕에 '루'와 나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원래 고양이를 싫어했던 자신마저도 폭 빠지게 만든 '루'를 언니는 사정상 키우지 못했고, 언니의 블로그에서 '루'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그 사랑은



〈고양이를 부탁해〉는 버려진 고양이를 키우는 영등포 지역 주민이나 영등포구에 소재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래예술공장에서 진행하는 워크숍이다.



©박보영

온몸의 털이 싹 깎여 있던 탓에 장모종 페르시안이 아닌 단모종의 흰색 고양이라고 착각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내 집에 온 ‘루’는 모령 11개월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나이가 들수록 온몸의 털도 길어졌다. 단모종을 키우리라는 꿈은 그렇게 사라져갔다. ‘사랑은 착각에서 시작하고,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 같은 것’이라더니 ‘루’와 나의 인연이 그랬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내가 ‘루’에게 더 많이 기대지 않나 싶다. 페르시안 고양이의 특성답게 ‘루’는 그다지 많이 움직이거나 활동적이지는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양이에게 ‘사색자’, 또는 ‘철학자’라는 별명을 붙이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루’ 또한 베란다나 창틀 위에 올라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낸다.

그런 ‘루’에게 캣타워를 사 주고픈 마음이야 말해 뭣하겠는가? 매일매일 온갖 캣타워 사이트를 뒤지고 돌아다니며 장바구니에 넣었다 버려곤 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갖가지 캣타워와 놀이터를 보며 그저 ‘가난한 엄마를 용서해라’는 말로 버티다가 어느 날은 정말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목공소에 가서 구조를 대충 설명했더니 ‘그런 거’는 안 만든다는 대답만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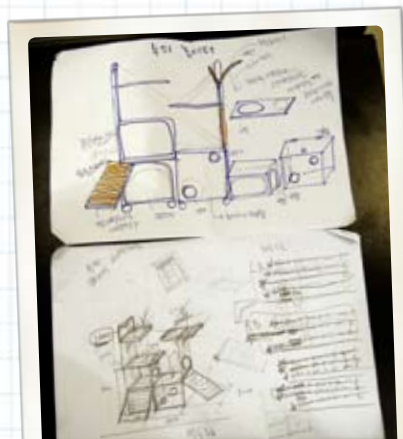
그러던 중 우연히 문래예술공장의 〈고양이를 부탁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행운을 트위터 타임라인을 통해 붙잡게 되었다. 트위터 만세! 고양이를 위한 자신과 고양이만의 ‘놀이터’ 만들기 워크숍! 〈고양이를 부탁해〉는 버려진 고양이를 키우는 영등포 지역 주민이나 영등포구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워크숍이다. 잠재력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시민문화 개발과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된 문래예술공장의 MEET(Mullae! Emerging & Energetic)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퍼니처 아트 작가이자 문래창작촌에서 나무수레 공방을 운영하는 이정원 작가의 주도로 진행된 워크숍은 이미 버려진 고양이를 키우는 작가 5명을 대상으로 1차 워크숍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나는 일반 참가자 1기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총 3회에 걸쳐 12가족이 목공재료를 활용한 고양이 놀이터를 직접 제작할 수 있다.

캣타워라는 이름보다는 고양이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놀이터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에 따라 ‘고양이 놀이터’라 부르기로 했는데, 어쨌든 직접 내 손으로 ‘루’의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단니 ‘루’를 처음 만난 순간만큼이나 떨렸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까? 과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뒤로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나무수레 공방 블로그를 들락날락하며 그곳 작가들이 만든 수준 높은 고양이 놀이터를 보며 기다리는 시간이 흘러갔다.

공구가 몸에 착 달라붙을 때까지

드디어 7월 21일 오리엔테이션 시간. 나무수레 이정원 선생님과 도움을 줄 심수화 선생님, 그리고 워크숍에 1기 참가자들이



1 내 스케치(위)와 선생님의 수정본(아래). 대략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보내면 치수와 형태 틀을 잡아 디자인을 수정해준다.



2 스케치에 맞춰 재단한 나무에 그림을 그리고 구멍을 낸다.



3 수성 본드로 나무판자를 붙이고, 에어퍼커로 본드를 고정한다.

모인 가운데, 자신이 만들 고양이 놀이터를 디자인해서 보내라는 미션을 받았다.

나는 집에 수납할 공간도 적고 또 '루'가 다른 집 고양이처럼 아주 높은 곳을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지 높지 않은 박스 형태로 만들기로 했다. 박스 부분은 무엇이든 수납할 수 있고 위에는 '루'가 올라가서 놀거나 쉴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박스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루'는 박스도 봉지도 다 싫어하는, '개방형' 고양이이다.

7월 23일 문래예술공장 M30 스튜디오에 모인 우리는 재단이 끝나 만들 작품이 조립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과연 될까 싶던 고양이 놀이터가 스튜디오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공구 사용과 본드 붙이는 법을 배웠다. 공구 사용법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는 조언을 되새겨본다. 그러나 둘째 날에는 모든 참가자가 공구 사용에 익숙해져 뭐든 척척 해냈는데, 공구가 좋아서인지 목수가 좋아서인지 모르겠다. 어떤 참가자는 공구가 몸에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경지에는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 내심 기대했는데 결국 느껴보지 못한 채 작업이 끝나고 말았다.

흔히 나사못이 가구를 지탱해주는 것 같은데 실은 나무와 나무를 붙이는 본드가 오랜 시간 뒤틀림 없이 튼튼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래서 꼼꼼하게 붙이고 잘 붙을 때까지 고정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나사못을 박은 뒤 다 된 줄 알고 본드가 붙을 때까지 고정해놓지 않았더니 그 다음주에 약간 뒤틀려 있었다. 그리고 본드를 바른 후 남은 본드는 잘 닦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바니시를 칠할 때 하얀 자국이 남게 된다. 본드를 지우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나무판에 표시했던 연필 자국을 지우는 일이다. 처음에 별 생각 없이 나중에 지우면 되겠지 했는데 나무가 수분을 먹은 탓인지 잘 지워지지 않았다. 연필로 표시한 다음 작업을 마치면 바로바로 지우라고 권하고 싶다. 무엇보다 얇은 샤프와 좋은 지우개는 필수다.

공구와 본드에 대해 주의할 점과 사용법을 다 익히고 나면 재단된 나무판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조립하기 전에 구멍 등의 디자인 요소는 다 작업을 해두는 게 좋다. 직소를 이용해 나무판에 구멍을 뚫는 작업은 모든 참가자가 즐거워한 일 중 하나로, 웬지 나만의 디자인이 완성되는 느낌이었다. 나중에는 서로 디자인에 없던 것

까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곤 했는데 고양이 모양 구멍도 그렇게 해서 나왔다.

그 다음 본격적인 조립 작업이 진행되었다. 모두가 가장 힘들어한 작업은 마킹이었다. 각각의 나무판을 이어줄 나사못이 들어갈 자리를 맞춰 일일이 마킹하는 작업은 몇 밀리미터까지 재며 체크해야 하기에 지루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마킹이야말로 작업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에 열심히 단위를 세어가며 작업을 했다. 그런 다음 나사 구멍을 내고 못을 박은 후 그 위에 다시 나무못을 끼워 잘라내어 나사못 박은 흔적을 없애준다. 그렇게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놀이터. 다른 참가자들에 비해 단순한 디자인이기에 가장 먼저 조립을 완성했다.

내 고양이의 진심은?

첫날 수업이 끝나고, 그다음 주인 7월 30일 오후 다시 찾은 스튜디오. 조립이 끝난 후에는 사포를 이용해서 나뭇결을 매끄럽게 다듬는다. 나뭇결을 좀 더 살리고 싶다면 대패질을 하는 게 좋다. 사포질을 하는 것 역시 마킹과 더불어 가장 지루하고 힘든 작업 중의 하나다. 거칠거칠하면 고양이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나무에 찔리거나 벨 수 있으므로 열심히 하나하나만 저가며 각을 부드럽게 깎고 나뭇결을 다듬었다. 마킹 작업과 사포질 작업은 심하게 말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 의식을 놓아버려야 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다. 원래의 디자인과는 조금 다르게 완성된 작품. 박스를 지탱할 기둥이 하나씩 첨가되어 그곳에 '루'가 사용할 삼줄을 감은 뒤 드디어 완성된 놀이터!

첫 작업치고는 완성도가 있지 않나 뿌듯해하며 다른 참가자들의 작품을 본 순간, 조용히 꼬리를 내렸다. 다들 어찌나 잘 만들었는지. 디자인에 좀 더 신경을 쓸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틀 동안의 작업 후에도 다 하지 못한 칠하기



4 고정된 판자에 구멍을 내고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5 나사못 박은 자리에 나무못을 박고 평평하게 잘라내어 표면을 깔끔하게 한 다음, 표면을 사포로 정리한다.



6 기타 부속품 공정을 마무리한다. 수성 베니스를 꼼꼼히 칠해 잘 말린 다음 부드러운 사포로 결면을 다시 밀어서 정리한다.

작업과 '루'를 위한 스크래치 판과 박스 문달기는 일과 후 '나무수레' 공방으로 직접 가서 마무리했다. 표면에 수성 베니스를 칠하고 말린 다음, 그 위를 다시 살짝 사포로 다듬었다. 사용하는 동안 손을 타면 반질반질해진다고 한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시도해보고 싶었던 것은 나무 스크래치. 처음에는 나무에 삼줄을 감으려고 했는데 기둥에 이미 삼줄이 감겨 있어 그냥 나무에 홈을 파 그대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루'가 집 나무 기둥을 스크래치 삼아 긁는 버릇이 있기에 그걸 어떻게 고쳐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이경원 선생님이 좋은 생각이리라면서 나무 판에 예쁜 문양으로 홈을 파주셨다. 가장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탄생한 순간. 무엇보다 선생님이 앞으로 이 스크래치 판을 잘 활용해보시겠다니 얼른 집으로 가져가 '루'에게 검사를 받아야겠다. 덤으로 나무판을 하나 더 주셨는데, 삼나무 원단을 붙여 스크래치 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두 개의 모듈로 만들어서 하나씩 따로 옮기거나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를 집으로 가져와 배치해보았다. 처음에 '루'는 언제나 그렇듯 탐색하듯 냄새만 맡고는 가버렸다. 결국 그 다음 날, 낚싯대를 이용해서 '루'를 놀이터로 유도했다. 그랬더니 역시나 놀이터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낚싯대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다니는 걸로 보서는 적당한 높이와 크기의 놀이터가 탄생한 것 같았다. 스크래치 판에 낚싯대를 올려놓고 기다렸더니 '루'는 얼떨결에 스크래치 판을 긁어보고 어리둥절해했다. 만들새야 어떻게 그곳에 자리 잡고 누운 '루'를 보니, 새삼 '루'와 함께한 순간들이 떠오르며 무엇 하나 잘해주지 못해도 건강하게 옆에 있어준 나의 반려이자 소울메이트(물론 나는 서로 통한다고 생각하지만 '루'의 입장에서는 소통의 부재를 걱정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가 무척 고마웠다. 이것으로 그 고마움에 대한 빚 하나는 갚았겠거니 싶은데, '루'의 표정을 보니 '뚝뚝거리며 만들어 온 점이 가상하여 내 친히 사용을 해보지'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루'와 나의 손때가 묻어서 닳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 잘 사용해보자!

2차 워크숍은 8월 말에 진행되고, 마지막인 3차는 9월 말에 진행될 예정. 또한 8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길고양이 관련 사진을 공모하여 문래예술공장 등지에서



7 집 안에 설치!

전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버려진 반려동물의 현실을 홍보하는 계기를 가진다고 한다. 10월 15일에는 워크숍 참가자들과 작가들이 작업한 결과물을 전시하고 고양이 파티를 열 예정이라고 하니 한번 땀은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고양이를 부탁해 <http://cafe.naver.com/mullaecat>
나무수레 공방 <http://cafe.naver.com/namoosure>

Must 7

01 고품격 런치 콘서트

〈자미(滋味)〉 |

9월 5일~12월 28일(매주 월·화·수) |

삼청각 일화당 공연장 | 02-765-3700

‘자미’는 제주도 방언으로 영양가 높은 좋은 음식을 뜻한다. 삼청각에서 선보이는 프리미엄 런치 콘서트 〈자미〉는 맛과 풍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빼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젊은 국악 앙상블 ‘청아랑’의 연주와 판소리, 한국무용까지 한자리에서 펼쳐진다. 공연 후에는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삼청각의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01

02 60일간의 공연 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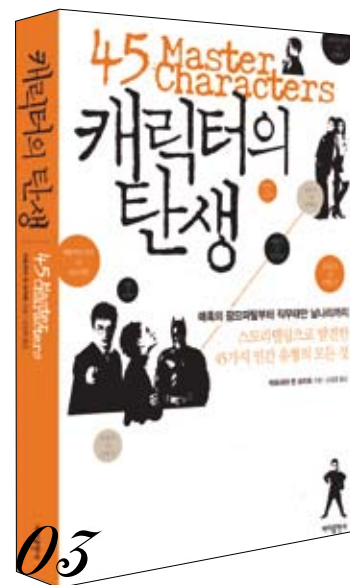
제5회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 8월 31일~10월 30일 |

국립극장 | 02-2280-4114

전 세계의 수준 높고 개성 있는 공연예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60일간의 기회. 모리메르의 17세기 프랑스 사회 풍자극 〈상상병 환자〉, 세계 최고의 이미지 연극 연출가 로버트 윌슨의 〈마크로폴로스의 비밀〉, 중국 라오닝 발레단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합작한 대형 발레극 〈마지막 황제〉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품들이 국립극장 무대에 오른다. 〈수궁가〉 〈Part of Nature〉 〈화선 김홍도〉 등의 국내 작품도 빼놓을 수 없는 공연.



02



03

03 45가지 인간 유형

〈캐릭터의 탄생〉 | 빅토리아 린 슈미트 지음 |

남길영 옮김 | 바다출판사 펴냄

소설, 드라마, 연극, 영화 등 세상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45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분석한 책. 시나리오 작가이자 스토리 컨설턴트인 저자가 분석한 이들 캐릭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캐릭터이기도 하다. 32가지의 남녀 캐릭터와 13가지의 조연 캐릭터를 따라가다 보면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만날 수 있을지도.



04

04 서울을 두드리는 난장

서울드럼페스티벌 2011 | 9월 23일~9월 24일 |

서울광장 | www.seouldrum.go.kr

9월, 세계적인 드러머들의 신명 나는 공연 한마당이 서울광장에서 펼쳐진다. 바로 세계인과 함께 즐기는 두드림 퍼포먼스, 서울드럼페스티벌. 호주 타악팀 Synergy의 개막 공연을 비롯, 전통·퓨전·서양타악 등 다양한 장르의 아마추어 타악 단체가 참여하는 아마추어 경연대회, 세계 타악기 체험과 타악 교실 등 각종 행사가 서울 시민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06 세계 포토저널리즘의 현재

〈연합국제보도사진전〉 | 9월 30일까지 |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 | 02-398-3661

연합뉴스와 유엔이 함께 마련한 국제보도사진공모전. 세계 7개국의 포토저널리스트들이 응모한 1,900여 작품 중 80여 작품을 선정, 전시한다. AP통신 에밀리오 모레나티(스페인) 기자의 대상 수상작 〈콜레라 희생자들〉을 비롯, 전 세계 포토저널리즘의 현재를 만날 수 있다. 이들 작품들은 8월 22일부터 9월 9일까지 뉴욕에 위치한 UN본부에서도 공개된다.



© 연합뉴스

06

07



07 지킬과 팬텀이 한 무대에

The Music of the Night 2011 | 9월 2일~9월 4일 |

샤롯데씨어터 | 1577-3363

최고의 히트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와 〈오페라의 유령〉의 명곡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갈라 콘서트. 두 작품의 하이리트 무대뿐만 아니라 팬텀과 지킬, 두 주인공의 공동 무대 등 특별한 시간을 마련한다. 브래드 리틀, 홍광호, 김선영, 김소현 등 작품의 주역들이 그대로 출연, 본 공연 못지않은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05

05 뉴요커에게 배우는 삶의 방식

〈도시에서 행복하게 사는 법〉 |

정용실 · 아규현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도시로 손꼽히는 뉴욕. 그곳에서 살아가는 뉴요커들의 진짜 모습은 어떨까? 아나운서 정용실과 미술 저널리스트 아규현이 뉴욕에서 살면서 보고 겪고 발로 뛰며 알아낸 뉴요커들의 삶을 책으로 펴냈다. 뉴욕이란 도시를 새로운 시선에서 탐구, 팍팍한 도시의 삶을 낭만적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전한다.

Cultural Calendar

9 월 의 재 단 소 식

09



아름다운 꿈_테오와 빈센트



줄노리 현대음악



2011년 박나훈의 춤_세 개의 공기



2011년 박나훈의 춤_배추생각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공연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극	전설의 달밤	대학로문화공간 [이다.] 2관	9/1(목)~9/11(일)	대학로문화공간 [이다.] 2관 02-762-0010
	연극 임성구와 혁신단의 육혈포 강도 공연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9/7(수)~9/18(일)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 02-3668-0029
	아름다운 꿈	산울림 소극장	9/14(수)~10/2(일)	산울림 소극장 02-334-5915
	거기가 거기	대학로문화공간 [이다.] 2관	9/16(금)~10/16(일)	대학로문화공간 [이다.] 2관 02-762-0010
	연극-Q요리 그제 뭐지요	설치극장 정미소	9/19(월)~10/3(월)	설치극장 정미소 02-3672-3001
무용	2011 발레블랑 정기공연	마포아트센터	9/1(목)	마포아트센터 02-3274-8600
	2011년 박나훈의 춤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	9/8(목)~9/9(금)	아르코 예술극장 02-760-4877
	2011 무용문화포럼이 선정한 안무가시리즈	두리춤터	9/20(화)~9/23(목)	두리춤터 02-514-3283
	Salon de factory 1+1+1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9/29(목)~10/1(토)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02-2280-4114
음악	'Ballade-쇼팽 & 리스트 피아노 걸작선'	LG아트센터	9/22(목)	LG아트센터 02-2005-0114
	첫 나들이 한국 가곡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9/22(목)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 02-399-1111
	서울색소폰과르렛 제6회정기연주회 同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9/23(금)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토너스 트리오의 'A Night of Variations'	호암아트홀	9/27(일)	호암아트홀 02-751-9606
	앙상블유림 50회 정기연주회	금호아트홀	9/29(화)	금호아트홀 02-6303-7700
	2011 채리티 체임버 앙상블 정기연주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9/28(수)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02-580-1300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우연당	9/14(수)	국립국악원 우연당 02-580-3333
전통	줄노리 현대음악	웰컴씨어터	9/3(토)	웰컴씨어터 02-720-0749
	그림(The林) Music Theater 〈접신가객(接新歌客)〉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9/3(토)~9/4(일)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02-3668-0029
	박재천의 Korean Grip	남산국악당	9/3(토)~9/4(일)	남산국악당 02-2261-0515
	거문고연구회 동보악회	국립국악원 우연당	9/14(수)	국립국악원 우연당 02-580-3333
	창단 1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국립국악원 우연당	9/14(수)	국립국악원 우연당 02-580-3333
	아비 찾아 뱅뱅 돌아	남산국악당	9/16(금)~9/18(일)	남산국악당 02-2261-0515
	곽수은 음반 출판 기념 가야금콘서트	코우스	9/22(목)~9/23(금)	코우스 02-567-6978
'폭풍의 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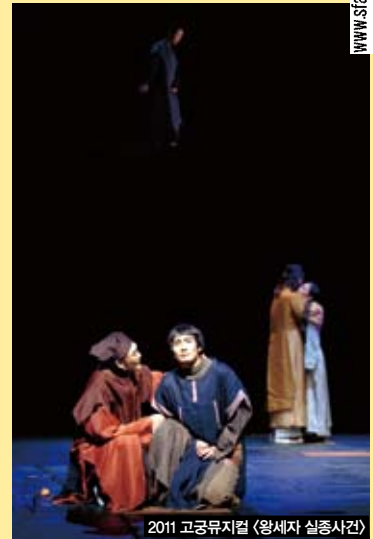
시각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전시	한국미술을 말하다-양가주망50년전	공아트스페이스	8/31(수)~9/20(화)	공아트스페이스 02-735-9938
	웅니버스 네러티브- 삶, 사람, 사랑	나무화랑	8/31(수)~9/9(금) 9/14(수)~9/23(금) 9/24(토)~10/3(월)	나무화랑 02-722-7760
	리퀴드 드로잉전	공아트스페이스	9/28(수)~10/4(화)	공아트스페이스 02-735-9938
	매뉴얼의 복수	갤러리2	9/1(목)~10/2(일)	갤러리2 02-3448-2112
	The re-creation	인사아트센터	9/14(수)~9/20(화)	인사아트센터 02-736-1020
	밤에 익숙해지며	갤러리팩토리	9/20(화)~10/15(토)	갤러리팩토리 02-733-4883

다원예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다원	詩 퍼포먼스 [늑대의 옷]	살롱 드 마랑	9/3(토)~10/8(토)	살롱 드 마랑 010-2007-1225

우수예술축제 지원사업				
축제	제13회 '생생' 춤 페스티벌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양재동소재)	9/22(목)~9/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대극장 02-571-8100

시민축제 지원사업				
시민축제	나이 없는 날	서교동 걷고 싶은 거리	9/17(토)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남산예술센터				
공연	검객괴담 <도화만발>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9/6(화)~9/25(일)	02-758-2150
고궁뮤지컬				
공연	2011 고궁뮤지컬 <왕세자 실종사건>	경희궁 송정전	9/1(목)~9/21(수) (9/11 공연 쉼. 우천 시 추가 공연 가능)	02-3290-7165
서울연극센터				
프로그램	9월 대학로연극투어	서울연극센터	9/25(일) 오후 12시 30분	02-743-9333
서교예술실험센터				
전시	'오프도시 OFF'C_Fabrik'	서교예술실험센터	9/7(수)~9/27(화)	02-333-0246
	홍대 거리미술전 '벽화프로젝트'	서교예술실험센터	9/3(토)~9/10(토)	02-333-0246
프로그램	제7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특별행사 '와우만화잔치'	서교예술실험센터	9/28(수)~10/3(월)	02-333-0246
신당창작아케이드				
프로그램	공공미술프로젝트 <시장골목 살리기>	신당지하상가	8/1(월)~9/17(토)	02-2232-8833
	지역연계교육프로젝트 I <화요예술클럽1- 황학여(餘)지도>	성동공업고등학교	8/23~11/8(10주, 매주 화)	02-2232-8833
	지역연계교육프로젝트 II <화요예술클럽2-칠보 심화 강의>	성동공업고등학교	8/23~11/8(10주, 매주 화)	02-2232-8833
	지역연계교육프로젝트 III <프로젝트 (아이)- 소리 얼굴>	신당창작아케이드	8/10~10/12(10주, 매주 수)	02-2232-8833
연희문학창작촌				
프로그램	연희문학학교 개강특강 <비리데기의 꿈> (강은교 시인)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3동)	9/6(화) 오후 7시	02-324-4690
	연희문학학교(시창작, 소설창작)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 랩(3동) / 세미나실(1동)	9/20~12/6(매주 화, 오후 7시~9시)	02-324-4690
	연희문학학교(브런치)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3동)	9/20~12/6(매주 화, 오전 11시~오후 1시)	02-324-4690
공연	9월 연희목요낭독극장 <터미널, 울었다>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	8/25(목) 오후 7시 30분	02-324-4690
문래예술공장				
전시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 관용주 작가 개인전 <폭포>	문래예술공장 1층 스튜디오M30	9/16(금)~10/5(수)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 휴관)	02-2676-4300
퍼포먼스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MAP 서현석 퍼포먼스 <영혼의 성스러운 매춘>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로즈마리웨딩홀	9/18(일), 9/25(일) (2회 오후 4시~오후 7시)	02-2676-4300
영화상영	[MEET] 문래동네, 씨네문 & 인디필름데이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외 문래창작촌 전역	9/10(토, 오후 7시) 인디필름데이: 9/24(토, 오후 7시)	02-2676-4300
프로그램	장롱 속 기타 꺼내기 3기	문래예술공장 녹음실	매주 월·화·수·목 오후반: 오후 4시~5시 30분 야간반: 오후 7시 30분~9시	02-2676-4300
성북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극단 마실의 조각보(과정중심의 연극놀이)	성북예술창작센터	9/1(목)~10/1(토)	02-943-9300
	주근깨 난 콩나물이 있는 수다방	성북예술창작센터	9/3(토)~12/6(화)	02-943-9300
	간다힐링 아트하우스(이주노동자 워크숍)	성북예술창작센터	9/8(목)~9/29(목)	02-943-9300
	마을의 기억(참여작가_성민화)	성북예술창작센터	9/16(금)~10/1(토)	02-943-9300
	초등학생 음악치료	성북예술창작센터	9/19(월)~11/22(화)	02-943-9300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음악치료	성북예술창작센터	9/21(수)~11/23(수)	02-943-9300





가든파이프 〈가드너(시민아티스트) 공연〉



가든파이프 〈만드는 가드너〉



흥은예술창작센터 〈몸, 좋다〉



서울문화예술탐방



연극 〈라이어〉

구분	사업	장소	일시	문의
	오! 수집Q	성북예술창작센터	9/4(일)~10/23(일)	02-943-9300
	마음쑥, 자신감쑥(초등학생 미술치료)	성북예술창작센터	9/1(목)~11/3(목)	02-943-9300
	에너지업스트레스다운(성인대상 미술치료)	성북예술창작센터	9/7(수)~11/9(수)	02-943-9300
	장위시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성북예술창작센터	9/20(화)~12/6(화)	02-943-9300
	미술로 만드는 행복한 교향곡	성북예술창작센터	9/19(월)~11/22(화)	02-943-93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프로그램	미디어영어 프로그램 〈은천동, 은천이〉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8/3(수)~9/24(토)	02-871-7400
------	-----------------------	------------	----------------	-------------

흥은예술창작센터

프로그램	몸, 좋다	흥은예술창작센터	8/12(금)~10/14(금)	02-304-9100
	꿀, 좋다	흥은예술창작센터	8/25(목)~10/27(목)	02-304-9100

장애인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스튜디오 스쿨링	장애인창작스튜디오	9/2(금)~10/21(금)	02-423-6674~5
------	----------	-----------	-----------------	---------------

책 읽는 서울

프로그램	책, 음악과 만나다-푸슈킨의 '스페이드 여왕'과 차이코프스키 오페라 '스페이드여왕'	대화로 서울연극센터	9/6(화) 저녁 7시 30분	02-3290-7162
	책, 세상과 만나다-책에도 사람에게도 '때'가 있다. '나의 삼촌 브루스 리'	대화로 서울연극센터	9/20(화) 저녁 7시 30분	02-3290-7162
	책, 영화와 만나다-되불아가는 길 '라쇼몽'	대화로 서울연극센터	9/27(화) 저녁 7시 30분	02-3290-7162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그램	건축탐방 : 전통한옥의 변신	한샘디자인센터, 두가헌, 민가다헌	9/9(금) 오전 10시 30분	02-3290-7144
	건축탐방 : 자연과 하나 되는 디자인	김중영미술관, 다빈치힐, 미메이스 아트하우스	9/16(금) 오전 10시 30분	02-3290-7144
	미술관탐방 : 삼청동갤러리탐방	학교재, 현대, 아라리오	9/23(금) 오전 10시 30분	02-3290-7144
	미술관탐방 : 숨어 있는 미술관 찾기	성곡미술관, 대림미술관	9/30(금) 오전 10시 30분	02-3290-7144
	역사탐방 : 경복궁 이름을 말하다	경복궁 사정전	9/3(토) 오전 11시	02-3290-7144
	역사탐방 : 세종의 선물	경복궁 수정전	9/10(토) 오전 11시	02-3290-7144
	역사탐방 : 어린왕의 마지막 충신	경복궁 사정전	9/17(토) 오전 11시	02-3290-7144
	역사탐방 : 경희루의 눈물	경복궁 경희루	9/24(토) 오전 11시	02-3290-7144

가든파이프 〈문화술프로젝트〉

공연	하늘樂 콘서트	가든파이프 옥상정원(테크노관)	9/2~9/17(1·3주, 금·토 오후 7시 30분)	02-2157-8770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가든파이프 중앙광장	9/2~10/8 (금·토 오후 7시 30분)	02-2157-8770
	가드너(시민아티스트) 공연	가든파이프 내 곳곳	9월(매주 토·일)	02-2157-8770
전시	Coming Art Jungle展	가든파이프 옥상정원	9/2(금)~10/16(일) (금·일, 45일간)	02-2157-8770
교육	문화술프로젝트강연(이운정 작가)	가든파이프 패션관 11층 중회의실	9/7(수)	02-2157-8770
	아띠북카페 '구연동화'	가든파이프 영관 9층 전시장	9월(1·3주 일요일, 1회 오후 2시)	02-2157-8770
체험	만드는 가드너(북아트)	가든파이프 스프링플라자(B1)	9/2~10/16(1·3주 토·일)	02-2157-8770
	[공공미술프로젝트] 타일 그림그리기	가든파이프 스프링플라자(B1)	9월(매주 토·일)	02-2157-8770
공연	[연극] 라이어	가든파이프 아트홀 (영관10층 CGV 내)	8/27(토)~9/10(토)	02-2157-1140
	[동요콘서트] 구름뽕	가든파이프 아트홀 (영관10층 CGV 내)	9/22(목)~9/25(일)	02-2157-1140

S F A C N e w s

9 월 의 재 단 소 식

09



전문 스토리텔러와 함께

2011 서울문화예술탐방 Best 10

2010년 진행된 서울문화예술탐방 프로그램 중 시민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5개의 테마를 선정, 또 한 번의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에는 하나의 테마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건축, 미술관, 문학, 영화, 박물관 등의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서울문화예술탐방은 인지도 높은 스토리텔러를 섭외하여 서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9월에는 광장건축의 대표이자 '땅콩집'으로 유명한 이현욱 건축가와 MBC 김지은 아나운서가 스토리텔러로 나선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일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문의 02-3290-7144, cafe.naver.com/walkingseoul

9월 일정 안내	
9월 9일(금)	건축: 이현욱(광장건축 대표) 전통한옥의 변신: 한샘디자인센터, 두가현, 민가다현
9월 16일(금)	건축: 이현욱(광장건축 대표) 자연과 하나 되는 디자인: 김중영미술관, 다빈치힐, 미메이스 아트하우스
9월 23일(금)	미술관: 김지은(MBC 아나운서) 삼청동 갤러리 탐방: 학고재, 현대, 아라리오
9월 30일(금)	미술관: 김지은(MBC 아나운서) 숨어 있는 미술관 찾기: 성곡미술관, 대림미술관

2011 고궁뮤지컬 9월 1일 Grand Open!

<왕세자 실종사건>

극단 죽도록달린다의 뮤지컬 도전작 <왕세자 실종사건>이 고궁을 무대로 다시 찾아온다. 지난해 10월 초연된 <왕세자 실종사건>은 올해 제5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소극장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연은 신인 뮤지컬배우 김대현과 강하늘을 비롯해 22명의 실력파 배우들이 출연할 예정이며, 관객들은 왕이 자리했던 경희궁 송정전의 월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공연 안내

일시	9월 1일~21일(9월11일(일) 공연 함, 우천 시 연장 가능)
장소	경희궁 송정전
문의	클립서비스 02-501-7888 www.wangseja.com

2011 서울문화예술탐방

<연극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궁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연극배우들이 현장에서 직접 재현하며 역사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 투어 프로그램이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장 방문객 모두 관람 가능하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9월 3일~9월 24일 매주 토요일 11시
장소	경복궁
참가비	무료
문의	02-3290-7144

서교예술실험센터 정기공모 운영프로그램

실시간 퍼포먼스 <오프도시 OFF°C_Fabrik>

서교예술실험센터 정기공모 운영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실험+공간 오프도시(OFF°C)'가 그동안 지속해온 프로젝트를 통해 예술형식과 개념, 생산과 유통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등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실험한 경험을 토대로 한 결과물인 <오프도시 OFF°C_Fabrik>을 진행한다. 오프닝 퍼포먼스는 흥대 일대를 비롯해 과천, 부산, 호주를 무대로 한 '도시 Publishing_on'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9명의 퍼포머의 행위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미디어를 매개로 웹을 통해 서교예술실험센터와 오프도시로 실시간 전송되어 관객과 만난다.

이 외에도 오프도시(OFF°C)가 기획한 실험적 예술 매개 프로젝트인 실시간 중계 스크리닝 프로그램 'AMC 스크리닝'과 '1인 프로젝트', '오프영도시_공장(OFF°C_Fabrik 포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1층 전시장에서 진행된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연희문학학교〉 강은교 시인



〈홍대 거리미술전 벽화 프로젝트〉

프로그램 안내

일시	9월 7일~9월 27일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문의	www.undergroundartchannel.net & www.offdoci.com 070-7555-1138, 02-333-0246

서교예술실험센터 축제지원 프로그램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와우만화잔치〉

2011년 제7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특별행사 '와우만화잔치'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와우만화잔치'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전시를 통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닌 오감으로 책을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책이 주는 다양한 가치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와우북페스티벌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홍대 앞의 만화가와 일러스트레이터 및 만화작가들의 작품 속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는 〈만화캐릭터전시〉와 〈머털이〉 〈임꺽정〉 등 대한민국 국보급 만화가 이두호 만화가의 원화 전시,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 만화가를 꿈꾸는 이 시대 젊은 만화가와 만화 애독자들과 함께 만화의 세계, 만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50년 만화인생, 이두호 만화가의 원화 전시전〉 등도 마련된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9월 28일~10월 3일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전시장
문의	02-336-1585, cafe.naver.com/wowbookfest

서교예술실험센터 공간재생 프로젝트

〈홍대 거리미술전 벽화 프로젝트〉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는 '홍대 거리미술전'에 참여한 아티스트들이 직접 센터 내 유휴공간을 창조적으로 꾸미는 프로젝트를 9월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 미술을 일상의 한 부분으로 채우려는 거리미술전은 여전히 미술을 어려운 '교양'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환기하고자, 닫힌 공간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진행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들이 미술을 더욱 가깝고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미술 감상과 참여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자 한다.

연희문학창작촌 시민문예교실

〈연희문학학교〉 개강

9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13주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진행되는 가을학기 〈연희문학학교〉는 묵직한 사색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버리며 강건한 목소리로 단단한 시적 사유를 펼쳐온 이영광 시인이 '시 창작 교실'에, 노련함과 새로움이 조화를 이루며 원종국 소설가가 '소설 창작 교실'에 담임강사로 참가한다. 지난 봄학기 신설되어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킨 '브런치 연희문학학교'는 김언수 소설가, 장이지 시인, 김성배 희곡작가, 김언 시인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유명 작가들과의 문학적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강 특강으로는 〈비리데기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강은교 시인과 의 만남도 준비되어 있다.

수강신청은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연희문학창작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각 수업의 수강료는 10만 원이며, 시 및 소설 창작 교실은 선착순 20명, 브런치 연희문학학교는 10명 정원이다. 개강특강 역시 같은 기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 후 참여 가능하며 정원은 선착순 60명.

문의 연희문학창작촌 02-324-4690

9월 연희목요낭독극장

〈터미널, 울었다〉

연희문학창작촌의 연간 기획 프로그램인 '연희목요낭독극장'의 9월 무대가 9월 29일 저녁 7시 30분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는 박형준, 이홍섭 시인과 함께한다. 1부 '아버지의 죽음에 바치는 노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사부곡이다. 2부 '책상에 강물을 올려놓고'와 3부 '남은 빛'에서는 풍경과 사물이 언어와 어떻게 만나 박형준 식으로 빛을 발하게 되는지 느낄 수 있다. 이홍섭 시인의 신작 〈터미널〉은 고향 영복으로 돌아와 내밀하고 순정한 고향을 그려낸 작품들을 담아



〈영혼의 성스러운 매춘〉



현실 채집 프로젝트 〈폭포〉



〈오! 수집Q〉

냈다. 이 시집의 제목이자, 가장 중요한 연작인 〈터미널〉은 모두 아홉 편이 실려 있다. 이번 공연은 〈바람이 분다〉 등을 선보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창근 작가가 연출을 맡는다.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은 누구든 환영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문의 연희문학창작촌 02-324-4690

문래예술공장 예술가지원 프로젝트 2기

〈영혼의 성스러운 매춘〉

문래예술공장은 예술가지원 프로젝트(MAP) 2기로 선정된 서현석 작가의 장소특정적 신작을 선보인다. 관객은 작가가 제시한 영등포의 한 웨딩홀에 도착하여 파트너 '퍼포머'를 만나 30분간의 여정을 안내받는다. 이 동반자 퍼포머와 함께 역사적 모티프이자 시간을 횡단하는 이정표로서 작가가 지정한 공간인 영등포 여인숙을 방문한다. 관객은 작가가 펼치는 상황들 안에서 귀를 막고 시각 감각에만 의존한 상태로 안내받아 이동하며 관람하게 된다. 이름하여 〈영혼의 성스러운 매춘〉인 이 장소특정 참여 퍼포먼스는 9월 18일과 25일(오후 4시~7시) 이들 동안 진행되며, 관객은 영등포시장역 3번 출구 로즈마리 웨딩홀로 와서 안내자 퍼포머를 만나면 된다. 프로그램은 예약에 의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문래예술공장 02-2676-4300

문래동을 소재로 한 대형 폭포 조형물

현실 채집 프로젝트 〈폭포〉

문래예술공장 예술가지원 프로젝트(MAP) 2기로서 첫 번째 선보이는 권용주 작가의 현실 채집 프로젝트 〈폭포〉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문래예술공장 1층 스튜디오M300에서 전시된다. 권용주 작가의 이번 신작은 문래동의 이미지나 흔적들을 그대로 수집하여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문래동만의 독특한 현실을 작가의 조형적 언어로 변역한 '현실 특정적' 설치물이다.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버린 가재도구와 철공소에서 생활의 흔적 등을 관찰하고 채집하여 작가만의 '쌓기'와 '고정하기'의 반복을 통해 완성된 대형

폭포를 보여준다. 전시 입장은 무료이며, 주말에는 관람할 수 없다.

문의 문래예술공장 02-2676-4300

성북예술창작센터 커뮤니티아트

가난뱅이모임의 〈오! 수집Q〉

성북예술창작센터 2기 입주단체인 커뮤니티아트 그룹 가난뱅이모임이 9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오! 수집Q〉란 이름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동네 산책과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집 네트워크로, 몸과 환경에 좋은 물건을 공동으로 수집하고 수집 과정에서 쓰레기, 재활용, 환경오염, 동네 자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진다. 모두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각 2회로 나눠 동네를 산책하는 수집산책 코스로, 재사용 가능한 물건을 주로 수집하여 이야기방하는 '수집산책 코스'와 리폼 창작을 위한 재료를 수집하여 재사용 방법을 모색하고 창작활동을 탐구하는 '리폼 창작재료 수집'으로 꾸며진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성북예술창작센터 온라인카페를 통해 접수가 진행된다.

프로그램 안내

일시	9월 4일~10월 23일
장소	성북예술창작센터 스튜디오#3(3층)
문의	성북예술창작센터 02-943-9300, cafe.naver.com/sbartspace

장애 예술가라면 누구나 지원 및 참여 가능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입주예술가 정기공모 & 교육프로그램 〈스튜디오 스쿨링〉

장애인창작스튜디오는 5기 입주예술가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장애 예술가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예술 관련 전공 및 학력 제한은 없다. 시각예술 분야 및 미디어, 복합예술 분야 등에서 총 14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술가들은 약 1년간 장애인창작스튜디오의 입주예술가로서 작업공간을 제공받고 전시 및 발표의 기회와 전문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예술적 역량을 키우는 기회



대학교연극투어

를 가질 수 있다.

한편 하반기 문화예술 전문 교육프로그램 <스튜디오 스쿨링>을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두 달여 동안 진행한다. 미술평론가 박영택, 경기문화재단 백기영, 서울문화재단 이정훈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입주예술가와 장애예술가 및 일반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다.

정기공모 안내

모집공고	9월 19일~10월 4일
설명회	9월 22일 장애인창작스튜디오
서류접수	10월 5일~10월 11일
1차 심사 발표	10월 17일
2차 심사	10월 20일
최종 발표	10월 25일
문의	장애인창작스튜디오 02-423-6674~5

연극 속으로의 특별한 체험

9월 대학교연극투어

서울연극센터는 9월 25일 오후 12시 30분 대학교연극투어를 운영한다. 대학로 속 일일사색(一日四色) 만남을 통하여 열정과 공연이 살아 숨 쉬는 대학로의 생생한 예술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설레는 첫 만남 대학로의 로비 '서울연극센터', 극장 뒤편의 은밀한 초대 '한국공연예술센터 백스테이지 투어', 배우에게 듣는 대학로 그리고 연극이야기 '배우와의 만남', 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공연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는 '연극 관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이달 '배우와의 만남'은 김학선 배우가 참여한다. 참가비용은 1인 1만 원이다.

문의 서울연극센터 02-743-9333, www.daehangno.or.kr

옥상정원에서 펼쳐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콘서트

문화숲프로젝트 <하늘樂 콘서트>

시원한 바람이 부는 '옥상'이라는 독특한 장소에서 열리는 <하늘樂 콘서트>



<하늘樂 콘서트>

는 잔디가 펼쳐진 언덕에 돛자리를 펴고 앉아서 즐기는 공연이다. 콘서트가 열릴 가든파이브의 옥상정원은 시민들을 위해 개방된 문화휴식 공간으로 11층 높이에 위치하여 시원한 전망과 숲과 잘 정돈된 조경을 자랑한다. 주목할 만한 공연팀은 대한민국 대표 락커빌리 밴드, 락타이거즈(The Rocktigers)이다. '홍대의 한류스타'로 불리는 이들의 공연은 9월 3일에 열린다. 9월 17일에는 바이날로그가 공연한다. 바이날로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두루 섭렵한 뮤지션들이 뜻을 모아 결성한 월드뮤직그룹이다. '한국적 월드뮤직'에 새로운 감각을 불어넣은 바이날로그만의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콘서트 중간에는 연인들을 위한 '하늘樂 프러포즈'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 시연신청을 하여 선정된 연인이 프러포즈를 할 수 있도록 뮤지션들과 공연 기획팀이 도와주고 선물도 준다.

공연 안내

일시	9월 2~3일, 16~17일 오후 7시 30분(매월 1·3주 금·토)
장소	가든파이브 옥상정원(테크노관)
일정	9월 2일 이장혁+니케아
	9월 3일 락타이거즈+타마엔 베가본드
	9월 16일 서덕원 밴드
	9월 17일 바이날로그
문의	www.g5culture.com / 트위터 @G5_Culture / 02-2157-8770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클래식 향연

문화숲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가든파이브 야외광장에서는 문화숲프로젝트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9월부터 10월 8일까지 총 8일 동안 진행된다.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시민들이 야외에 나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오픈형 오케스트라 콘서트다. 유명 오케스트라와 다양한 예술가의 협연을 통해 낭만적인 클래식 향연을 펼치게 된다. 이미 지난해 한 차례 진행되었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은 인근 주민들 및 가든파이브를 찾은 시민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에는 더욱 보강되어 다양한 오케스트라단과 대중적인 아티스트들과 함께 시민들을 찾아간다.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공연 안내	
일시	9월 9~10일, 22~25일, 10월 7~8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가든파이프 중앙광장
일정	9월 9일 김자경 오케스트라
	9월 10일 KBS국악관현악단
	9월 22일 송파구립청소년교향악단
	9월 23일 밀레니엄심포니 오케스트라
	9월 24일 소리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9월 25일 모스틀리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월 7일 서울팝스 오케스트라
	10월 8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문의	www.g5culture.com / 트위터 @G5_Culture / 02-2157-8770

시민 아티스트들의 꿈을 펼치는 무대

문화숲프로젝트 가드너 공연

가드너(Gardner)는 문화숲프로젝트에서 발굴한 시민 아티스트로 지난해 문화숲프로젝트 시즌 I에서 처음 시도되어 시민들에게 열렬한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 40팀이 응모하여 경합을 벌였고 최종 13개 팀이 선발되었다. 선발된 가드너는 원하는 공연 횟수, 장소, 시간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공연을 열기 때문에 매주 주말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든파이프 곳곳에서 시민에 술가들의 무대를 볼 수 있다.

상설공연 안내	
일시	6월 18일~10월 2일(매주 토, 일요일) 하루 몇 회 공연
장소	zone1-장지역 앞~테크노관 입구
	zone2-킴스클럽 앞
	zone3-중앙광장

도심 속 아트정글로의 초대

〈Coming Art Jungle展〉

가을이 시작되는 9월, 문화숲프로젝트에서 선보이는 예술작품으로 꾸민 정

글이 가든파이프 야외 옥상정원에 펼쳐진다. 다양한 재료와 표현이 돋보이는 작가들의 작품을 국한된 실내 공간이 아니라 탁 트인 야외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oming Art Jungle展〉은 어린이 체험형 전시로 동물을 형상화한 다양한 조형물을 각종 풀과 나무를 재료로 하여 만들었다. 예술작품으로 표현된 '아트정글'에서 어린이들은 동심을 마음껏 키우고 어른들에게는 그 옛날 기억 속의 추억을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는 무료로 별도의 티켓 없이 누구나 감상할 수 있다.

전시 안내	
일시	9월 2일~10월 16일
장소	가든파이프 테크노관 야외 옥상정원(11층)
작품수	2~15점
문의	www.g5culture.com / 트위터 @G5_Culture / 02-2157-8770

이보다 더 완벽한 거짓말은 없다

연극 〈라이어〉

〈라이어〉는 몰래 두 집 살림을 하던 택시운전사 존 스미스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연극이다. 온 객석을 웃음과 폭소, 발 구르는 소리로 가득 채운다. 공연이 열리는 가든파이프 아트홀은 뮤지컬, 연극, 콘서트, 가족극 등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연중 선보일 예정으로, 보다 많은 동남권 지역민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티켓을 타 공연장 대비 파격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공연 안내	
일시	8월 27일~9월 10일 화~금 8시 / 토 3시, 7시 / 일 3시
장소	가든파이프 아트홀(영관 10층 CGV 내)
가격	전석 2만 5천 원
예매처	인터파크, 옥션티켓, 예스24티켓, 롯데닷컴
문의	www.g5culture.com / 트위터 @G5_Culture / 02-2157-1140, 1577-3363

당신의 얼굴이 문화, 그리고 서울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서울의 다양한 공연, 전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서울의 전시장, 공연장 등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문화+서울」은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해당 호 월간지를 보내드립니다.



이하림, 이지우

● 문래예술공장 〈고양이를 부탁해〉에 참가한 자매

이하림, 이지우 | 문래중학교

문래동에서 문화기획을 하는 엄마 덕분에 고양이 놀이터 만들기 워크숍을 알게 되었다는 두 자매. 이들은 어느 날 운명처럼 만났던 고양이 '고돌이'를 위해 소중한 방학을 온전히 쏟아부었다.

고양이 '고돌이'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

어느 날 동물병원을 지나는데, 그냥 고돌이가 보이더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이 녀석이다!' 싶었다. 다른 동물은 길러본 적도 없었는데 정말 우연히, 운명적으로 입양하게 된 거다. 이제 키운 지 4년쯤 됐다.

〈고양이를 부탁해〉 워크숍은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

이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이경원 선생님이 엄마 사무실 오픈 때 놀러 오셨다. 그때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고돌이를 위한 놀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엄마랑 같이 참여하게 됐다.

디자인이 상당히 정교하다.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참조해 둘이서 그려봤다. 콘셉트는 고돌이가 편안하게 놀 수 있는 놀이터라고나 할까. 구름 모양 위에 있는 쥐머리 박스가 포인트다.

실제 참여해본 소감은?

작업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 자신이 키우는 고양이를 잘 알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고돌이는 물건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실도 얇은 걸 좋아하는데, 그런 성격을 반영해 만들었다.



김희전

● **가든파이프 〈하늘樂 콘서트〉를 관람한 관객**

김희전 | 직장인

지겹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오랜만에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주말. 가든파이프 옥상정원은 가족, 친구, 혹은 연인과 함께 야외 공연을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휴가의 마지막을 즐기기 위해 〈하늘樂 콘서트〉를 찾았다는 김희전 씨를 만났다.

〈하늘樂 콘서트〉는 어떻게 알게 됐나?

각종 문화 소식을 꿰고 있는 친구가 소개해줘 알게 됐다. 〈문화숲 프로젝트〉 홈페이지(www.g5culture.or.kr)에 들어가 보니 이것 말고도 재미있는 공연, 문화 프로그램이 가득하더라. 왜 이제껏 이 좋은 걸 몰랐나 싶다.

가든파이프는 처음 온 건가?

집이 여기서 좀 먼 편이라 그간 올 기회가 없었다. 이번 주가 휴가라 좀 여유가 생겨 오게 됐는데, 소풍, 외식, 공연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어 참 편리하다. 가깝지만 하면 좋으련만(웃음)

옥상정원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렇게 높은 곳에 공연장과 잔디밭이 있다니 신기했다. 외국 여행 가면 공원에서 자유롭게 공연을 보는 문화가 부러웠는데, 그런 경험을 서울 한복판에서 할 수 있다니 참 반갑다. 장지천도 바라다보여 경치도 환상이고.

〈하늘樂 콘서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해보니 8월 20일에 장기하와 얼굴들 공연이 있더라. 기회가 된다면 그때 또 오고 싶다.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참가작 〈낭만특구〉를 관람한 관객**

신동숙 | 직장인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11 둘째 날, 성미산마을극장에서는 연극 〈낭만특구〉 공연이 펼쳐졌다. 전라남도 담양의 대나무라는 특이한 소재로 관객들을 불러 모은 이 연극에, 신동숙 씨 또한 호기심과 기대로 함께했다.

〈낭만특구〉를 보러 오게 된 계기는?

남은 휴가를 어떻게 보낼까 궁리하던 차에,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이번 주에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말로만 듣던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 참여해볼까라는 생각에 괜찮은 공연들을 찾아봤는데, 독특한 소재가 눈에 확 띄더라.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열리는 흥대 앞은 자주 찾는 편인가?

회사가 강남이라, 흥대 앞까지 오기가 쉽지는 않다. 자유롭고 트렌디한 분위기 때문에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동네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웃음)

프린지 기간에 찾은 흥대 앞 분위기가 어떤지?

이즈음이 흥대가 가장 흥대다운 시기가 아닌가 싶다.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과 플래카드들이 축제 기간임을 말해주는 듯해 나도 덩달아 흥분됐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좀 더 축제의 기분을 즐기고 싶다.

프린지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인가?

축제 일정표를 보니 오늘 저녁 놀이터에서 우리 소리 공연이 있더라. 이 공연이 끝나고 시간이 된다면 한번 둘러보고 싶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야외 공연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신동숙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의 많은 독자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남산에 공연 나들이를 갔다가 「문화+서울」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알지 못했던 〈책 읽는 서울〉 캠페인을 접하게 되어 좋았는데,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독자가 일일 기자가 되어 「문화+서울」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김영식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책이 있는 공간 가이드」에 소개된 '꿈의 숲 카페드림'에 한번 가봐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에 그런 좋은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앞으로 한옥을 개조한 문화 공간 이야기를 「문화+서울」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담백하고 영양가 높은 문화 소식을 기대합니다.

유선영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책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특집에 소개된 〈책 읽는 서울〉 관련 기사들이 참 좋았습니다. 언젠가 짬을 내어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문화 공간에도 가봐겠습니다. 앞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정기적으로 책 베풀시장을 마련하면 어떨까 합니다. 주말마다 청계천에서 열리면 좋겠네요.

강상철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도서관에서 「문화+서울」을 처음 접했습니다. '영 아티스트' 칼럼에 소개된 극단 죽도록 달린다의 인터뷰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공연도 한번 보고 싶네요. 제 취미가 자전거인데, 「문화+서울」에서 자전거로 즐길 수 있는 서울 근교 여행지를 소개해주면 좋겠습니다.

윤영호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문화+서울」은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요청이 불가합니다.

아래의 기관을 방문하셔서 무료로 비치된 잡지를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로 들어오셔서 e-book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동극장,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다산플라자, LG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충무아트홀, 난타전용극장, 동숭아트센터, 아르코미술관, 대학로예술극장, KT&G 상상마당, 한전아트센터, 성곡미술관, 백암아트홀, 코엑스 아티움, 삼청각, 서울연극센터, 대학로연습실, 남산예술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신당창작아게이드, 금천예술공장, 연희문학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장애인미술창작스튜디오, 흥은예술창작센터, 가든파이프

검객과 과담

도화만발

천년의 세월을 가르리는,

칼날같은 외로움 :

프리뷰 50% 할인! (9.6 ~ 9.9)

추석연휴 30% 할인! (9.10 ~ 9/13)

남산예술센터 2011 시즌 프로그램

2011.9.06 TUE
9.25 SUN

평일 8pm, 토 3pm/7pm, 일·공휴일 4pm, 월심

남산예술센터드라마센터

원작 사카구치 안고 | 재창작/연출 조광화

관람등급 17세 이상 관람가

예매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www.NSArtsCenter.or.kr
 인터파크 1544-1555 ticket.interpark.com

음악 원미술 안무 심새인 무대 정승호 조명 정태진 의상 이유선 분장 채송화
 소품 권보라 드라마티크 김주연 무대감독 김방근 조연출 김석기

출연 박해수 장희정 황선화 홍원기 설 하 장세준 이재호 인재현 유명훈 이정수
 박경주 김주한 안창환 진명희 염혜주 조민정 이윤호

주최  서울문화재단

제작  남산예술센터드라마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